

중국어

2023년 봄

교지서강 84호

교지서강 84호

발행인 김한울

주간교수 정재현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교지〈서강〉

디자인 펍&헤람

출판 / 인쇄 펍&헤람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우정원 지하 115호 교지 편집위원회

sggyozi.sogang.ac.kr
instagram.com/gyozisogang
soganggyozi2@gmail.com

목차

여는 글

학교

만남시다 한중단 여러분 :	06
인권김밥천국 네트워크를 꿈꾸며	
서강, 이제 제로 캠퍼스로 다시 태어날 때	32
비건친화적 캠퍼스를 위하여	44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54
대학원생 노동과 교수 권력,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62

사회

2022 〈박강아름 결혼하다〉 집담회	70
난민, 아동, 기후	82
동물 복지 실현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합니다	88
‘존중’이 나의 자유를 침해할 때	96
미워해도 소용없어! : 전장연 혜화역 선전전 연대 후기	102

문화

반쪽짜리 응시에 관하여	116
프란시스는 두 발로 달린다... 자동차는 없다!	124
사내들이여,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130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조선	136

선배의 글

2010년대 초반 교지인의 고민 : ‘시사’와 ‘담론’ 사이에서	148
교지 ‘서강’이 지켜보고 있다	154
무용한 교지의 유용함에 대하여	162

2022 서강청년문학상

시 「멧비둘기」	168
소설 「손백박수」	176
수필 「허물어지며 넓어지는 나의 세계」	195

아무것도 그대로 있어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좀 쉬려고 교지에 들어왔습니다.

설렁설렁 여유롭게 글을 쓰려고 연 2회만 발간하는 교지에 들어왔는데, 눈 떠보니 친구들과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 글도 열심히 쓰게 됐습니다. 최대한 한량처럼 살기를 목표로 했는데, 영 곤란해졌습니다.

교지실에서 다 함께 스터디와 책 모임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함께 시청하고... 매일 모여서 먹고 떠들다 서로의 글을 읽고 또 글을 썼습니다. 게으른 사람들끼리 모여 혼자 읽기는 벅찬 책들을 읽어 나가며, 새삼 '아, 이래서 스터디를 하는구나!' 감탄하는 귀한 순간도 여럿 있었습니다. 쓴살같이 지나간 한 학기, 즐거웠던 교지실의 분위기가 이번 호에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도대체 공동체란 무엇일까?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제각기 불완전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각자의 문제의식과 학교라는 현 장소를 겹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도 하고, 학교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직접 똬 경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 자신이 선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흔적도, 학교 안팎에서 연대를 이어 나간 기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마음껏 생각을 펼쳐낸 글도 있고요.

이번 서강 청년문학상에 귀한 작품을 지원해 주신 학우 여러분, 기꺼이 심사를 맡아 심사평을 작성해 주신 박슬기, 심진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애정을 가득 담아 당선작 외 몇몇 작품에 대해서도 심사평을 적어주셨으니, 수상하지 못 한 학우께도 꼭 일독을 권합니다. 덧붙여 수업 시간 청년문학상 홍보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고료도 없이 배짱 장사처럼 09~13학번 선배님들에 투고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전의 교지는 어떤 공간이었을까? 교지라는 공간에 있던 선배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까?' 하는 마음으로 청탁을 드렸는데, 교지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응원이 넘치는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신이 펴뚝 들었습니다. 즐거운 시행착오를 기꺼이 거처며, 계속 교지를 펴내겠습니다.

교지서강 편집장
김한울 드림

만남시다 한줌단 여러분:

서강대학교 인권김밥천국 네트워크를 꿈꾸며

글 김한울 (guuoul000@gmail.com)

1. 들어가며

또 연장 투표했다. 작년 12월 서강대학교 내 모든 단위의 2023년도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이하 2023 선거)가 진행됐다. 개표 가능 정족수인 전체 선거권자 1/3에 도달하지 못 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각 단과대 혹은 협의회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마저 대표성이 결여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나 쪼갬 상태로 지속된 지 오래다. 한 단위 내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뺄뺄한 선거시행세칙이 무색하도록,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또한 많다. 이 가운데, 총학생회에 정후보 여학생, 부후보 남학생으로 구성된 선본이 단일 출마했다. 이들은 학생사회의 탈정치화가 학생사회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여성·퀴어·장애 의제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약속했다. 이 선본은 선거운동 기간 중도 사퇴했는데, 사퇴 전날 교내 익명 커뮤니티 '서담'과 '에브리타임'에 해당 선본의 정후보에 대한 익명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정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서 결격이라 주장했다. 주된 근거는 조별 과제 도중 잠적당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위근우를 팔로우하고 있으니 '페미', '뀐'이 아니냐는 말과 특정 정치 성향으로 O편향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사회의 탈정치화'라는 해당 선본의 기조 또한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 정치적이지 않은 순간은 없다.

상술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낮은 투표율로 미루어 보아 많은 학생이 학생 자치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는 익명의 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 속 총학생회에는 단일 선본이 섰다는 지점에서 알 수 있는 익명 여론과 실제 학생 자치 단위 사이 괴리,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론장의 부재. 본 글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맥락을 간략히 분석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내 페미니스트를 비롯해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가꾸는데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큰 줄기로 첫째로는 학내 특별자치 기구로서의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설립, 둘째로는 인권 관련 단위 간의 자치연대라는 전략을 세우고, 타 학교 소수자 인권위원회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2018년 무렵 학내 페미니즘 운동의 백래시로서, 전국의 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 폐지가 잇따랐으며 이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¹ ‘페미니스트’가 이전의 ‘빨갱이’와 같은 주홍 글씨가 된 현 실태, 그 어떤 정치색도 띠지 않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 복지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학생회-익명의 소비자 학생 구도의 고착화, 익명의 웹 공간 속 각자의 페미상(像)에 흠뻑려지는 노골적인 욕설들까지. 이 모든 맥락과 현상이 가장 첨예하게 교차하며 드러나야 마땅할 대학의 수면은 잔잔해 보인다. 모두가 각자의 앞가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 비겁자의 심정으로 이 글을 남긴다. 누군가 ‘왜 우리 학교는 소수자 인권을 위한 학생 자치 단위가 없거나 궤위 상태일까?’라는 의문을 품었을 때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며.

2. 탈정치의 가면 뒤 반정치적 소비자

소위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계층이 상향 평준화됨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하는 연령대가 어려졌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잘 사는 집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 더더욱 높은 성취를 위하여 일찍부터 기득권의 문법을 습득한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의 시기 자체를 소거당한다. 이는 여성이든 논바이너리든 남성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동안 습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전략이 오직 이익만을 고려하는 태도와 능력주의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침범하는 듯 보이는 집단을 기어코 꺾고 말아야 한다는 지점은, 신자유주의 내 소비자로서의 주체 밖에 남지 않은 정체성과 맞닿아있다. 현재 대학생 세대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요구하는 ‘권리-주체’로서의 개인이라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탈락하고

도태될 경우, 오롯이 그 책임을 떠안은, 차라리 ‘의무-주체’에 가까운 1인 기업가적 개인이다. 이들에게는 그러므로 불만과 불안함 역시도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해결로 써가 아니라 개인들이 풀어내야 할 숙제이다.²

총여학생회 폐지 사례 중 총여학생회 임원진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경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환인 학생 총투표에 의한, 즉 다수에 의한 탄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다섯 글자로, 반-페미니즘이라는 정서로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듯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총여 폐지 또한 투표는 성사됐으나 대안은 없었다. 다만 없었을 뿐이다. 만일 총여 폐지 측이 만일 학내 공동체의 공익을 정말 고려했다면, 본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총학생회에 후보로 출마하였을 테고, 다시 학생 자치가 피어났을 테다. 그렇지 않았다.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페미니스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세력을 구축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다만 지난 시기 전국적인 총여 폐지의 백래시가 페미니스트 학생들이 더더욱 학교 밖에서 활동하도록 위촉 시킴과 동시에 더 느슨한 익명의 연대를 꺾하도록 만들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점으로부터, 백래시에 분노하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이 대학에 존재하는 동시에 현재 서강대에 여학생협의회가 존재하지만 궤위 상태라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 속 누군가를 ‘조리돌림’할 수 있는 본인의 증거집단 내 익명의 트위터안은 ‘인용알티’(다른 트위터안의 글을 인용하여 답글을 다는 형태로, 인용한 자의 계정이 공개 계정인 경우 피인용된 트위터안에게도 알림이 간다.)에 의해 철저히 배제될 위험을 두려워하는 한 명의 개인이기도 하다. (...) 그녀는 주류 ‘래디컬’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조리돌림당한 경험이 있다. (...) 이러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효진은 페미니즘에는 특정 ‘라인’이나 ‘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라인’을 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감각을 형성해나가고 있었다.³

1 “또 반박된 ‘억지로’ 총여 폐지 —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 가결에 부쳐 —”. 유니브페미. 2022년 11월 24일 게시, 2022년 12월 25일 접속. <https://univfemi.campaignus.me/statement/?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j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533904&t=board>

2 나윤경. (2022). 신자유주의적 ‘역량강화’ 대학교육의 한계: 시대적 요구로서의 페미니즘 중심의 공공성 부재. 젠더와 문화, 15(1), 27쪽.

3 송자수.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35-36쪽.

익명들에 비난당할 위험에 대한 공포는, 단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기검열 기제를 작동시킨다. 상기 인용문에서 보이듯,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안에서 도 좋은 페미니즘과 나쁜 페미니즘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당연히 여겨지던 질서에 반기를 드는 실천적 학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정체성과 생애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페미니즘 앞에 교차성이라는 말이 붙는다. 물론 페미니스트 여성에 있어 피아 구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나, 여기는 학교다. 가장 유연할 수 있어야 할 학생 시기에 이미 이름표로의 피아 구분이 영원한 것인 양 행동하다니? 수업 안팎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며 상대방의 논거를 확인하고 비판하고 보충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학내 인권 단체 연대 ‘기구’가 필요한가? 혹은 존속될 수 있는가?

필요도, 존속도 불투명하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두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학생협의회, 성소수자협의회, 다소니회와 같은 ‘협의 회’는 하나의 단과대와 동등한 지위의 독립된 특별자치 기구이다. 매주 열리는 중앙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안전을 공유해야 하고, 예결산을 작성해야 하며, 이 예산을 적 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기획을 고안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내야 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 많은 학생이 책임감 하나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학생회의 존속을 위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면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 힘들다. 점점 보수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 공식적인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현재 권위 상태인 여학생협의회-다소니회- 성소수자협의회를 하나의 협의회로 합친 후 팀제로 운영하는 편이 대표자를 세우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운신이 가능한 소모임들의 연대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미 페미니즘과 소수자 인권 의제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교내 여론 속, 학내 기구는 ‘적법성’을 따지며 보수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기구는

존속 자체에 품이 더 들어가는 만큼, 전학대회 의결권 보유 등 구조 안에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 자치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된 현 상황 속, 존속을 위해 책임감이 강한 몇몇이 희생될 바에야 차라리 소모임 등의 연대가 먼저 탄탄히 구축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트위터에 이렇게 많은 나의 동지들이 있는데, 뭐 하러 굳이 꾸역꾸역 학내에서 연대를 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학내 연대와 공론장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한다. 적어도 주위 사람과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학교를 실험실 삼아서 말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작은 서강대 안에서도 워낙 소수라 모여봤자 한 줌이고 찢어지면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 사안에 있어 그 어디에도 목소리 낼 수 없는 학생에 그래도 비빌 언덕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견 정말 크다.

4.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상기했듯 학생 자치활동에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내고 싶어 하는 학생은 너무 적기에, 협의회 하나도 권위 상태로 남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모임 간의 자치연대이다. 성소협 등의 단위들은 모두, 교내 곳곳에 퍼져있으나 마음 편히 설 곳 없는 소수자 학생들의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나 소수자 학생들이 정말 이러한 교내 학생 자치 기구를 필요치 않는다면, 구태여 본말이 전도된 억지 활동으로 존속시킬 당위는 없다. 소수자가 소외당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양질의 매뉴얼들은 이미 많다. 요즘처럼 익명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쉬운 세태 속에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질 바에야 그런 단체는 없는 게 낫다.

2010년대 초~중반, 서강대학교 생활도서관⁴ 준비모임 ‘단비(일단은 비빌 자리)’가

⁴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사회과학도서들의 보관을 위한 곳이었다. 이후 학술토론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자치공동체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있었고 사회과학대 청소년동자연대기구 ‘맑음’이 있었다. 과거형이다. 2013년 활발하게 활동했던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 네트워크가 있었고, 단비는 여기에 연결돼 있었다. 학문 장에서 비롯된 연대, 실천적 지성을 실제로 행하려 시도했던 선배들의 발자국이 멀지 않은 과거에 뚜렷이 남아있다.

현재 인권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단위로는 비거니즘 소모임 ‘서리태’(instagram.com/sogangvegan), 인권 실천 모임 ‘노고지리’(instagram.com/nogojiri_sogang), ‘교지서강’(sggyozi.sogang.ac.kr)이 있다. 세 단위 모두 대표자가 많은 책임을 지며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점 형태의 조직을 연결해 놓아야 한다. 네 일 내 일을 가르치 않고 각 단위가, 서로 든든한 뒷배가 돼줘야 한다. 또한 전후자 장학생, 의기제 기획단 등 인권 의제에 관련된 활동이 가능한 곳들이 있다. 물론 그 어디든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매한가지나 그럴수록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연결이며 서로 플랫폼이 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지편집실은 아직 남아있다. 교지가 ‘단비’처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간일 것이다. 각 대표자의 노력 덕분에 ‘서리태’와 ‘노고지리’는 교지편집실을 거점으로 연결됐다. 교지 또한 과거 두 차례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끝까지 한 사람만은 남아있었기에 공간이 남았다. 기구가 아닌 소모임이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동아리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아리방이 위치한 엠마오펀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준 동아리들이 쉽게 공간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힘들게 정 동아리가 된다 쳐도, 다음 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생활도서관 준비모임 ‘단비’ 또한 10년 전 엠마오펀에 있었다. 공간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학생회의 관료제화 및 취직 준비 연령이 어려워진 상황, 정치적인 것에 대한 혐오가 세대의 감수성이 된 상황과 맞물려있다. 그러나 이 복잡다단한 상황은 비단 서강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황의 타개를 위해

노력한 선례가 있다. 타 대학교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 그것이다. 학소위의 조직구성과 운영 실태, 현 상황 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갈무리해 실는다.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나원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2021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폐지 이후 대안 기구로 설립된 학내 특별자치 기구이다. 이전 총학생회실을 학소위실로 사용 중이다. 2021년 설립 당시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총학생회(이하 총학) 내 인권 의제를 다루는 학생권리국을 중심으로 총학 소속 인원이 학소위로 다수 이동했다. 설립 초기 총학의 조직을 본떠 사무국, 소통국, 정세분석국의 국(局) 형태로 조직됐다. 이로 인해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다루는 정세분석국이 외주화의 형태를 띠는 문제가 발생해, 조직을 개편해 현재 팀제로 운영 중이다. 의제 설정 및 사업 진행과 같은 활동 영역의 실무가 집행위원회 산하 젠더·퀴어팀, 장애·환경팀, 노동+팀에서 운영된다.

가입을 신청한 학생이 회원이 되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 보통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며, 회원의 범위는 일반회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 나뉜다. 학소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집행위원과 일반회원을 총괄하는 대표자이다.

23년 1월에 학소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다 (웃음)

2022년 집행위원을 했었어요. 나을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총여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당시 총학 측에서 자리 때우러 온 거예요? 아니면 대안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 거예요?

당시 18학번이었던 총학생회장이 운동권 출신이고, 그 사람이 총여 폐지 해산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를 주도했어요. 총학 내부에 학생권리국이라고 인권 의제 다루던 국이 있었는데

데요. 그 국장하고 총학생회장도 학소위로 들어왔고, 저도 학생권리국 국원이었고요.

학생권리국은 한 6~7명이었고, 총학생회 자체는 한 40명 정도였어요. 총학 내부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진 않았겠지만 총학생회장, 학생권리국장 모두 총여가 폐지된다면 대안으로 학생 인권을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경했어요. 그래서 추진한 거죠.

21학번이신데 학생회에는 어쩌다 들어가셨어요?

인권 의제에 관심만 있고 잘 모르던 상태로 어쩌다 들어갔고요.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의제에 대해 배웠어요. 제가 있던 국에서 만든 단위가 학소위다 보니까 책임도 다하고 싶었고요. (학소위로) 따라갔죠, 선배들을.

따라갈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행이에요. 당시 총여 폐지 여론을 실제로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오프라인에서 총여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 한창 시끄러울 때 총여 폐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딱 두 분만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두 분이 에브리타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총여 폐지 측이긴 했어요.

경희대는 총학 투표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항상 60% 이상은 됩니다. 개표 정족수는 선거권자 1/2이고요. 최근에 서강대 총학 관련해서 찾아볼 일이 있어서 알아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되게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도 경선(정-부후보로 이뤄진 선거운동본부가 복수)이었고요. 작년 총학 선거는 단일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는데 다들 어떻게 평가하냐면, ‘희한하게 단선이 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20년도에도 2개 선본 나왔었고요.

다른 얘기긴 한데, 대부분 경선이고 총학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학생회 사업 참여는 활발해요?

간식 사업 참여율 아주 좋고요 (웃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3개 팀을 운영하려면 각 팀장, 정·부회장 포함 임원진이 5명은 넘는 거잖아요! 현재 학소위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총 20명이고, 실무를 하는 집행위원은 그중 10명이에요. 경희대에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이하 후칼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위원-일반회원 분리 체제를 쓰고 있어서 따왔어요. 만에 하나 집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시 준회원으로 강등되고요.

다른 단과대와 같은 총위로 들어가나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항상 참석하셔야 하는 거죠?

네, 특별기구인데 단과대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특별기구로 인준됐을 때는 의결권이 없었는데, 전학대회에서 의결권 획득해서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럼 의결권 획득을 위해 설득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 무엇을 근거로 설득하셨나요?

우선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이 없는 특별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학대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없었고, 새로운 기구다 보니까 의결권 획득을 위해서는 회칙개정TF를 설득해야 했죠. TF 내부 논의에서도 당연히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득보다도, 일부 중운위 구성원 중 의결권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을 제기했죠. “학소위가 대표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구이다.”, “자연발생적이지 않다.”, “가입을 신청한 학우들에 의한 회원제로 구성이 되고,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회원 수가 적다 보니 대표성이 없다.” 같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들에 반박하는 식으로 설득했었어요.

대표성 문제는 서울캠퍼스의 모든 학생이 학소위 회원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적은 회원 수가 대표성 결여라는 의미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원이 적은 단과대학과 회원이 많은 단과대학의 권리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처럼요. 소수자에 대한 대변이 필요한 학교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수라는 것을 이유로 학소위의 대표성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위원들의 대표성 반박이고, 이러한 위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장의 대표성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반박했어요.

자연발생적이지 않다는 문제는 단과대학과 총여학생회도 모두 특정 학문을 학습한다는 성격, 여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도출된 집단이며 학소위 또한 소수자 정체성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에 정체성 간의 우열을 따질 수 없듯,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단체라는 것은 학생들의 성격 중 일부분만을 인정하고 일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지요. 추가로 사회적 의제만을 다루는 목적 지향적인 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모든 학생 자치 기구가 학내 등록금 인하 문제, 군 인권 신장 등 사회적 의제에 기반하여 학생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학소위도 이런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학소위가 사회적 의제에 목적성이 치우쳐져 있다는 건, 중운위 내 타 기구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고려가 미미한 정도로 학생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참가 등 외부 연대 말고 학우들 대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오히려 내부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작년 새내기 배움터 때에 총학과 협업해서 학소위 사람과 단과대 대표자 대상 교육을 진행했지요. 단과대에서 그걸 바탕으로 과 대표자들에 설명하는 형태였어요.

정확하게 대상을 짚는 사업을 하진 않죠. 예컨대 간식 사업 같은 경우는 ‘너한테 준다.’잖아요? 주로 부스 사업이나, 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해요. 게임을 하고 상품을 주는 형태로요. “월경권 지키기” 프로젝트도 있었지요. “사라진 노동을 찾습니다”라고 노동자를 명명하게 하려는 프로젝트도 있었지요.

축제에서 부스로 캠퍼스 탈출게임도 진행했어요. 경희대가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없는 곳도 많아서, 비장애인 학우를 대상으로 ‘당신이 온 길은 장애물이 넘쳐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탈출게임이었어요. 방 탈출처럼, 문제를 내고 모바일 앱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어야만 도착지에 올 수 있게끔 했었어요. 반응은 좋았지만, 비장애인 학우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스 열었을 때 일부 학생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직접 당한 것도 없었고, 에타에서도 없었어요. 무관심이지요.

그나마 반발을 느꼈던 건 지난 총학 선거예요. 지금 총학이 비권(운동권이 아님)이고 상대 선본이 반권(운동권에 반대함)이었어요, 의대 쪽이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반권인 선본이 학소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페미니즘 의제만 아니면 뭐 자치회비 사용 내용도 전혀 딱딱하게 감사 안 하고요. 장애 학생은 성역처럼 여겨져서, 배리어프리는 다 하는? 그런 게 있죠. 성역처럼. 그런 상황이 좋은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는 힘든 게 있고요. 인증마크가 됐어요, 이번 총학 선본 토론회를 봤었는데, 공약 관련 질문을 받으면 “학소위와 논의했다~” 30분 얘기해놓고. 그런 존재?

부스가 참 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부스 하나 준비하면 몇 명 정도가 일을 하나요?

최소 부스 하나 운영할 때 5명은 있었어요. 작년(2022년)에는 집행위원이 20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집행위원은 일을 하고 싶다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반만 맞아요. 우선 처음이니까 집행위원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했지요. 회원은 적만 두는 회원이고, 집행위원은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회원을 집행위원으로 받았어요. 지금 회원이 20명인 것도 작년 집행위원들이 다 회원이 된 거예요.

부스는 품은 많이 들지만 일회성에 가깝잖아요. 부스 외에는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시나요?

작년엔 카드뉴스 제작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커밍아웃 스토리” 같은 기획도 있고요. 알바 실태 조사한 것도 있고요. 카드뉴스 이외에는 시위 참석 및 연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동아리나 다른 소모임들과 연대사업 같은 것도 자주 하세요? 인원이 겹치나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 동아리 소속 학생을 알아서 “같이 집회 가실래요?” 이런 적은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은 한 적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먼저 친해지고 하자는 주의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동아리는 용인에 위치한 국제캠퍼스랑 연합하는 동아리

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21년에 페미니즘 소모임이 많았는데, 대부분 활동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과대 내 자치 기구로는 문과대 성평등위원회, 사회과학대 반성폭력위원회 그리고 한의대 성평등위원회 이렇게 3개 단위가 있어요. 단과대 학생회와 분리된 기구예요.

아, 성평위 없는 단과대도 있어요?

네, 한의대 경우에는 여학생협의회가 성평등위원회로 변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과대는 17년도에 신설됐고, 사과대는 19년에 신설됐어요.

학내에도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 측에서의 연락은 없었나요?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해서, 운영규칙 초안 검토를 요청했어요. 근데 반려당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락했었는데 센터 측에서 그다지 저희의 의견을 받아줄 의지가 없었던 거죠. 지원받고 싶은데, 인권센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답이 없어요. 정직원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센터 장도 교수가 겸임하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 한직이죠. 예산도 부족하고요.

팀 개편을 앞두고 계신다고요?

사람이 적어지니 3개 팀 운영이 힘든 거예요. 팀장에 너무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제별 세미나를 해서 학내사업을 기획한 다음에, 의제를 2개 정도로 좁히고, 그에 맞춰 팀도 2개로 좁히려고 시도 중이에요. 저희도 시도하는 단위라서요.

아, 시도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학소위는 자체 선거시행세칙이나 자치규약을 갖고 있나요?

네 맞아요. 문과대 성평위나 후칼위 회칙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학기 중에만 활동하시나요?

아뇨. 회의는 일단 매주 하고, 사업할 때는 길어지기도 하고 사업 없으면 3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기구가 되면 존속 자체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행정적 절차에 시간을 쓰다 보면, 제일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실무를 못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요. 인력난 속에서도 기구로서 있다는 것의 장점이 있나요?

특별기구라 학생회비를 일부 지원받으니 재정이 충분한 것. 도움을 받을 기구가 학생들에게 되어줄 수 있다는 점.

또, 총학이 저희 눈치를 좀 봐요. 학소위 장이라는 자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말 통하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운위 안에서.

인터뷰 준비하면서 한울 씨가 주신 글 초안 읽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느슨한 소모임 간 연대 형태로 존재하면, 가입까지 필요한 책임감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신입생은 학생회 같은 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지 몰라도, 재학생은 오히려 소모임이나 동아리 형태가 더 들어가기 쉬운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인원이 더 많아질 거고요. 저희는 애초에 소모임 형태가 아니었기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책임감이 낮다면 장 자리의 재생산이 힘들기도 하니까...

보통 학번 분포가 어떻게 돼요?

18도 있고, 19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어요.

23은 어떻게 있어요?

아, 그분이 냅다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 어디서 봤지?

인스타그램으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각 단과대 학생회에 회원 모집 카드뉴스 공유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럼 단과대 학생회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카드뉴스 올려주시고요.

서로 잘 연결돼있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 단위 협력 요청 등이 품이 많이 들잖아요. 안 피곤하세요?

전 학소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학소위 생각하면서 자요. 엄청 피곤하고, 위원장 어떻게

됐냐고 아까 여쭙보셨잖아요? 전 작년 집행위원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위원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힘에 부치고 새로운 생각은 전혀 안 나죠. 이 체제가 다른 학생회처럼 학기별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 섬 없이 달려야 되는 것? 그런 게 참 힘들고, 회원들한테도 미안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3개 팀을 다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벅차기도 해요. 저희가 토론회를 여느라, 학내 페미니즘 수업 여시는 교수님께 자문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 학교는 답이 없다, 노동도 너희가 하니?” (웃음)

학소위라는 한곳에 모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흩어 놓으면 죽으니까요.

중운위 등 타 단위 대표자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중운위, 전학대회 말고 또 있나요?

확운위라고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확대운영위원회라고, 중운위에는 단대 회장들이 들어가는데 확운위는 부회장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랑, 동아리대표자회의, 아까 얘기했던 성평등위원회.

그럼 혹시 학소위 내에서는 스탠스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스탠스까지도 갈 필요 없고 관심있어서 들어온 사람과 이미 그 의제에서 충분히 활동했던 사람들 사이 간극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장애 문제도 “배려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이 배려니까요. 배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통 고학번이 제지하죠. 그럼 번번이 그 사람들 뜻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쉬워요. 그런 것 때문에 내부 토론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전자가 학번이 좀 낮나요?

그렇죠. 항상 작년부터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논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려해 주면 좋은데,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럼 신입회원은 단체에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처음에 총학생회장이 그런 (논의의 주체가 되는) 존재였어요.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점점 입대 시점이 다가올수

록 발언을 덜 하는 거죠. 경험자의 말이 도움이야 되겠지만 다음 대를 위해서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잖아요? 의논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니까.

지금 팀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활동이 끝난 이후 시기니까요. 우선 인원은 팀에 각각 5명, 6명, 7명이에요. 팀장-학소위장 회의는 가끔만 합니다. 팀장들이 회의 너무 많다고 질색해서요. 그러니 아무래도 팀장에 의존하게 되고, 사업진척도에서 팀별로 차이가 좀 나는 거죠.

팀장 지원자가 있었나요. 아니면 “해 줘!” 하고 말아달라 부탁하셨나요?

“해 줘!”의 형태였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팀장이 팀에서 의제에 관련된 실무를 맡고, 총괄을 위원장단이 하다 보니, 위원장보다 팀장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팀에서 신경을 못 쓴 세부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위원장단이 보충하는 형태예요.

사실 장이 다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선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일을 나누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고. 그럼 팀을 꾸려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엔 “로드맵부터 너희가 다 짜라.” 했더니 전체적으로 소속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같이 세미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것도, 팀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팀에 다 일임했을 때 팀끼리만 친했나요?

비대면 경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일만 하게 되니까, 사람이 갈리는데 소속감은 없으니 사람이 나가는 악순환이었어요. 작년에 업무 분담이 정말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학소위 밖의 일을 전부 다 위원장이 하고, 나머지 일을 다 (집행위원이었던) 제가 했어요.

지금은 회의 진행, 외부 회의 참여를 위원장이 하고요. 부위원장이 속기록, 회의록, 재정을 맡아요. 내부적으로는 좀 업무분배는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씩 나누는 경우가 많죠, 온갖 잡무들. 제 친구한테 위원장 하라고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실무의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의제를 심화시키고 싶어요. 이건 내부적 고민인데, 일반 학우 대상 사업에서 의제를 심화할 거냐 말 거냐예요. 저희는 의제 심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었냐면, 작년 위원장은 어떤 의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관심 두게 하는 걸 생각했고. 저는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을 더 키우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방향성이 달라진 것도 있죠. 그리고 부위원장 했던 친구는, 모든 페미니스트가 학소위에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페미니스트가 결합하기 위해서 의제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의제 심화시킨다고 페미니스트가 결합할까? 오히려 노선을 보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제 심화 기조라면 세미나 위주의 활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하면 더 잘되지 않겠냐. 세미나 강화도 있고. 저걸 실제로 해봐야 어떤 전략이 좋을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의제가 너무 많으니 계속 곁할기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또 기초 가르쳐 줘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부위원장한테 제가 “그럼 우리 발전은 언제 하는데?” (웃음)

그렇죠. 근데 또 기구면 실험하기 어렵죠.

맞아요. 참, 익명을 요청하신 분을 모시고 인하대 성폭력 사건 관련 토론회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익명의 경우 지출 증빙이 안 되잖아요. 또 예컨대 연대체에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해서 연대하고 싶은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인이 아니면 학교 측에 지출증빙이 어려워서 가입이 안 되거든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는 학생회비 말고 조직 자체의 공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고민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더 알게 할 것인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학생단체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새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졸업할 사람은 계속 나가니까.

저는, 0에서 1보다 1에서 2 만드는 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소위 계속 활동하면서 지켜본 바로도 그런 확신이 드나요?

사실 0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런 애길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라도 많이 봤던 사람들이 결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지, 아무 관심 없다가 학소위 활동 보고 획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근데 또 결국 0에서 1이든 1에서 2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그냥 매년 다른 사람에 똑같은 전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다음 장이 있나요,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 주고 싶나요?

아..., 지금부터 너무 태우지 말라고.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집행위원은 보통 내년도 정후보 내정자가 하거든요. 집행위원으로서 실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벌써 지칠까 봐 걱정이 되고요. 저도 그랬고. 저랑 달랐으면 좋겠는데.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해나

고려대학교의 경우 오래전 전략적으로 총여학생회를 여학생위원회로 전환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소수자 인권 관련 학생 자치 기구로는 여학생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 장애인권위원회가 있다. 자치 기구가 아닌 단위로는 비거니즘 동아리 ‘뿌리:침’,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이 있다. 상기 총 5개 단위가 고려대학교 인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학생회 집행부 형식을 본뜬 국(局)형태의 구조로, 정·부위원장 산하 사무국, 홍보국, 대외협력국을 두고 있다. 홍보국에서 카드뉴스 제작,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 및 결산, 대외협력국에서 타 단위와의 교류 및 SNS 관리 및 문의 응답을 담당한다. 특정 사건이나 의제에 관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서 구분이 흐린 편으로, 해당 사업 TF를 꾸려 유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어쩌다 장이 되셨나요?

어쩌다 보니 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이다 보니, 소인위 사람들끼리도 별로 안 친했거든요. 누가 꼬드겨서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일. 제 이전까지는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자진해서 역할을 맡으면 남은 자리들을 각자 하나씩 맡는 형태로 장 자리를 채웠었거든요. 학기별로 선거해서 장(長)이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한데요. 제 경우엔 다른 친구들이 먼저 국장 자리들을 하나씩 맡고 남은 게 위원장 자리이길래 (웃음) 위원장이 됐어요. 해 보고 나니,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생겨서 재선했고요.

재선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장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2년도에 들어온 친구들이 1년 정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떤 기구인지 파악은 한 상황이지 않아요? 그중에 ‘아,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싶은 내정자는 있죠. 매년 누가 나올 것인가 걱정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소인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저희는 총여 폐지는 오래됐고요. 이런 단체의 필요성이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기됐었어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인권운동의 허브로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 학내 인권 관련 활동가들과 단위들에 학소위 설립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학내 인권 단체들의 대표로 이뤄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받아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었고요. 지금은 집행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있는데, 그게 소인위입니다.

다른 단과대들처럼 학생회비 예산을 받나요?

총학 산하 특별기구로 인준받았고요. 다른 특별기구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비도 일부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장학금을 임원진이 받아요. 여학생위원회나 장애학생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각 단위에서 매해 신청하는데 사회봉사장학금의 경우 임원진 개인 수령이 아니라, 단위 예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를 받으면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단위 회의에도 참석하시나요?

아뇨. 학생회도 저희에 입김을 가하지 않고, 저희 또한 학생회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예요. 특별기구 인준하는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만 매해 재인준을 받기 위해 참석합니다. 작년의 경우, 단체 및 사업 설명해서 투표로 재인준받았다고 들었어요.

학교마다 상황이 정말 다르네요. 전학대회에서 타 단위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백래시의 가장 선두에는 여학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위원회 다음 우리 단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학대회 참석했던 전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단체 및 사업 설명 때에 구체적인 이익제기는 없으나 투표 때에 기권/반대표를 던지는 단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권/반대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었고요. 직접 타격을 받은 적은 없어요. 아직 누군가 여론을 모아서 없애려 한 적은 없으나, 재인준을 받지 못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다... 막연히 생각은 해요. 소인위에 대한 학내 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잠깐 예브리타임에 저희에 대한 말들이 오가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어요.

학교 규모가 커서 그런지, 자치 단위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학회 등 모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한 단위 활동하다가 관두고 다른 단위로 옮겨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물론 각자 어느 정도의 인력난이 있긴 하지만요.

학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주로 한 학기에 하나의 큰 주요 사업을 정해서 진행합니다. 지금은 혐오 표현 사전 제작을 진행 중이에요. 예전 주요 사업으로는 고려대학교 내 장애 대학생 학습권 인터뷰집 제작, 대체 텍스트 가이드라인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꼭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여력에 맞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외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인권뉴스 제작, 학기별 인권소식지 제작, 새내기배움터에서 배포할 인권가이드 제작, 간식행사 진행, 신입위원 집중모집 등이 있고요. 학생인권

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질의서 송부도 매년 진행해왔어요. 방학에는 비교적 간단한 사업들, 비건 레시피 및 제품 소개, 인권 도서 및 영화 추천 사업, 강연회 등을 진행합니다. 다른 단위에서 연대요청이 오면 연대하거나 함께 행사를 열기도 하며, 상황에 맞춰 대자보 작성, 행사나 집회 참여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말 여학생위원회랑 같이 영화 공동상영회를 열기도 했어요. 강사 초청해서 강연을 열기도 했었어요. 소인위는 제가 들어왔던 2021년 비대면 학기의 경우, 내부 친분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학기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인권 관련 행사 때마다 다른 학내 인권 단체 마주치면서 친분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타 단위와 함께하는 행사나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총학과 함께 학내 인권 관련 단위들이 모두 모여 인권 주간을 운영하는데, 이때 부스를 운영하고요. 인권주간의 경우 원래 총학생회의 인권연대국에서 주최하고, 인권단체협의회 회의에 국장이 들어와서 같이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줘야 살아. 학내에 인권단체협의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정말 줘야 살아.

신입 모집 잘 되는 편이신가요?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3·9월 정기 모집을 하는데요. 9월엔 잘 안 들어와요. 3월 모집에는 그래도 3~5명은 들어왔습니다. 상시 모집도 열어두고 있어요.

학번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제(18학번)가 2021년에 들어왔고, 2020년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고학번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랑 같이 2021년에 들어온 친구들은 당시 신입생도 있었고, 2022년은 전부 신입생이었어요.

소인위의 공간이 있나요?

저희 단독 공간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학생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존 총여학생회실을 사용 중입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본 투표율이 약 34%였고, 개표 가능 정족수 넘겨서 개표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경합이기는 했는데 하나의 선거운동본부였다가 찢어진 거라...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총학생회보다 개표 가능 정족 투표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과대 투표율이 약 25%이었는데 당선이 됐어요.

소인위는 가입신청을 받는 회원제인가요?

네. 소인위 위원 가입 신청을 받고, 간단한 질문지를 보내드려요. 저희가 다루는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존 위원들이 답변 보고 찬반투표를 거치는데, 답변에 의문이 들면 가입 신청 학생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요.

신청 후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회원은 별로 없나요?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16명이 있는데, 휴면회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휴면회원 제외 활동회원은 9명이예요. 활동을 잘 안 하는 활동회원이 있긴 하지만,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휴면회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회칙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의지는 있는데 여력이 없는 상황인 분들이 있긴 하나 다들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 소인위 깃발 들고 나갔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나요?

우선 저희 활동에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 모를 것 같아요. 학생회비를 받기는 하지만 총학생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특별기구다 보니, 학교의 대표성을 띠는 단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작년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쿼터퍼레이드에 참여하려다 철회했는데요. 그때 반응도 '소인위에서 가는데 총학에서 왜 가냐?'였어요. 소인위에서 가는 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미 자리매김했네요! 원래 저런 활동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관심해서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내부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정기사업은 SNS 활동인데요. 매주 인권뉴스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요. 이걸 또 학기별 인권 소식지로 엮어서 낸다던가. 이런 SNS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SNS 활동 이외에는 그때그때 직접 기획해서 실행하는 형태예요. 예컨대 인권 가이드 제작 같은 사업이요.

신입 모집할 때부터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내걸긴 하는데요. 학기 초에는 기존 회원들 아이디어로 사업이 굴러가고, 좀 익숙해지면 신입 위원들이 기획하죠.

사업 진행에 있어 시간 부담이 크진 않으신가요?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하는 사업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의 때에도 실무 중점으로 하게 되고, 세미나를 열고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들도 있는데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세미나를 열어도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특정 학생에게 일이 물리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력이 되는 사람이 하나까요.

총학 선본 질의서의 경우에도 질의서 TF를 꾸려서, TF 내에서만 회의를 거쳐서 질의서 제작해서 보냈고요. 물론 소인위 전체에 질의서를 공유하고 의견 있으면 달라고 요청해요. 없으면 바로 쓰는 거죠. 경험상 운영방식을 정해두기보다는, 그 단위 상황에 따라 변동시키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하나의 TF에 보통 몇 명이 들어가나요?

질의서 TF는 4명이었고요. 지금 LT(리더십 트레이닝) 가는데, LT기획 TF의 경우에도 4명, 지난해 성공회대 인권주간에 부스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해당 TF는 6명이었어요. 지금 제작 중인 인권 가이드의 경우 단과대 별로 연락해서 배부 요청을 드려야 하잖아요? 인권 가이드 배부 TF는 2명이예요.

마지막으로, 현실적 제약이 없을 때 소인위에서 해 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던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장애 학생 인터뷰집 제작 사업을 했는데, 이걸 코로나19 비대면 학기가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대체 텍스트 가이드라인도 타 단위에서 '우리 카드뉴스에 대체 텍스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하는 문의도 들어왔고, 소인위 안에서도 대체텍스트 작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만들었거든요.

항상...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지금까지 장애 의제를 많이 다뤘으니,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일을 기획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 자리의 부담이 크지는 않은가요?

저희가 규칙적 결과물을 내야 하는 단위는 아니라서요. TF의 경우에도 각자의 여력이 되는 데까지만 하자는 주의거든요. 인권 가이드의 경우에는 새터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마감 일정이 있지만,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구성원 사정에 맞춰서 최대한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벅차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 친구도 같이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구성원이 너무 힘들면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력이 안 되면 사업 기한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활동회원이 많아서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소인위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위이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딱 사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예요.

5. 나아가며

두 단위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다. 두 단위 모두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특별자치기구인 가운데, 단 한 명의 학생대표자도 전학대회에서 학소위/소인위를 없애고자 실명으로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원회 바깥 학우들과의 교류 측면을 먼저 고려해보자. 경희대의 경우, 물론 총학생회 투표율 60% 이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장애 의제에 관련된 대면 행사

부스 운영에서 많은 학생의 참여가 있었다. 장애 의제와 방 탈출 게임을 연결하여 학소위 바깥의 학우들에 캠퍼스 배리어프리라는 문제를 널리 알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려대의 경우,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대체 텍스트 가이드라인 작성을 중요시하여 소인위 측에 문의하였으며 소인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 텍스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연결되어 있다.

실무자에게 중요한 조직 구조를 따져보자. 물론 조직 구조는 해당 조직에 단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에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이 글을 그 단 한 명이라도 보고 단 한 명의 친구를 찾게 되길 바라며 쓴다. 경희대 학소위는 의제 중심 분류의 팀제를 채택했고, 고려대 소인위는 학생회 집행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국 체제를 채택했다. 경희대 학소위의 경우, 실무 능력이 팀원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인해 각 팀 간 사업 진척도에 큰 차이가 빚어진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팀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고려대 소인위의 경우 국 체제를 채택했다. 의제 중심이 아닌 국 체제는 인권이라는 거대한 의제 내 사업 특징에서의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있으나, 유동적인 TF 구성을 통하여 이러한 단점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완전히 국 체제라기보다는 팀제와 국체제의 중간점인 조직으로 보인다. 상술했듯 취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진 연명대가 어려워 대학생으로서의 삶 자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해야 하는 것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어떤 사업을 기획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현 고려대의 상황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아니어야 가능하다. 의제 중심일 것인가, 실무 중심일 것인가에 있어 국제와 팀제를 병렬적으로 조직한다면 어떨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국과 하나의 팀에 소속해야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아직 서강대학교에는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없다. 그러나 여학생협의회, 성소수자 협의회, 다소니회는 남아있다. 앞서간 이들이 남긴 궤적이다. 서강대학교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에서 어떤 형태의 연대가 교내의 외로운 페미니스트들, 나아가 인권 의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는 학생들에 덜 외로운 대학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를 멈춰선 안 된다. 안 될 건 또 뭘까? 이러다

내가 제풀에 나가떨어진다면, 아주 느슨한 연결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또 다른 학우들이 이어서 만들어가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영선. (2022).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현상과인식, 46(1), 77-94.
- 이민선 (2019). 총여학생회 폐지 : 동트기 전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어둠. 여/성이론(40), 300-309
- 송지수(2021),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 10—20대 여성들의 “TERF”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석사학위 논문.
- 오혜진. (2022).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스트-되기의 해방과 곤경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1), 39-79.
- 나윤경. (2022). 신자유주의적 ‘역량강화’ 대학교육의 한계: 시대적 요구로서의 페미니즘 중심의 공공성 부재. 젠더와 문화, 15(1), 7-38.
- 정다울, 이나영. (2020).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120-173.
- 미현. (2020). 총여학생회 폐지와 디지털 시대의 반격(backlash)의 역동. 여/성이론, (42), 79-92.
- 박진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4B 여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여학생 자치 조직의 탄생,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기록으로 만나는 서울대, 2022년 12월 6일 게시, 2022년 12월 25일 접속, https://www.snu.ac.kr/about/history/history_record?md=v&bbsidx=139059
- 《이화》 98집 편집장 시은. (2021). 총여학생회, 그 사라짐의 기록. 고대문화, 146(2), <https://brunch.co.kr/@komun1955/86>
- “인권과 정치적 인간의 귀환 -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의 형성”, 고준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세미나 회원), 웹진 인-무브, 2019년 4월 4일 게시, 2023년 2월 4일 접속, <https://en-movement.net/234>

서강, 이제 제로캠퍼스로 다시 태어날 때

서울시 제로캠퍼스 사업 참여 후기

글 최예송

서강대 비거니즘 동아리 서리태는 2021년 교내에 채식 학식을 도입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자유롭게 들어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활동 없이 느슨하게 모여 있다. 내가 서리태에 들어왔던 2022년 5월에도 뚜렷한 정기 모임이 없었고 가입 절차도 딱히 없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모임이 활발하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던 8월 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로캠퍼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는 '제로서울' 프로젝트로 제로마켓, 제로식당, 제로 카페를 도입해왔다. 이제는 캠퍼스로 확대해 대학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서강대도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교내에 환경 동아리가 없었기에 가장 주제가 밀접한 비거니즘 소모임 서리태에 기회가 온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과 교내 카페, 식당 다회용 기 반납함 설치 비용,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서리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분리수거함과 다회용기 반납함 설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캠페 인을 하는 것이었다. 서리태에서는 제로캠퍼스 사업 참여와 함께 운영위원을 지원 받았다. 나는 이 기회가 반가웠다. 평소에 캠퍼스의 쓰레기통이 혼합 배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버려놓은 게 보기 좋지 않았다. 혼합배출 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분리 및 선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각해야 하는 양이 증가한다. 특히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문제도 빈번했고 다른 쓰레기들의 재활용 질을 낮아지게 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폐기물 처리 비용도 늘어난다. 청소 노동자분 들도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이 괴로우실 것 같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분리 수거함이 있으면 대부분 알아서 잘하는데 시스템이 왜 갖춰지지 않아 일을 비효율 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평소에도 건의해서 바꾸고 싶었던 것이었 는데 마침 이 사업으로 설치도 해주고 활동도 하게 해준다고 하니, 이건 기회다 싶어 운영위원에 지원했다.

축제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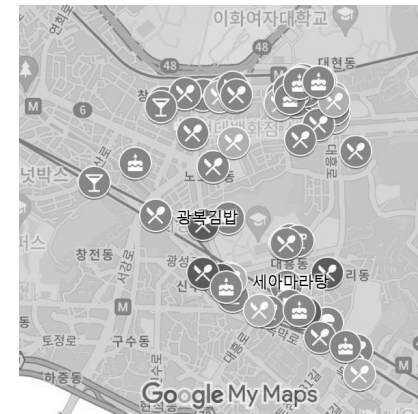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축제 부스였다. 우리는 분리배출 방법과 비거니즘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다. 퀴즈에 참여하면 비건 간식과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를 담은 꾸러미를 증정했고, 퀴즈를 5개에서 3개 이상 맞추면 학교 주변 비건 음식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줬다. 부스 날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퀴즈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갔다. 서리태 동아리와 제로캠퍼스에 대해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 학교 근처 비건 베이커리를 알리고 이용해보도록 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았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교지와 서리태 친구들이 간간히 도와주고 오가는 친구들의 얼굴도 볼 수 있어 즐겁게 잘 마무리했다.

아쉬웠던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9월 말에야 돈을 쓸 수 있게 됐고 축제 기간이었던 9월 22~23일에는 사비로 먼저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축제 전날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했는데 주문한 천연 수세미들이 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제로웨이스트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스가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인가 의문도 들었다. 모쪼록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부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으로 축제 부스 기간에 인력이 달리는 문제를 실감하기도 했다. 축제 부스 논의는 2주 전부터 시작했었지만, 전날까지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고 축제 부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나와 경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 운영진에 참여한 것은 재밌어 보인다는 가벼운 마음이었고 운영위원도 4명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을 시작하니 초기 운영진들 2명이 학교 밖 사람들이라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 서리태 부원들도 유령 회원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의 활동들도 이처럼 인력이 달릴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다.

서강비건지도 제작



그럼에도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은 학교 주변 비건 음식점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인력이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먹살 잡고 끌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서강대 앞에는 이대나 연대 앞과는 달리 비건 옵션 식당들이 거의 없어서 비건으로 살기에 어려움을 나도 많이 느꼈었다. 그런데 비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논비건 식당인데 비건 식사가 가능한 몇 곳도 알게 됐다. 나와 같이 정보가 많이 있는 사람도 비건 하기에 척박하다고 느끼는데, 비건 커뮤니티에 속해있지 않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다.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이 본국에서는 비건을 했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비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베지테리언이나 펠스코만

하거나 비건을 포기한다는 말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떤 식당에서 비건 옵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메뉴가 가능한 건지,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지 몰랐던 적도 있고, 막상 가서 계란을 빼달라고 했는데 치즈가 뿌려져 나온다는지 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제대로 확인하고 '서리태가 인증한 식당 정보'를 배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중간고사가 끝난 11월 초, 나는 독방에 '서강비건탐식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부원들을 모집했다. 미리 정리해둔 비건이 가능하다고 들은 음식점들에 2~3명씩 방문해서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 주문 방법, 주문 난이도를 알아 오도록 했다. 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마이 구글 맵 지도를 활용해 지도를 만들었다. 마이 구글 맵은 외국인 교환학생 비건 친구가 알려줘서 필요했던 기능인 카테고리별로 분류와 메모를 추가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만들어진 지도 링크를 인스타 계정에 올렸고, 포스터도 제작해 건물 곳곳에 붙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학교의 비건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비건을 하고, 논비건 친구들도 비건들과 밥을 같이 먹을 때 어려움이 덜어지길 바란다. 비건탐식단을 하면서 서리태 친구들이 예산으로 밥을 먹고 서로 친목을 다질 기회도 되어서 일석삼조였다. 내세울 만한 결과물도 만들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제로캠퍼스에 참여한 대학 14개 중 유일한 비건 동아리로서 눈에 띄는 활동으로 좋게 평가받았다고도 들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육식이 차지하는 만큼 제로캠퍼스의 '제로'가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식사에서도 인식을 갖고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분리수거함 & 다화용컵 반납기 설치

분리수거함은 11월 15일 뒤늦게 설치가 되었다. 시설팀 주관이었기에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한 것은 없었다. 설치 전에 미팅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학생들 동선에 따라 설치하면 좋을 곳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우정원과 엠마오관, 도서관 실내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실내는 관리가 어렵다며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재활용품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함께 설치됐으면 했는데, 이 또한 청결의 이슈와 관리의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 불편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안 된다고 하는 게 답답했다. 그래도 현재 설치된 분리수거함이라도 학생들이 잘 분리배출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고, 카드뉴스도 제작해 학교 공식 계정에 올라가도록 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잘 실천하는지는 계속 살펴볼 일이다.



다화용컵 반납 시스템도 제로캠퍼스 사업의 중요한 골자였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설팀에서는 교내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논의가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시 생각으로는 관내 카페들에 잘 도입이 되고 잘 시행이 되는 것을 보면 학교 밖의 카페와 식당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연 잘 이용할까,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이 기계가 오히려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제도 시행을 강제해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들을 업소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힘써야 할 부분들도 있어 보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세종, 제주, 두 지역의 일부 카페들에만 축소해서 시행하는 등 탄소 감축을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 실망스럽다. 시설 팀에서도 2023년에도 다회용컵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다회용컵 반납기는 우정원 2층과 바오로 경영관에 ‘설치만’ 해놓은 상황이다. 서리태가 어떠한 활동을 더 전개할 수도 없이 반납기는 방치될 예정이다.

2023 서리태의 향방

제로캠퍼스 사업 예산 덕분에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도 지원 받고, 맛있는 비건 밥도 공짜로 먹고 재미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는 한계들에 부딪힌 것들이 많았다. 인력이 달리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운영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했다. 모임에도 부원들이 이런저런 일정으로 바빠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했다. 어느 순간엔 나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기분이 들었다. 힘이 빠졌다. 2022년 2학기는 휴학을 했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도 괜찮았지만, 2023년 1학기는 복학할 예정이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나마 함께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다른 운영진 친구 경민도 이제 빠지겠다고 말한 상황이었다. 같이 할 친구가 없다면 외로운 싸움이 될 게 뻔했다. 그냥 운영진도, 서리태도 다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2023년 활동 계획을 보고서에 쓰면서도 회의적인 마음이 점점 더 들었다. 책 모임이나 환경 캠페인들은 다른 외부 단체에서 하면 편하게 참석만 해도 되고 환영받는데, 여기는 황량한 곳에 찬 바람만 분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리태의 향방을 논의하기로 한 1월 13일 운영진 회의 전날까지도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있었던 날 아침, 내가 속해 있는 ‘쓰줍인’이라는 환경 단체에서 같이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다. 같이 하니 재미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다. 쓰레기 줍기는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2~3명 모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처럼 가벼운 활동들이라면 충분히 동아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부원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소감을 남긴 글도 기억났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모임에 가든 비건이라고 범주 지어지며 불편한 질문들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이 유별난 사람이지 않아도 되었고, 굳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웃고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나도 서리태와 교지, 노고지리에 들어와서 비건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나며 느꼈던 감정이었다.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더 많은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 23학번 중에서도 대학교에 비건 동아리를 꿈꾸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없을 거야’라고 속단하는 건 너무 선부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열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장이 아니라 비건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한 부원으로서, 혼자서도 하려고 생각했던 환경 관련 책 읽기, 영화 보기, 쓰레기 줍기 등을 그냥 같이할 사람 2~3명이라도 찾을 수 있는 소모임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2023 서리태 활동 방향은 이리하다. 우리끼리 재미나게 해보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리라 기대하는 것보다 소수의 인원으로도 즐겁게 해보기이다. 이끄는 사람이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고, 이끄는 사람이 즐거워야 그 좋은 에너지가 다른 부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끼리 즐거우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재네 재밌어 보이네” 하고 모임에 빠지는 게 아쉽게 느껴지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서리태에 끌릴 것이다. 그리고 지난 휴학 생활이 뒤로 갈수록 여기저기 걸치는 데가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캘린더가 꽉꽉 찼는지라, 서리태 친구들을 1:1로 만나서 진심 어린 관심을 쏟을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 자체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보려고 한다. 내가 처음 서리태 운영진을 지원했던 그 초심 그대로, ‘오 재밌겠는데?’라며 즐겁게!

여기에 더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를 잘 도모해볼 생각이다. 저번 학기에 이화여대 비거니즘 동아리 솔찬과 교지에서 인터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며 연대의 물꼬를 텄다. 이번 학기에는 솔찬 부원과 서로 더 친해지고 책 모임, 영화 모임이나 연사 초청 세미나를 함께 열어보려고 한다. 솔찬과의 연합모임이 잘 이뤄진다면, 다른 대학교 비건 동아리와의 네트워크를 맺어 더 확장해볼 수 있다. 교내 인권 소모임 노고지리와의 계속해서 같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저번 학기에 영화 모임과 독서 모임을 같이 해보았는데 운영진 2명씩 함께 하니 적어도 4명이 있어서 모임을 여는 구색이 맞추어졌다. 함께 하니 비거니즘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노동권, 퀴어, 등 소수자 의제와 교차하는 이야기들도 나와 더 풍성하게 사고의 장을 넓히는 기회도 되었다.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한다. 이 연합 또한 서로 지지치 않도록 느슨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 인력이 달리면 정치적인 액션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래의 서리태의 탄생 목적인 교내 학식 도입은 손대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 한다.まずは 담배꽂초 줍기이다. 무단 투기 쓰레기 1위인 담배꽂초를 직접 주워봄으로 부원들이 관심을 두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이다. 교내 담배꽂

초 수거함을 모니터링하고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은 앱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 신고’에 신고하는 것이 되겠다. 그리고 종이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멸균팩에 대해 홍보하고 멸균팩 수거함을 교지실 앞에 설치할 생각이다.

남은 과제들

학교에는 환경과 비건 측면에서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 2023년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언젠가는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다.

1. 교내 비건 학식 도입하기 - 2022년 여름방학 때 학식에 주 2일 비건 옵션이 반짝 생겼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입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2. 학교 행사에서 비건 옵션 제공 - 행사 시에 비건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비건 옵션이 있는 음식 또는 식당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비건 친화적인 행사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대 비거니즘 동아리 솔찬은 이를 이번 학기에 한다고 하니 정보 공유를 받을 수 있겠다.
3. 학교 행사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나눠주거나 하는 등 불필요하게 플라스틱을 쓰는 관습을 없애도록 요청한다.
4. 기숙사 입퇴사 과정에서의 폐기물 줄이기 - 기숙사 퇴사 시에 괜찮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버려진다. 곤자가 국제학사에 살던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생활용품들을 다 가지고 가기에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 내에서 생필품들을 보관해두었다가 입사 시에 바자회를 여는 시스템을 만들자.
5. 축제 때 다회용기 사용 - 축제 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번 제로 캠퍼스에서 숙명여대 환경 동아리 SEM은 총학생회와 함께 트레쉬버스터즈와 협업해서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꽤 좋은 회수율로 축제를 잘 마무리했다고 하니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다.

이 과제들은 내가 학교에 남아있는 동안 시도해 볼 것도 있겠지만 못다 한 것들은 후대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맡긴다. 이번 학기 서리태는 재미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족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치의 노력이 더없이 중요해질 터, 언젠가는 서리태가 학교의 비거니즘 대표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강, 이제 제로캠퍼스로 다시 태어날 때!

서강대 비건 지도



1. 주문 난이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초록색: 비건 메뉴가 표시돼있는 경우
- 노란색: 비건 메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채수 요청이나 비건으로 해달라고 하면 잘 응해주는 경우
- 빨간색: 비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일일이 배아할 재료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2. 마이 구글 맵의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에 뜨는 바를 누르면 비건 가능 메뉴와 주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3. 학교 주변에만 맵핑을 한정했기 때문에, 대흥역, 신촌역, 이대역 주변만 나와있습니다. 그 외의 곳도 알고 싶다면 앱 채식한끼나 해피카우, 도담도담 카카오톡을 이용해보세요.

 sogangvegan

비건친화적 캠퍼스를 위하여

글 여경민 (ykm5819@gmail.com)

비거니즘(veganism)은 동물을 착취한 것을 소비하지 않는 생활양식이다. 동물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 과정에 동물이 쓰인 술,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동물의 털을 이용한 의류 등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비거니즘은 단순한 생활양식이라기보다 동물 해방과 생태주의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정치적 행위이자 사회운동에 가깝다. 서리태는 2021년에 만들어진 서강대 내 유일한 비거니즘 동아리이다. 비건 학식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기로 만들어진 서리태는 비건친화적 캠퍼스와 비건 지향인들끼리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한다. 환경 동아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세워진 서리태는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는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꽤 비건친화적인 학교로 보인다. 이대 앞의 많은 식당은 비건 옵션을 갖추고 있고 비건 식당도 점점 늘고 있다. 학교 행사 간식이나 축제 부스에서 비건 옵션을 자주 찾을 수 있다. 이대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학내 비거니즘 지향 동아리 솔찬의 공이 상당했으리라 생각했고 이에 대한 솔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1. 동아리 운영

경민: 예전에는 비건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동아리 구성원을 모집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동아리에 사람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호연: 처음에 할 때는 페스코를¹ 하고 있었는데 채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막무가내로. 17년 봄에 채식을 안 하더라도 인권 의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솔찬을 만들었어요. 18년도부터는 자리를 잡았어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학교여서 채플이 있어요. 채플에서 일주일 동안 동물 실험, 반려동물 등 비거니즘 관련된 발표를 꼭 했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오픈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LUSH랑 동물권 단체랑도 했어요. 그때는 다른 학교의

¹ 생선, 동물의 알, 유제품을 먹는 유형

비건 동아리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어요. 18년도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2, 30명 정도 됐는데 활동 인원은 열 몇 명이었어요.

경민: 동아리방이 없는데 어떻게 친해지나요?

호연: 동아리방이 없으니까 학기 중에 계속 똑같은 강의실을 빌려서 활동했어요. 그때는 인문대 단과대 소속 동아리였어요. 편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아서 동의 없이 깃발 들고 쿼어 퍼레이드도 가고 이것저것 행사 많이 참여했어요.

정인: 채식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우연히 관심도 그쪽에 많아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됐어요.

호연: 사람들이랑 안 친해지는 문제는 저도 고민이 많아서 mt를 무조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밥 모임을 만든다든지.

경민: 그럼 그때 사람들이 참여를 잘했나요?

호연: mt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주하: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렇지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으면 갔던 것 같아요.

덕미: 19년도 이후에 학교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면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비건 말고도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더 포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없고 너무 날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주하: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힘듦도 있지만 친목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나가요.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권리 쪽을 다루는 동아리들이 다 힘든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주하: 학생회 선거본부 공청회 때 선거본부가 성 소수자나 노동자 연대 문제로 크게 공격당했어요. 왜 이화여대 총학생회 이름으로 연대하나. 당당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학생회를 하는 사람들이예요.

경민: 19년도 이후로 바뀐 건가요?

호연: 전반적으로 우경화됐잖아요. 대학도 우경화됐고 취업 때문에 팍팍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운동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비건 음식은 건강식으로 즐기고요.

정인: 소위 머글들이 채식 한 끼라도 먹으면 좋지 정도인 것 같아요.

호연: 의식이 있어서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적어지는 것 같아요.

덕미: 솔찬도 20년도에 욱을 먹었어요.

주하: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에서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썼고 솔찬도 연명했어요. 연명한 동아리들이 편이라고 낙인찍혔어요. 그때 한창 신입생 들어올 때였는데 신입생들한테 편이니까 그 동아리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호연: 이제는 그 정도도 관심이 없어요. 편이라고 욱하는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있는 거죠.

경민: 동아리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주하: 당장은 인원이 없어서 어렵고요.

덕미: 일단 동아리 방이 없어서 힘들어요. 신입 모집할 때 동아리방이 큰 메리트가 되어서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할 때도 좋죠. 두 번째로 다른 의제들에 대해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의견을 표현하기에 조금 사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쉬워요.

덕미: 19년도에는 쿼어 퍼레이드에 참석한 거 두고 욱을 먹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대자보 연대한 걸 욱을 먹었잖아요. 밖에서 욱을 먹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주하: 맞아 그게 무너지는 게 문제야.

덕미: 동아리 구성원들이 비거니즘 말고 다른 의제에 관심이 없는데 성 소수자 이슈 같은 민감한 사안에 동아리 이름으로 연대하면 동아리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대할 사안을 투표로 결정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나간 분도 계세요. 그래서 동아리 내부도 조금 위축돼요.

주하: 모여서 토론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채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비거니즘 운동을 하러 온 게 아닌 거죠.

덕미: 그리고 커뮤니티로 단편적으로밖에 못 보지만, 페미니즘 안에서 교차성을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이 힘을 얻고 정치적으로는 보수화되다 보니까 비거니즘 외에 다른 의제에 관해서도 말을 쉽게 하기 힘들어요. 솔찬 안에서는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소수 인원이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다양한 의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화여대의 운동권 배제는 최근에 새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16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 시위는 총학생회와 운동권을 배제한 시위였다. 이 배경에는 운동권에 대한 불신과 권력기관의 낙인찍기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했겠다고 짐작할 수 있다.² ‘정치권이 개입하고, 사회단체들이 개입한’, ‘순수하지 못한’ 시위라고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여전히, 점점 더 심하게 정치적인 것은 낙인이 되고 있다. 이화여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학생 전반에서 운동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졌고 그와 동시에 무관심해졌다.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교차성을 말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주장하는 ‘여성 우선 페미니즘’인 래디컬 페미니즘은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한 페미니즘’으로 여겨진다. ‘여성 인권 운동’인 페미니즘에 트랜스젠더/퀴어, 장애, 환경, 동물 등 다른 소수자 정치학의 이슈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이 왜 성 소수자, 장애, 이주와 같은 정치적 의제를 ‘책임’ 지거나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³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의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져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교차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 부재와 혐오는 동아리 내부에 균열을 만들고 식생활을 벗어나 다양한 의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2. 비건에 대한 인식

경민: 이대 내에서 비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 같나요?

주하: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는 비건에 대해서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은 편이에요. 행사 간식에도 비건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한 점은 많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경민: 이대가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덕미: 저는 여성들 사이에서 비건이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식사로서의 비거니즘이 옹호되지만, 동물권 혹은 비거니즘과 여성주의의 교차성을 말하기에는 솔직히 주저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동의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건에 대해서 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허락받은 다양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주하: 커뮤니티를 보면 혐오 플로우가 정기적으로 돌아와요. 특히 비건 네가 실천하는 건 관찮은데 강요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페미니즘이랑 엮지 마라가 진짜 커요.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교차성에 대한 대자보도 쓴 적 있어요.

2 하인혜, ‘운동권 배제한 이대생들, 그들의 특이한 승리’, 오마이뉴스, 2016.8.4

3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160쪽.

덕미: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예전부터 학생회 측에서 행사 음식에 비건 옵션을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요. 개강 기념으로 총장님이 주는 피자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건 옵션이 있었어요. 또 제가 심리학과에서 하는 행사에서 비건 도시락 수요를 미리 조사해서 줬어요.

주하: 사람들이 비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솔찬 역할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회에도 비건이 있고, 학교 주변에도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일상에서 비거니즘을 스며들듯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권리량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채식의 인기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솔찬에서 인식하는 비거니즘의 주류화는, 동물권과 기후위기를 외치는 비거니즘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비거니즘의 자본주의화이다. 최근의 비거니즘의 주류화는 정치적 성격을 탈각시키고, 오히려 이를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비거니즘이 문화적 매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에 있어 여성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되는데, 비거니즘이 외모 규범을 내면화한 여성들의 몸만들기 기획으로서 실천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결합하여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에서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변모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

3. 향후 계획

덕미: 저희가 원래는 동아리였는데 이제 자치단위가 되려고 신청했어요. 지금은 가자치단위 상태예요. 자치단위는 권리 의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자치단위가 되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하: 자치단위 들어가면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동아리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권리 다루는 다른 단위들이랑 같이 가는 단위가 된다는 게 솔찬의 정체성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자치단위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었어요.

경민: 솔찬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주하: 제가 19년도에도 운영진을 했는데 지금 3학기째 운영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제가 1학년 때 딱 여기 들어와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너무 저한테 되게 소중해서 여기를 너무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누군가가 비거니즘이나 동물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솔찬에서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도 솔찬에서 엄청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관심이 엄청 많지는 않았고 그냥 채식해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삶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솔찬이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음 학기 운영진이 확실하여 동아리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솔찬도 서리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는 운동 동아리를 유지할까. 나는 주하의 마지막 발언에서 희망을 본다. 비거니즘을 포함해서 소수자에 연대하는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외면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감각은 그것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빨간약’의 역할을 한다. 나의 세계를 넓히는 드문 경험을 준 공동체는 구성원이 쉽게 떠날 수 없다. 구성원에게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먼저 바꿀 수 있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것이다.

4 이예진,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의 비거니즘,”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10-13쪽.

4. 인터뷰를 끝내고

서강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은 비거니즘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비거니즘이 무엇인지, 비거니즘을 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앞서 서술한 것에서 비거니즘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알 수 있다. 페미니즘을 다루는 글이 페미니즘의 기초적인 정의를 설명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비거니즘에 대한 글은 언제나 비건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한다. 사회 운동으로서는 시작하는 단계에 가깝다. 비거니즘은 동물 해방과 지속 가능한 사회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향하지만, 현재 해야 할 것은 주변성 탈피와 가시화다.

비거니즘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뿐 아니라 왜 동물을 착취하면 안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대부분 사람은 비건을 해서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모른다. 인간이 동물을 착취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거절하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해지면 무엇이 좋을까? 동물이 인간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동물은 자본주의의 암묵적인 신분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시혜적 관점의 보호가 아니라 갑을 관계를 전복시키는 해방이라면, 동물이 해방되는 것은 분명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해진 이후일 것이다.

나와 직결되는 비거니즘의 효용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는 재난의 모습으로 재앙처럼 와서는 가장 소외된 존재부터 해한다. 기후 변화로 폐죽음을 당하는 동물들, 사막화로 식수가 부족해져서 물을 두고 싸우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그로 인해 난민이 되는 국경지대 사람들, 여름에 더위로 죽고 겨울에 추위로 죽는 빈곤하고 나이 든 사람들. 이들이 모두 죽고 나면 그다음은 누구일까. 점점 덜 소외되고 덜 취약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결국 비거니즘은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모두에게 이익이 공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모두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묶어줄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비거니즘은 아주 먼 미래일,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세상을 바라본다. 비거니즘처럼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힘들다. 때로는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산 정상으로 향해 걷는 것처럼 막막하다. 촘촘한 자본의 세계에 비거니즘이라는 가치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든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Becoming a tiger-self

글 김승민 (사회 19, 외부투고)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모집하는 필기 도우미로 지원하게 된 것도 마냥 이타적인 결정만은 아니었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그냥'이라 답하기 좋아하는 나는 선택의 당위성에 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 이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재작년 여름 나는 누군가와 함께 스타벅스에 있었다. 복도에 나가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나의 질문에 당황해하던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기억난다. 공지에서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휴학생에게 근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사회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얼핏 본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는데, 선생님께 여쭙보겠다는 조교의 대답에 침을 삼키고 다시 전화를 기다렸다. 목소리에 무언가 의아해하는 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센터 내부의 상황은 정말로 내가 대학원 수업 필기 도우미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집중했던 모양이다. 보통 도우미 모집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¹다소니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리스트를 함께 공지하는데 이를 확인하고 학생이 지원하게 되는 경로가 있으니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도우미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나는 당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대학원 수업은 매주 쏟아지는 읽기 자료라는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 것 없는 휴학생은 이것저것 평소에 보지 않던 것까지 뒤적거리다 자신의 전공과목의, 무려 대학원 과정의, 심지어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이 도우미를 구하는 리스트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게다가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인데, 이걸 그쪽 (이라 하면 센터 또는 교수님 그리고 학생)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와이낫. 도우미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는 무료로 청강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이것은 나에게 좋은 선택 기제였다.

¹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받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 서강대학교에서 장애인 학우를 칭하는 단어

우선 센터는 나를 대환영(?)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조교의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학생이 한대?’라며 모두가 믿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다고. 물론 나의 성실성이라든지 얼마나 일을 잘 해낼지에 대한 검증은 미지수이지만 (그래서 요건에 학점과 지원양식 제출 등이 존재하는 거지만, 어찌 아나) 그래도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감사하게도 내가 필기 도우미를 하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교수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상황을 직접 설명할 겸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청강 허락을 받았다.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하였고 그 후에도 흔쾌히 서적을 빌려주시는 등 도움을 주셨다.

학지팀에도 휴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 청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야 했다. 교수님께 사이버캠퍼스 상 허락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얻어내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모두 셋업이 되었다. 나의 선택의 마지막 응답자로 재희 씨가 있었다. 재희 씨는 대학원생이었다. 같은 학과 선배인데 학부생 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마 한 다리 건너 내 동기가 예전에 도우미를 했던 것도 같다. 하여튼, 재희 씨와는 같은 학과 학생이고 같은 교수님을 안다는 공통점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적인 인사를 나눈 첫 통화를 마치자 ‘어쩔 수 없이’ 재희 씨는 나의 선택에 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글을 읽었다면 내가 예상 독자로 설정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필기 도우미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혹은 누군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분량을 확보할 겸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볼까 한다. 재희 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 내용을 대필해주는 작업이 필요했다. 대학원 수업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며 매주 혹은 이주에 한 번 지정된 텍스트를 읽어오면 교수님의 강의 혹은 발제자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즉, 도우미인 나는 일주일을 앞당겨 다음 주차에 해당하는 자료를 재희 씨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작성한 모든 자료는 매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읽기 자료에는 논문도 있고 책에서 발췌한 텍스트도 있다. 상세히 말하자면 그중에는

영어로 된 논문도 있고, pdf로 된 파일이지만 ‘읽히지 않는’, 즉 OCR 변환이 필요한 논문 혹은 수작업으로 한글 파일에 옮겨 적어야 하는 논문도 있고, 백 장에 달하는 텍스트 자료도 있었다.

이럴 경우 영어 논문을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 한글, 영문 파일을 모두 작성하고, 굵힐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직접 타이핑을 하고, 분량이 많은 자료는 일주일이 아닌 이주, 삼 주를 고려해 책을 빌리거나 한 권의 책을 OCR로 변환해주는 복지센터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봉천동에 있는 실로암 복지센터에 여러 번 발걸음을 향했다. 맡기는 책은 분철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책은 이용이 어려웠다. OCR 변환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읽힐 수 있게 되면 재희 씨는 기기를 통해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을 수 있게’ 된다.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책은 교수님이나 도서관에서 빌려 열심히 인간 변환기가 되어 타이핑을 했다. 사고 싶은 책은 흔쾌히 사서 센터에 맡긴 뒤 소장했다.

책을 빌려야 하는 겸 교수님을 뵈러 갔을 때였다. 내가 책의 일부를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구나..’라고 중얼거리셨다. 나도 이 작업을 할수록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타이핑하면서도 글이 잘 안 읽히는데 시각 장애인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떨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보내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이걸 모두 굶은 다음에 음성을 듣는 건가, 하며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 건지 내 컴퓨터에 있는 기능으로 음성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원만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다. 수업이 진행되며 내가 해오던 것을 바꿔야 하는 점들이 계속 보였다. 다른 분들이 발제할 때 인용문을 사용하니 페이지 수를 적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 페이지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파일 상단에 넣는 게 맞겠지? 이때는 장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이거 파일은 들으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저 그렇겠거니 추측만 하였다.

내가 스스로 가졌던 질문들은 마땅한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는 책의 페이지는 대부분 좌우 하단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책의 페이지를 아래에서 인식

하게 되어있다. 논문이나 학술적 서적에 있는 각주는 중간에 숫자를 삽입하여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단 혹은 책의 뒤쪽에 배치해 놓는다. 심지어 어떤 논문들은 클릭만으로 각주로 넘어가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이것을 옮기는 나는 결코 편리함을 느끼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에게 클릭 후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은 괄호를 치고 적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역시 우리가 자연스레 읽어내는 익숙한 도식이 있지만, 이것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하니 마치 또 다른 언어 체계를 습득해야 하는 것 같았다. 점자와 음성으로 읽는 행위가 알파벳을 배운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너무나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상의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희 씨가 지금 까지 배운 언어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내가 준비한 자료들의 퀄리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든 수업 참여 인원의 98%를 차지하는 비장애인이 접하는 자료와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자료를 보내면 매주 감사하다는 말과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니,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게다가 비대면 상황이라 그런지 수업에서의 흐름이나 참여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열심히 참여한 학생 중 한 명 인지라 속으로 내심 뿌듯했다. 후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재희 씨는 정말로 매주 텍스트를 읽으셨다. 그리고 장애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정말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둘 다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청강 수업은 학기가 마무리되자 끝이 났다.

...

재희 씨에게 1년 만에 연락이 왔다. 활동이 끝난 바로 다음 학기 내가 교환학생을 갔다온 후 한국에 돌아와 복학했을 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질문과 함께 물렸던 근황을 알려주셨다. 현재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 중이며 좋아하는 분야의 수업을 듣기 위해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도 하고 새로운 도우미가 잘 도와주고 있다는 등 좋은 소식들이었다. 나의 관심사도 기억해주셨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연락

한 듯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선배님은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다. 우리가 이야기한 평등한 교육, 통합 교육, 그리고 자아실현의 교육을 최대한 실천할 방법이 그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연락을 계기로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고, 밥을 먹고, 말을 놓고, 나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 알 수 있게 되었다.

재희 씨는 생각보다 유쾌한 사람이었다. 수업 내내 진지하고, 발표를 가장 많이 하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다. 또 생각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비슷했고,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도 비슷했다. 수업에서도 그랬지만 말을 굉장히 잘하셨다. 또한 듣는 감각이 뛰어났다. 음악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고 소리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음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들으면 팟캐스트 진행자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작년처럼 자료를 준비하고 보내는 임무가 주어진 관계에서 벗어나니 별반 다르지 않은 친구 같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 재생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했다.

내가 궁금해했던 점들도 해소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거나 usb를 연결해 저장된 문서 파일을 읽어주며 점자 키보드와 녹음 기능이 부가된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내가 보냈던 읽기 자료의 한 부분을 기기를 통해 들어보았다. 어색하고 딱딱한 톤의 여성 목소리의 기계음이 문장을 빈틈없이 읽었다. 이것 사용해 한 문단, 한 챕터,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는다.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도 홀로 묵묵히 계속해왔다고 한다.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타이거 셀프 (tiger-self)는 재희 씨가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자기 자신의 성과를 위해 극심하게 몰아붙이는 아시아계 엄마들을 뜻하는 에이미 추아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타이거 마더 (tiger mother)에서 따온 말이다. 어떤 제약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부모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을 타이거 셀프라고 한다.

장애는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타이거 셀프가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소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의 바리케이드가 생겨버린다. 하지만 장애를 소수자의 불리함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여 성과를 위해 불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 한계란 추상적이다. 눈앞에 자신이 인식하는 허들이 존재해야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빨리 그 허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강압적인 바리케이드가 아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그 허들을 인식하여 이를 넘으려는 대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 사람, 물체, 공간-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선택이 작용한다. 내가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쏘아 올린 공에 여러 사람이 반응해주었다. 나의 선택에 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비로소 내가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을 '당하는' 쪽에 아무도 없다면 나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탄생한 선택은 내가 의도한 결과든 예상치 못한 결과이든, 어쨌든 결과를 수반한다. 내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는 오지 못했다. 나는 어느 때처럼 게을렀고 수업 자료 중 지금 까지 읽지 못한 책들이 나를 따라다닌다.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 커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세상의 허들을 넘기로 선택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선택의 당위성이다.

대학원생 노동과 교수 권력,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 본 글은 익명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모 학과의 석사 과정 유학생(이하 C)이 얼마 전 자퇴 후 귀국했다. 자퇴 당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연구를 꿈꾸며 입학한 학과에서 지도교수에 의한 노동 착취, 인권 착취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과 안에서 일어난 피해만이 아니었다. 학과 밖에서 하부 조직을 견제해야 할 인권센터(교학부총장 산하 기구)가 일방적으로 그의 신고를 받지 않고,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건의 문제 인물에서 교수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입었던 피해에 대한 지도교수를 비롯한 학과 구성원들의 묵인이 그를 학과 밖으로 밀어냈다면, 인권센터는 그를 서강대 밖으로 밀어냈다.

부소장 B

C가 한국에 온 거는 4~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어가 유창한 학생이었고요. 모 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 싶어서 D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고, 그 교수님이 친절하게 맞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보통 조교장 업무는 으레 한국인 학생이 하는데, 한국어가 유창한 C가 조교장을 맡았죠.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행정조교가 없더라고요? 학사 행정은 공백이 생기면 학과 전체에 큰일이니까, 행정만 전담하는 교직원인 있는 게 맞죠. 타 대학의 경우 직원을 뽑아서 학사 행정의 척추 역할을 해 주고,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들은 보통 정도만 해 주거든요. C가 재학했던 모 학과는 학과 특성상 조교장이 없으면 말 그대로 학사 행정이 진행이 안 돼요. 교수 및 강사 강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전담 직원이 할 일을 조교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C는 업무들을 소화하는 와중에 본인이 논문 지도를 너무 못 받았고, 졸업이 미뤄진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교장 업무는 학과장이 당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는데, 이때 C는 무급으로 영문 초록을 계속 대신 작성하는 등 학과 행정 외 업무까지도 봤고요. 오후 5~6시경 조교장 업무 종료 이후에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과장이 시도 때도 없이 업무를 시키니까 신경쇠약에 걸려서 의사 소견서까지 받았어요.

문제는 C가 유학생이니까, 원래 이런 게 한국의 아카데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모자라다고 생각했지,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죠. 조교장 행정 업무는 코로나19 때에도 대면으로 진행했지만, 대학원생들과 교류가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유학생들과 얘기 나눌 기회가 생겨서 알게 된 거죠, 외국인 대학원생을 무급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졸업을 늦추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C가 ‘이게 교수 권력의 남용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교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어요. 인권센터는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니깐요. 그런데 센터 측에서 C가 대학원생으로서 당한 일련의 사건들을 듣고,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다음에 C가 센터 측에 잘못을 했어요. 예컨대 2년 동안 시간 낭비했으니 등록금 다 토해내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와 함께, 흥분해서 언성을 높인 거죠. 그러나 이건 태도의 문제이지 C가 당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C의 언행의 잘못과 별개로 사건은 처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센터 측에서 직원이 여성이니 만만하게 본 거라는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하여튼 방문일 이후, C의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문의했는데 센터 측에서 C에게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장을 받았어요. 형사고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C가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타국에서 교도소 가고 이런 상상을 했겠조.

인권센터는 교수에 의한 노동 착취 문제를 C가 일으킨 젠더 이슈로 치환해 사건의 주요 인물에서 교수를 지워버렸다. 교수에 대한 신고를 각하하고, C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 예고장만 날린 것이다. C가 자신의 피해를 인권센터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무관하다. 노파심에 덧붙이건대, 당연히 담당자 개인만을 탓하거나 그의 피해가 없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센터의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담당자를 재배치하거나 C에게 경고를 하되 접수한 신고 사건의 주제를 혼동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소장 B

C가 겪었던 교수의 권력 남용에 의한 착취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재학생의 권리가

훼손됐을 때 학교 안에 이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인권센터가 있긴 하나, C의 사례에서 보이다시피 제도적 해결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학생 권리에 대한 사건은 학생자치조직에서 해결에 앞장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외부 조직에서 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라든지 대학원 원우회 같은 곳에서요. 학부는 잘 모르겠으나, 대학원의 경우 서강대학교 내에 학생자치조직이 미비하다. 학교 제도에서도 학생자치에서도 실질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한 학부생에 따르면 상당수의 해당 학과 수업에서 유학생 C씨를 조교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조교장 A

저희 과 조교장이 상당수 학부 수업에 조교로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조교장은 수업 조교를 안 하거든요. 행정 업무만으로 벅차니까. 아마 유학생 C씨가 조교장을 할 때 조교 업무 분배가 잘 안되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학과장이 이럴 때 조교장을 도와줘야 하거든요. 실상 계속해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대학원생들보다 학과 행정 업무를 잘 아는 건 교수진들이잖아요? 유학생이라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커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시스템을 한국 학생들보다 파악하기 어렵고, 인맥도 없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문제상황을 원총과 이야기를 나눠서 문제제기하고 싶었는데, 과마다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선 저희 학과는 조교장을 해야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교장이 학사 행정을 사실상 다 보니까 한국어 능통자여야 하는데, 그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저희 과에서 전액 장학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학 문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못 해도 괜찮냐 물으면 아무 상관 없다고 답변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학비가 쪼들리는 한국인 학생들이 조교장을 합니다. 사실 업무량이 많은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더라도 한 학기 이상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 많은 업무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제가 조교장이었을 때에는 모아서 일정을 다 조율 및 분배해야 하는 조교들이 총 20명 가량이었어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 조교장이 각 조교 업무 분배부터 합니다. 우선 TA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몇 퍼센트를 받느냐에 따라 업무 시간을 다 따로 계산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많은 시간 일을 하고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TA 장학금 신청자로만 조교들을 꾸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조교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냥 성적 장학금이나 생계곤란 장학금 수령 학생들도 다 근로 조교로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팀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문의했더니, 학과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어쨌든 그분들까지 다 투여해야만 업무가 가능했던 거고요.

조교장이 소화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상하리만치 넓었다. 서강대의 학사 행정 업무 자체가 실상 수업 조교인 TA 장학생으로 분류되는 조교장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 조교장A의 학과는 심지어 학부와 대학원 수업의 시간표 그리고 강사 채용 연락에 대한 업무도 조교장이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시간표 짜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예 인수인계를 받지 못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 후반에 석사 2학기 생인 애가 강사님들께 연락해서 당신이 고용됐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관련 서류 제출 시기가 왔다는 공지를 보고, 학과장에 질문했더니 조교장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생에 물어 물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들이 다 정리된 상태라, 당사자들은 ‘아, 이번에 서강대에서 계약이 안 됐나 보다.’ 짐작하고 계신 상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학교 시간표들은 다 나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약 스무 분 되는 강사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남자 강사가 이미 일정 다 짜놔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 지르며 화를 내기에 저는 울면서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시간표를 짜는 것도 문제죠. 오래 같이하셨던 강사님들 목록이 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좋은 시간대를 주느냐. 학사지원팀에서 저희 학과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강의실 배정표가 와요. 일차적으로 전임교수, 그다음 강사님들 시간표를 제가 나눠야 한다는 게 힘들고 마음이 피곤해지죠.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학과장의 경우 강사님들과 회식하면서도 약간 압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임용을 안 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럴 권한도 없거든요.

학과장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교장 업무는 학과장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이 큰데요. 저는 조교장으로서 해야 하는 학사 행정업무 외 학과장 개인 업무도 무급으로 했었어요. 한국어 교정을 몇 번 해 주다가 너무 과하기에 거절도 했었고, 또 한 번은 외부 강연 대본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건 못 합니다.”라고 거절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그렇게 너한테 득 되는 것만 하면 너는 망할 거야”라고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학교 외부 학회 운용비용을 학과 예산에서 임의로 운용했는데, 그럼 이 지출 증빙을 위한 회의록을 조교장인 제가 지어 내야 하는 거죠. 없었던 회의의 회의록을요. 써서 가져가면 대차게 까이곤 했어요, 이러면 행정팀에서 통과 안 되니까 더 철저하게 써오라고요. 행정팀에서도 확인 전화가 왔었어요, 영수증 봐도 좀 이상하니까... 이때 회의를 한 게 맞느냐 묻는데 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괴로웠어요. 이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조교인 이상.

조교장 A가 보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자기 상황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했다. 왜일까?

물론 장학금이 필요 없는 학생들에겐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교장 한 명뿐만 아니라 전업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이 쉽게 착취의 타깃이 됩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모 교수가 유학생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영어 논문 요약과 초록 작성 같은 일부터 시작해서요. 유학생들에게 교수가 일을 시키더라도 학교로부터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처리를 하는 일이 가능해요. 근데 이 교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교지 서강

2023년호 봄
84호

그냥 무급으로 유학생들에 자기 발표 자료 작성을 맡기거나, 심지어 본인 자녀 과제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C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어 능통자였음에도, 한국 학생이 아니기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찾기 힘들었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어떨겠어요? 유학생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되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학교 안에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과 유학생 간 커뮤니티가 나뉘어요. 아주 안타까웠던 게, 한국 학교의 행정 또는 교수 간의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들을 거의 다 소문으로 접해요. 왜곡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 이질적으로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뭔가 잘못됐다 느껴도 한국 학교는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유학생을 이렇게 받을 거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조교장 A와 부소장 B는 유학생들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내 유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교장 A는 우선 대학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 본부는 우선 대학원생들의 학업 환경을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022 〈박강아름 결혼하다〉 집담회

참여자 김난희, 김지연, 김한울, 여경민

‘내 안에 있는 그 노벨 찾아서/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이랑의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독립 영화 감독 아름과 요리사이자 작가인 상만의 해외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생활을 담아낸 자전적 다큐멘터리이다. 아름이 영화학교에 다니는 동안 낯선 땅에서 외부인과 단절되어 우울감을 느낀 상만은 그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 집 안에 작고 아담한 ‘외길식당’을 차린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의 기쁨도 잠시, 상만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피로감을, 아름은 출산의 후유증과 바쁜 일상의 버거움을 호소하며 단편적이지만 반복되는 갈등을 경험한다. 어딘가 뒤틀린 듯한 부부의 신선한 일상으로도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문이 생긴다. 아름과 상만은 왜 결혼했을까?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할까? 지속 가능한 공동체란 가능한가? 대답보다는 질문으로 가득한 이 영화에 대해 우리는 경험과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같이 살 수 있을까?

한울: 뭐부터 말할까. 같이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난희: 나는 느낀 게 외국 가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 나 그냥 한국에서 살래. 말이 안 통하는 외국 가서 육아를 시작하는 건 미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결혼하면 무조건 한 명은 약간 육아를 하면서 커리어 단절되는 건가 슬프다. 나눠서 하면 잘 안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한울: 결혼은 안 하고 애를 키우고 싶다고 했던 여경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나도 돌봄에 대한 건 고민했어.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부촌에 동양인 유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부자 나라 여성이 가난한 나라 여성에게 돌봄을 맡기고 그 여성은 자국의 더 가난한 여성에게 또 돌봄을 맡기고. 그렇게 돌봄의 외주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지. 착취가 계속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거잖아. 이것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영화에서는 남성에게 돌아갔잖아. 이것 양육자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건가

했는데 또 일을 하면서 나누기는 힘들잖아. 돌봄의 외주화를 거치지 않고 양육하는 게 가능한 건가. 지금까지 그런 누구 한 명을 착취하지 않는 돌봄에 대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박강아름도 아는 게 없었을 테니까 남편에게 다 일임했겠지.

한울: 애를 키운다는 게 절대 돌이켜 볼 문제가 아니다. 옛날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없다. 온 마을이 키워야 하는데.

한울: 지연이는 나중에 누구랑 같이 살 생각이 있어?

지연: 나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남자랑 사는 건 상상을 못 하겠어.

경민: 한울이 넌 어때?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고 집을 제공했잖아.

지연: 다큐 찍지, 김한울 동거하다.

한울: 진짜 인류의 난제인 것 같아. 과연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게 가능할까.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지연: 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남과 같이 살 때의 가장 큰 장벽이 뭐야?

한울: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필요가 천차만별인데... 제일 힘든 건 인간 자체의 옹졸함. 자꾸 내 손해랑 저 사람 손해를 비교하게 되는 게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옹졸함을 서로 안 넘겨 줘고, 난 이게 불편하고 너는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절충해보자는 쉬운 의사소통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 산뜻하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같이 살면 서로 예민한 부분도 많아. 누군 예민하고 누군 무뎠는데, 무뎠은 사람이 계속 받아주면 그것도 무뎠은 사람 나름대로 빠치고. 예민한 사람도 자기 예민한 걸 참는 것도 스트레스고. 굳이 같이 살아야 할까. 같이 살면 좋긴 해.

경민: 그런데도 너는 계속 너의 집에 사람들을 들이잖아. 그 이유는 뭐야?

한울: 나중에 나 거렁뱅이 됐을 때 재워달라고. 은혜 가불. 근데 필요하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내가 집이 없을 때 남이 집을 내줘서 산 거고. 남들한테 어른 구실 못 한다 소리 듣는 어른들이 나 집도 절도 없이 일용직 다닐 때 무작정 도와주고 일거리 주고 집 내줬거든. 물론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계속 싸우면서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경민: 혼자 살 때는 어떤 힘들어 있는데?

한울: 일단 가구도 못 줍고. 이 집을 같이 굴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든든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도가 얼었거나 그럴 때, 내가 패닉에 빠져도 한 사람은 멘정신일 수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해. 서로 일상을 책임져주는 파트너가 성별 상관없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하는데. 1대1이면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 너무 좁아져서. 관계도 좁아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커도 되나 싶은 것도 있어.

난희: 그럼 만약 같이 산다면 셰어하우스처럼 살고 싶은 거야?

한울: 가까운 데서 여럿이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 좋지. 진짜 행복한 얘기이긴 하지만.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어렵겠다. 난 차라리 외식식당에서 잘 맞는 파트너 만나서 같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나갔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 물론 그럴 여유가 안 됐겠지만.

경민: 코페런팅¹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된 연인이지만 같이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자식도 나눠서 각자 자기 집에서 키워. 따로 살면서 자식한테 집 두 채 물려주고. 같이 사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같이 사는 건 경제적인 이유도 꽤 큰 것 같아. 정말 관계만 놓고 본다면 혼자 사는 게 더 맞는 건가.

¹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같이 키우는 양육 방식

한울: 82호에서 인터뷰했던 친구 있잖아. 도시에서 살다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간 친구. 그 친구가 혼자 집 쓰는 사람들 다 정말 이기적이라고 말했었던 말이야. 집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같이 사는 게 좋지.

한울: 폴리아모리를 법제화해버리면 이 난제가 해결될까? 독점적인 파트너를 가지면 처벌받는 거야. (...) 아니면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저렇게 돌이도 줄라 치고받고 힘들게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공동체라는 게 가능할까.

경민: 오히려 네 명쯤 되면 서로 조심하면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족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감내하게 만들어.

혼자 돌볼 수 있을까?

한울: 만약에 성만처럼 육아와 살림을 다 혼자 해야 해. 혼자 아이 낳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든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것 같아?

경민: 우리나라에서 혼자 하려면 내가 애 8살 될 때까지 키울 만한 돈을 다 벌어 놓고 낳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애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우고 그다음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지.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면 안 낳을 것 같아.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서.

한울: 애당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원래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애를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니까 남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잖아. 역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경민: 근데 지금은 돈 주고 맡기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 맡기거나 하지. 나는 친구들 집을 계속 돌아다녔어.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오늘은 주희네 집 갔다가 내일은 유정이네 집 가는 식으로. 유정이네 엄마가 운동회 김밥도 내 것까지 싸주시고.

한울: 진짜 동네가 키웠구나.

경민: 근데 그것도 누군가는 독박으로 돌봄을 담당했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한울: 성만처럼 연고 없는 타지에서 살림만 하는 게 말이 안 돼. 왜 엄마들 네트워크가 그렇게 끈끈한지 알겠어. 외로우니까.

경민: 만약 성만이 여성이었다면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말이 안 통한다고 해도 한인 교회도 있고. 남성이어서 더 고립되지 않을까. 말 통하는 한국이라고 쳐도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하고 여성이 일을 한다면 그 남성은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까.

난화: 살림하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도 남성이면 걸돌 것 같아.

지연: 근데 한국에 살면서 남편이 주부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간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아. 엄마 대학 선배는 남잔데 전업주부거든. 아내분이 일하시고. 성만처럼 독박육아하고 집에서 애들 과외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끼리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 자기는 맨날 그게 천직이라고 말하고 다닌대. 그런 경우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

분산된 공동체는 가능할까?

한울: 내 최근의 난제인데 결혼하면 배타적인 공동체가 돼. 주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마을 공동체를 좋아할 때, 아내가 마을 공동체를 좋아하면 괜찮아. 근데 남자가 마을 공동체를 좋아하면 와이프 되실 분이 필사적으로 막거든. 남자의 모든 인간관계를. 왜냐하면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자가 밖에서 돌면 안 되잖아. 그래야 가사 분담이 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자꾸 없어져. 내가 있던 곳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 해체됐거든. 거의 한 10년 동안을 같이 텅굴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서.

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뤘던 형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여자는 마을 공동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부부끼리 둘이서만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 형도 육아를 위해서 가족끼리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온 공동체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같아. 배타적 공동체가 되면 그게 학연·지연 같은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만 끌어주고.

결혼하면 공동체가 없어져. 근데 오히려 엄마들끼리 공동체는 존나 생긴대. 협동조합 엄마들끼리 하는 거 진짜 많거든. 아빠들끼리는 뭐하지. 골프나 치나.

경민: 노조. 나 오늘 학교 오는 길에 건설 노조 분들 계셔서 응원해드리고 왔는데.

한울: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협동조합하고 남자들은 다 노조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완전 공산주의 국가여야 되는데 왜 이래.

난희: 우리 아빠는 친구 없어서 맨날 집 들어가.

한울: 많은 경우 여성이 그런 남편을 최고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외향적인 여성과 내향적인 남성이 결혼해야 누구 하나 착취되지 않는 건가.

한울: 애를 부모가 키우게 되나? 예전에는 20대 때 애 낳았으니까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부모한테 애를 맡겼잖아. 근데 이제 훨씬 늦게 애를 낳는데 그럼 부모는 나이 먹어서 손목 아작나서 애를 봐줘야 되나?

경민: 그렇게 될 것 같아 40살에 애를 낳는다고 부모가 안 돌봐주지 않을 거란 말이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가 굉장히 중요한 계급 재생산 수단이야. 애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를 가든 의대를 가든 해야 그 집안의 계급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한울: 아직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는데, 난 못 줄 것 같거든. 예전의 도식이 안 굴러가잖아. 부모에게 애를 맡기는 대신에 내가 생활비를 딱박딱박 줘야 되는.

난희: 사회적 안정감이 생기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개인적인 생활비는 어떡하지.

한울: 생활비랑 병원비랑 생각하면 한 사람당 못 해도 월 150에서 200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부모한테 뭐 한 300은 줘야지. 그 정도로 돈을 벌려면 애를 맡길 수밖에 없지. 악순환 아니야? 부양하려면 일을 존나 해야 돼. 그럼 애를 못 키워. 그럼 부모한테 맡겨야지. 그럼 아프겠지. 그럼 또 병원비 대야지. 그러다가 둘째가 애 넣고 나서 첫째 애는 봐줬으면서 왜 내 애는 안 봐주냐 이렇게 되면 존나 골치 아파지고. 난 진짜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육아를 딱 돌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경민: 네가 말한 공동체는 가족 외의 공동체?

한울: 응. 가족 내에서 그게 되려면 일단 아빠가 멀쩡해야 하고. 아니면 어느 종교의 독실한 신자 집안이거나

경민: 종교는 왜?

한울: 종교단체는 고도의 조직력이 있어. 그래서 대가족 유지가 잘돼. 공동체를 만들려면 뭐라도 믿어야 하나.

경민: 맞아. 종교 쪽은 공동체가 탄탄하니까 그 공동체에 애를 맡길 수 있잖아.

한울: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종교적이야. 잘 굴러가는 데는.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 명의 전도자 같은 사람의 카리스마를 높이 친다고 들었거든. 뭔가 담당 목사나 장로 같은. 그럼 한국은 영원히 박정희의 나라여야 되나 싶은 것도 있어. 단 한 명의 카리스마.

경민: 지금까지 누구 한 명에게 책임과 권위가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는 공동체는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울: 흠여지자 (웃음) 따로 살아야겠다. 모두가 안전한 곳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경민: 그럼 그걸 인정한 채로 가야 하는 건가. 누구 한 명이 권력과 책임을 많이 질 수밖에 없다.

난희: 근데 그건 옛날부터 그랬잖아. 옛날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고.

한울: 한국이 제도는 잘 만들어 놔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개인한테 아직도 큰 파위가 몰려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법도 준엄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판사 재량인 거고.

경민: 그러게. 외국은 배심원이 파위가 센데 우리는 판사가 짱이잖아.

난희: 천천히 변화하면서 균형 잡아가는 게 일단 정상적인 답이긴 한데 모르겠어. 좋아질까.

경민: 또 공동체 깔때기 됐네.

한울: 근데 사실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 결혼도. 생각하니까 자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도 했다. 예전에는 애가 돈 벌어 오는 거였는데 지금 인풋이 천문학적으로 커졌어. 왜 그렇게 키워야 하지.

난희: 예전에는 자식이 내가 늙었을 때 날 보살펴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애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됐지.

경민: 애가 잘돼야만 계층 상승 혹은 유지가 되니까. 진짜 돈 많은 집 애들은 차라리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개네는 유학을 가든 건물을 물려받든 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자수성가해서 중산층이 된 집안의 애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해. 부모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한울: 그럼 본인들은 그 계층에서 사는 게 좋았나? 본인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면 사실 애한테는 너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니는 친구 아버지가 내 자식까지 삼성맨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별로 행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 차라리 못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봤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계층을 백그라운드 없이 유지하는 데에도 품이 많이 드니까. 나는 다들 몰래 은근히 바란다고 생각해. 차라리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부장도 힘든 게 내 책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딸려 있잖아. 그래서 난 우리 집 좋아.

경민: 그렇게 평생 중산층 집안에서 살아온 애들한테는 가난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오히려 모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 인서울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가거나 전문직을 하는 삶 외에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너는 가난하면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지. 진짜 힘들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데 나처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은 가난하면 어떻게 되지? 싶은 거지.

한울: 지방에 인프라 없다지만 사실 정말 돈 없으면 지방에 가도 되는데 말야.

경민: 좋다 싫다를 따지기 힘든 것 같아. 가난이 뭔지 알아야 가난의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절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지. 계층이 높은 게 좋다고 주입되어 왔으니까.

난희: 우리 엄마는 네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네가 뭘 사고 싶을 때 포기 안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해. 근데 돈 많이 벌려면 일단 한국에서는 대학 잘 가는 게 최고니까 열심히 하래.

한울: 한국에서는 대학이 짱짱이긴 하지. 나는 그래도 대학교 왔잖아. 그래서 가난해도 나쁘지 않던데? 할 수도 있는 거고.

한울: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거나 나름 괜찮은 사업체 굴리는 중년들을 봤을 때, 그니까 나름 몇 년 동안 그 사람들과 일을 할 때마다 저 짓거리를 자기 자식들도 하길 바란다고? 싶을 때가 많았어. 돈을 많이 벌든 말든 난 차라리 저거 안 하고 해외여행을 못 다니는 게 나아.

난희: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하길 바라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뭔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길 바랄 거잖아.

경민: 더 선택권이 넓어지긴 하지.

지연: 근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랑 의견이 정반대야. 아빠는 대기업을 되게 오랫동안 다녔거든. 그리고 아빠가 번 돈을 엄마가 관리했어. 그래서 아빠는 돈에 대한 것보다 삶의 힘들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대기업 안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빠가 알고 아빠도 그걸 겪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고 많이 말했었어.

근데 엄마는 아빠가 옆에서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했어. 왜냐면 엄마는 이 돈을 직접 만지고 이걸로 집안을 굴리는 역할을 하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자식한테 돈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아빠 보면서 대기업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던데.

한울: 보통 아빠들이 그러나.

난희: 아빠가 내 점수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처럼 등급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지 않아. 아빠는 내 성적 잘 모르고 대학은 갈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

경민: 실질적으로 양육의 역할을 맡으신 쪽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사정을 훨씬 잘 아시겠지.

난희: 우리의 결론은 과연 뭘까.

경민: 글썄. 계속 싸우면서 같이 살자?

난민, 아동, 기후

글 김지연
여경민

다음은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나심>을 본 교지 편집위원들의 각자 다른 관점을 담은 글이다. <나심>의 카메라는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위치한 모리아에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인 나심과 그의 가족을 따라간다. 카메라는 나심과 남편의 눈짓만으로 알 수 있는 조용한 갈등, 류머티즘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손, 가족을 떠나고 싶어 하는 큰아들과 가족을 유지하고 싶은 나심을 응시한다. 2020년 9월 모리아 난민캠프는 화재로 모든 것이 불탔다. 나심과 그의 가족은 언제, 어디에서 가능할지 모르는 정착을 기다리며 거리와 임시거처를 전전했다.

<나심>

-그리스 난민 캠프의 보호자 미동반 난민 아동에 대하여

김지연

나심의 움직임을 쫓는 내내 난민 캠프의 한구석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렸다. 동행자가 없는, 하물며 성인도 아닌 보호자 미동반 난민 아동은 나심이 머물던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2019년 기준 레스보스(Lesvos)섬 난민 캠프의 보호자 미동반 난민 신청자 아동은 1,000여 명에 달했다. 공식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난민 아동들은 미등록 상태이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과일을 따거나 가짜 담배를 팔았다. 많은 난민 아동이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었다.

난민 아동을 구금하는 사례는 한국에도 존재한다. 2018년 7월, 자국에서 살해 협박을 받고 홀로 한국에 온 이집트 출신의 한 아동은 한국 입국 후 난민 인정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해당 아동은 화성의 국민보호소에 약 한 달간 구금되었다.¹ 한국에서 난민 아동을 구금케 하는 조항은

¹ 어린이도 '무기한 구금' 출입국 관리법...이번엔 '위헌' 나올까, 신민정 기자, 한겨레(2022.10.12)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² 이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여도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당시 한국에서는 위의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구금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구금의 개시, 연장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2월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³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이 출입국 관리행정의 편의라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기에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2020년 말, 유엔난민 기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그리스 정부는 길거리에서 생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자 미동반 난민 신청자 아동들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자발적 재정착 프로그램 또한 해당 연도부터 설립되었다. 이는 그리스와 같이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오는 나라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재정착하는 것을 돕는 방안이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4,48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14개의 유럽 국가로 재정착했으며, 이 중 1,065명 이상이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다. 재정착 프로그램에 포함된 보호자 미동반 난민 아동은 24시간 돌봄과 필요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과된 제한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건강에 적합한 준비를 하며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⁴

² 국가법령정보센터

³ “강제퇴거자 무기한 보호 가능한 출입국관리법63조1항 위헌 소지”, 김덕성 기자, 리얼 타임즈(2021.02.04)

⁴ 그리스에서 집 없이 생활하던 난민 아동들, 유럽에서 새 삶 찾아, 유엔난민기구(2021.12.23)

가장 취약한 아동 난민 보호를 위해 한국 또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

〈기후난민과 탄소중립〉

여경민

난민은 흔히 정치적, 종교적 분쟁으로 사회에서 박해받는 사람들로 생각된다. 난민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국적국에 대한 충성 관계를 포기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나 전쟁에 의해 생존조건을 박탈당해 국외로 탈출하는 실향민이라든가 전적으로 생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난민, 정치적 압제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한 난민 등 난민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⁵

난민으로 인정받을 사유가 충분하지만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난민은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기후난민이다. 기후난민은 삶의 터전이 망가지면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009년에 국제이주기구(IOM)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에 이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이주기구는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기후 난민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나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세계은행(WB)은 기후 변화로

⁵ 서원상, 이준서. (2009). 국제법상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환경법과 정책, 125 page

인해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 이상이 국가 내에서 이주해야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⁶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데에는 해수면 상승, 홍수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막화로 인간이 사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분쟁이 일어나 난민이 생기기도 한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은 정치적 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분쟁 원인 중 하나는 물과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특히 물 사용을 둘러싼 두 쪽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란 국경 지대 주민들이 헬만드강의 물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강은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하천이며 이란과 아프간 국경 지역에 있는 하문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 구실을 하고 있다.⁷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의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은 유명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그린피스에서 2020년에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인 클라메센트럴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연간 약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까지 더해졌을 때 2030년경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부산의 해운대와 인천의 영종도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이다.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1도 올랐다. 만약 이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의 피해를 받는다. 전 세계가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이내로 막기로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부터는 더 이상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안 된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제출한 감축 목표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1.5도가 아니라 2.7도 상승하는 경로에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 있다. 이대로 가면 목표로 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탄소중립에 이르러야 한다.

6 김기봉, 「날씨학개론」 전쟁만큼 무서운 기후변화... 「기후난민」 확산, YTN사이언스, 2021.11.9

7 신기섭, 「이란-아프간, 이틀째 국경 충돌... 「물 농지 갈등」 지역, 한겨레, 2022.8.1

8 김대근, 「2030년 한국은...」 시뮬레이션 충격적인 결과, YTN, 2022.7.8

동물 복지 실현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합니다

글 최예송

12월의 어느 날, 롱패딩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원래는 계속 학교 돗바를 입고 다녔는데, 학교 마크가 있어서 여기저기 아무 데나 입고 다니기 불편했고 충전제가 두껍지 않은 패딩이라 작년부터 하나 새로 사자고 버리고 별렀다. 그러다가 겨울이 가버렸는데 올해는 살을 예는 극한의 추위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서 사러 가자고 마음을 먹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괜찮아 보이는 롱패딩이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다. 그 브랜드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니 어렵지 않게 진열해놓은 것을 찾았다. 그런데 역시나 구스다운이었다. 상품태그에는 프리미엄 구스다운인 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었다. 그 뒤의 태그에는 RDS 인증 마크와 함께 “본 제품에 사용된 DOWN은 생산 과정의 안전성과 동물 학대 여부 및 동물 복지 실현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합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어찌 됐건 털을 뽑아내는 건데 동물 ‘복지’라니. 복지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나온다. 정말 동물들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우리를 추위로부터 감싸주기 위해 털을 내놓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고 그냥 사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구입할 수가 없었다.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둘러봤지만 롱패딩은 죄다 태그를 들춰보면 RDS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도 돼’라며 속삭였다. RDS 인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깃털 채취를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학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부산물인 털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재활용해 세척, 분류, 가공 과정을 거쳐 충전재에 적합한 깃털을 생산한다. 농장, 도축·수집장, 세척·가공 공장, 다음 공급자, 봉제 공장, 물류 창고, 최종 판매처까지 모든 단계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인증을 완료해야 최종 완제품에 RDS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¹

¹ “RDS”,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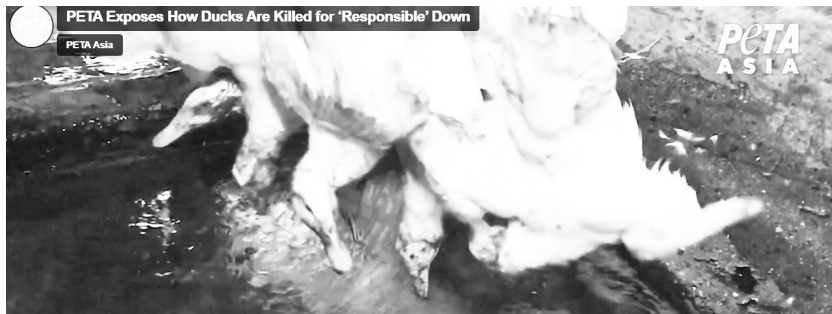
인증처	주요 준수 사항
농장	강제 금식(force-feeding) 금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로 채취(live-plucking) 금지 동물복지에 대한 현지 법규 준수 청결한 환경 제공, 신선하고 안전한 물 공급 영양유지를 위한 사료 공급 알컷 산란을 위한 사육공간 분류
다운생산·유통업체	RDS Down 별도 구분 보관·및 수불 관리 제품 출고 시 RDS 인증 제품 표기·등 원재료 TC 보관 및 History 관리 출고 제품 TC 보관 및 History 관리 RDS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봉제공장	RDS 다운 주입 공간 별도 분리 사용 RDS 완제품 별도 표기 및 구분 출고 출고제품에 대한 TC보관 및 History 관리 RDS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2

RDS 인증은 농장에서 다운 의류 생산 공장까지 각각 RD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인증처가 기준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 RDS 인증이 다운이 윤리적인지 굉장히 까다롭게 잘 판가름해 줄 것 같다.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RDS가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담은 글은 찾을 수 없고 이제 ‘착한 패딩’인 RDS 인증 패딩을 사자고 말한다. 정말 괜찮은 걸까?

RDS 인증 거위 털의 실상

RDS 인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는 그 인증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데 동물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재를 눈가림한다는 것이다.



PETA ASIA (2022)

2 고민정/김정미, “RDS 인증, 실무자가 알아야 할 A to Z”, PRAUDEN, 2017.03.27.,

위 사진은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2022월 11월 22일 공개한 사진이다. PETA는 RDS 인증 다운 생산 업체인 프라우덴에 납품하는 베트남의 오리 농장 도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학 행위를 폭로했다. 게시한 영상은 끔찍해서 두 눈을 온전히 뜨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 도축업자가 전기충격에도 완전히 기절하지 않은 오리의 목을 칼로 찔렀다. 오리들은 목이 찔린 후에도 거꾸로 매달린 채 피를 흘리며 1분 이상 살아 움직였다고 한다. RDS 인증 기준대로라면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킨 뒤에 도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인도적인’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PETA는 문제의 농장과 도축시설에서 생산된 깃털이 프라우덴의 베트남 공장 ‘비나 프라우덴’에 공급됐고 일부가 최종적으로 ‘RDS 인증(Responsible Down Standard certification)’을 받아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프라우덴은 다운 가공 공장만 보유하고 있고 앞 단계인 RDS 농장, 도축장은 하청에 맡기고 있다. 이 농장도 RDS 인증을 받았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않음으로 동물 학대가 버젓이 발생한 것이다. 프라우덴에서 생산된 다운은 겹, H&M, 유니클로, 라코스테, 게스의 다운 제품에 사용된다. H&M 대변인은 “당사는 문제의 공급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동물 복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공급망과 섬유 산업에서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동물성 소재 조달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대변인은 “동물 복지의 다섯 가지 자유인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윤리적인 축산 관행에 따라 동물이 대우받고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고

동물 복지의 5가지 자유를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다운 생산 가치사슬의 첫 번째인 농장과 도축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자신들의 신념만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운 제품에서의 동물 가학 행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2012년에 중국의 한 오리농장에서 다운 채취를 위해 산 채로 가슴털을 뽑는 잔인한 채취 과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live-plucking 다운은 사람들이 사려 하지 않으려 하자 노스페이스가 국제인증협회 컨트롤 유니온과 국제섬유협회 Textile Exchange와 함께 만든 것이 RDS 인증이다. 이 두 협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있는가? 아직도 어떤 농장들에서는 살아 있는 오리와 거위들이 산 채로 자기 신체 부위가 잘려 나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지 소비자들의 눈가림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방식은 많이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판매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물복지라는 말의 함정

그리고 현재 동물복지 기준은 문제가 많다. 동물복지라고 하면은 초원에 뛰노는 젖소들과 돼지들을 상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말이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 것 같다. 현재 동물 복지 제도 기준은 허술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 치킨도 안 먹어요?> 책을 쓴 이현우 작가는 이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기준을 보면 ‘자유 방목’ 조항이 있지만 축사와 방목장을 오가는 것은 자유 방목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단미 금지’ 조항이 있지만 사육사가 ‘꼬리 물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꼬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어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돼지들이 꼬리를 무는 이유는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이다) 셋째, 돼지 입장에서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정한 소음 기준이나 암모니아 농도 기준은 돼지들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것들은 사육 상의 기준이고 사실 동물복지는 사육-운송-도축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사육에서의 기준만 충족하면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복지일 뿐이다. 아무리 RDS 인증 기준으로 농장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잘 준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동물의 털을 뽑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전에 동물이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사육되고 도축되는데 어떻게 동물들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수 있는가, 동물이라는 말의 뜻인 움직이는 생물의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걸까. 동물을 먹고 입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인간의 시각 안에서 동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 RDS 인증 기준 역시 아무리 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이 여전히 죽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동물 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인종이 나오든지 그냥 동물 털로 만든 패딩을 아예 안 사는 게 답인 것 같다.

신소재의 등장

신소재도 최근 많이 나왔다. 웰론, 신슬레이트, 이런 이름의 것들이다. 장점도 많다. 부드러운 Micro Fiber로 구성되어 빠져나오는 현상도 없다. 물세탁도 할 수 있고, 비를 맞았을 때 털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나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 보온력도 뒤지지 않는다. 가격도 더 싸다. 신소재 기술이 나온 지는 오래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다. 백화점에 가면 보통 판매원들도 구스다운, 덕다운이 고급이고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가면은 “싼 거 찾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팔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웰론 등 인공 소재로 만든 거는 ‘싸고 질이 낮다’라는 인식이 있고, ‘진짜 털’이어야만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로 인해 아직도 내가 그날 백화점에 갔을 때 봤던 것처럼 죄다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패딩을 판다. 시중에 잘 찾아보면 신소재 패딩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애써 찾아봐야만 한다. 나도 사실 그때 구스다운 패딩을 사고야 말았다.

백화점을 배회하다가 내일까지 더 고민해 보자고 결정을 보류도 해봤지만 당장 필요한 패딩이었기에 다음 날 다시 가서 결제해버렸다.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내 몸뚱어리 따뜻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에게 뽑은 털을 두른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동물 털 패딩들이니, 의식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사람들도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동물 털 패딩을 사게 된다는 게 압담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ESG 경영에서 보는 희망

현 상황이 바뀌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 ESG 경영이 트렌드가 되고 기업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비건 제품들과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이슈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환경 파괴 제품들에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덜 유해한 제품들을 찾기 시작했다. 투자 기업들도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ESG 중목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화석연료와 관련한 매출이 25% 이상 발생한 기업은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 기업들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제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고 ‘착한 패딩’, ‘착한 옷’, ‘착한 기업’으로 마케팅을 한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이 변화한다면 기업들도 변화할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이 ESG 경영이 자칫 유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ESG의 E가 정말 ‘친환경’이 되려면, 지금의 소비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증들이 나와 ‘사도 된다’라고 기업들이 말할 때 그것이 기존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정당화하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진짜 ‘비건’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웰론과 신슬레이트 등 신소재도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 그러나 보다 더 동물과 환경에 덜 해로운 것을 고르자면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부터 겨울철 옷에 사용되는 동물들에 대한 잔인한 학대 행위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어야 기업들도 신경을 쓸 것이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동물 털로 만들어지지 않은 패딩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들이 정말 동물 털을 쓰지 않아서 동물 복지 실현을 준수하였다고 애써 변명하지 않는 세상이다.

글쓰이의 첨언: 이 글은 읽는 서강대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동물 털로 된 패딩을 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다. 그렇기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역시 인식하고 있다. 패딩뿐만 아니라 먹거리, 화장품 등, 싸고 좋아 보이는 제품들 뒤에는 사람과 동물, 환경,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구조 속 고도의 분업화로 생겨나는 단절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희생과 지배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동물들을 착취하는 공장식 축산을 없애기 위해서 당장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본주의 구조를 철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고 그 해악만큼이나 너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니즘 운동은 그 너머의 잘게 쪼개진 과정들을 연결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자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RDS 인증, 실무자가 알아야 할 A to Z”, 프라우덴 소싱파트 고민정/김정미 (2017), <http://prauden.co.kr/rds-%EC%9D%B8%EC%A6%9D-%EC%8B%A4%EB%AC%B4%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A0-a-to-z/>

“PETA Reveals How Ducks Suffer and Die for ‘Responsible’ Down”, PETA ASIA (2022), PETA Reveals How Ducks Suffer and Die for ‘Responsible’ Down | PETA Asia

“PETA, 베트남 공급업체에 다룬 깃털 공급 관련 의혹 제기”, 김태엽 (2022), <https://www.wwd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1>

“농장동물 ‘행복’ 논하는 사람들... 저는 좀 괴롭습니다”, 이현우 (2021),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74074

“왜 기업들은 ESG 경영을 외칠까요?”, Climatus College (2022)

‘존중’이 나의 자유를 침해할 때

글 구지혜(국문 18)

‘존중’이라는 개념과 함께 떠오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차별하지 않기, 인권, 취향, 예의 등을 많이들 떠올릴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그렇구나.’라는 짧은 한 문장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 철폐, 인권 등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개념들은 해당 분야에 관한 공부를 평생 해온 사람들에게도 정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차별은 무엇이고 그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고 반박 불가할 논리로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개념들은 매 순간 사회와 함께 움직이기도 하거니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존중합시다.’라는 슬로건 뒤에 저는 이러한 개념을 붙이자고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취향, 예의 등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존중’이라는 개념을 논해야 할 정도의 자리에서 이런 개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트초코칩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존중’이라는 개념을 논하는 장이 열리지는 않죠. 분명히 ‘존중’이라는 개념을 논하는 자리는 아무래도 ‘취향’이라거나 ‘예의’ 정도 수준의 논의가 오가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취향 존중’, ‘존중하는 것이 예의’라는 말 등은 이어지는 지면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존중’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존중해야 하나요? 무엇이 존중받아 마땅하며, 무엇이 그렇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노란색입니다. 두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가요?

어떤 사람은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가요?

어느 사람이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가요?

한 학생은 안경을 씁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는 존중받아 마땅한가요?

두말할 것도 없는 질문들이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뜬금없이 물어볼까요. 맞습니다.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및 정치체제는 그렇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존중되고 있나요?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존중받아 마땅하며, 인권을 가진 채로 태어났음은 참이어도,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거짓입니다.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개념을 만들어 낸 이유는, 사실 인간이 그 개념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족된 것을 굳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두고 모두가 지키도록 다양하게 ‘압박’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노화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현재 2023년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노화란 이미 충족된 조건인 셈입니다. 물론 노화를 막는 기술이 생겨나 인류의 모습이 지금과 달라지면 ‘노화할 권리’라는 개념이 생겨나겠지요. 요지는, 지킬 필요가 있는 규칙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앞서 든 예시를 다시 살펴봅시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아마 인종차별이 대표적이겠지요. 그런데 노란색 머리카락도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권력의 정점에 선 백인인데 그렇겠냐고요? 노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노란색 머리카락은 ‘멍청함’의 상징이라 수많은 금발 여성이 소위 ‘골빈년’ 취급받습니다. 그들의 실제 능력이 머리카락 색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 여성은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하기도 합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공주병’에 걸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파란색을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물품의 색깔조차 강요당합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심하면 교정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남성들이 훑어볼 때, 치마를 입은 여성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치마를 입은 남성을 행인들이 이상하게 볼 때, 치마를 입은 남성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교복 바지를 입은 여학생은 교무실에서 치마로 갈아입으라는 강요를 듣게 됩니다. 흰 바지, 스키니진, 짧은 바지를 입은 남성은 종종 편견 어린 시선을 받곤 합니다.

안경을 쓰는 학생은 안경이 없으면 삶이 현저히 불편해집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중 몇몇도 이미 삶이 불편할 것입니다. 이들은 못생겨 보일까 봐, 안경을 맞추는 돈이 없어서, 안경이 불편해서 등의 이유로 안경을 안 쓰고 살아갈 것이고, 안경을 쓰는 학생들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회의 압력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실존합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 생기는 불편은 실존합니다. 마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생기는 불편이 실존하는 것처럼요. 살집이 있어서 느끼는 고통은 실존합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으로 생긴 거식증만큼요. 우리는 모두 항상 어딘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고자 합니다. 내가 어딘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를 제외한 타인은 모두 나와 다른 부분에서 나와 다른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들도 각자에게는 ‘나’이기 때문에 존중받고자 합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모여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항상 와글와글하고, 아수라장입니다.

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너는 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해? 나도 슬퍼. 나도 아파. 나도 고통스러워. 나도 존중하란 말이야. 존중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 봅니다. 그렇구나. 한마디만 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구나. 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너도 그렇네.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너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절규하는구나, 한마디만 해 주세요.

왜?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할까? 대체 왜 세상은 항상 우리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든다면 그때는 한 번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차별과 인권과 시위와 농성과 복지와 제도와 지원과 기술과 역사에 대한 자료를 읽어봄 직합니다. 아마 죽어도 다 못 읽을 양일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람들 모두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떠돌고 있으니 조금만 읽어도 충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불완전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사회를 항상 꿈꾸나 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판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수 없는 이상향을 정해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철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상사병을 평생 앓습니다. 미련하고도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봅니다.

같은 별을 쫓아가는데 혼자 갈 필요 있나요, 함께 갑시다. 무조건 같은 속도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무게의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도 내 앞에, 뒤에 항상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 등이 아닌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 역시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 역시 뒤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일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쫓는 별은 애초에 우리가 달리는 트랙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저 달리는 사람들이고, 미련하게 땅 위를 달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철없는 낭만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해도 소용없어! 우리의 연대는 세상도 바꾼다

글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instagram.com/nogojiri_sogang](https://www.instagram.com/nogojiri_sogang))

2023년 1월 18일 이른 8시, 노고지리 구성원들이 전장연 선전전에 함께하고자 아침부터 혜화역에 모였습니다! 모든 시민권 확장의 순간은 바로 거리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죠. 다 같이 ‘다시 만난 세계’, ‘혼자가 아닌 나’ 등을 부르고, 같이 피켓을 만들어서 흔들고, 발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한 이들의 후기를 갈무리해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려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새봄

품이 들고 힘들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자보를 쓰고, 시위에 나갔던 이유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혼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하자고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사회는 진보할 수 없다. 대자보는 찢겼고, 공권력의 폭거는 잔인하고 야만적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함의 가치는 더없이 값지다. 혜화역에서 나눴던 다정한 눈길들, 밈(meme)이 담긴 구호를 피켓에 쓰며 주고받았던 웃음들, 같이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받았던 따가운 시선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것이다. 동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의 변화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는 정말 값졌다.

누군가는 전장연의 투쟁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비장애인 대중교통을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전장연과 연대해야 할 근거가 되어준다. 우리의 손가락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외치는 약자가 아닌, 그 삶을 보장할 생각조차 않는 무능하고 기만적인 국가를 향해야 한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18년간 미뤘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고,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멈추며 전장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시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연

처음으로 경험한 선전전이었는데, 직접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는 일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임을 생생하게 느꼈다. 소수자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올 때까지 계속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은

지난여름 쿠퍼에서 장대비 속에서도 함께 행진하시던 전장연 활동가분들의 모습이 항상 마음 한 켠에 남아있어서 나도 힘이 되고자 선전전에 참여했다. 항상 인터넷이나 뉴스로 전장연 시위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한 건 처음이었다. 주변에서도 전장연 시위를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지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전전에서 본 풍경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내며 귀를 막거나, 반대 발언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권력에 대한 기대가 없던 내게는 냉담한 시민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다. '왜?'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연대와 지지는 당연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선택이자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는 차별과 혐오, 심지어는 폭력에 맞서서 힘겹게 얻어내야 하는 이 사회의 현실은 괴기하다. 함께 평등한 지하철을 타고, 함께 평등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날까지 기억하고 연대하겠다.

예송

전장연 뉴스를 보고 안타깝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문제를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늦기 전에 노고 자리에서 대자보 쓰는 걸 추진해 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함께 자보를 쓰면서 그동안 장애인 권리들이 얼마나 보장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더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얼떨결에) 선전전 참여 결의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 그날이 되어 전장연 선전전에 갔는데 많은 단체들이 와서 더 무섭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매 호차 지나갈 때마다 지하철 문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장애인 분들이 처음 날 것 그대로 받았을 때는 어땠을지 생각했다. 이것이 남을 위한 시위가 아니고 내 삶, 내 소수자성에 대한 문제였으면 어땠을까. 너무 무섭고 힘겨울 것 같았다. 우리의 연대가 그들에게 정말 많이 힘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 후에 활동가분과 함께한 대화 자리에서 실제로 어제만 해도 사람 수가 적어서 보안관이 함부로 대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수자들이 서로의 의제에 힘을 보태고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나도 나의 자리에서 앞으로 연대의 손길을 보내려 한다.

경민

대자보를 쓰게 된 건 우연히 뒤에 있던 일정이 취소된 탓이다. 내가 얼마나 장애인 권에 대해 무지한지 알게 됐고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대자보를 쓰면서 시위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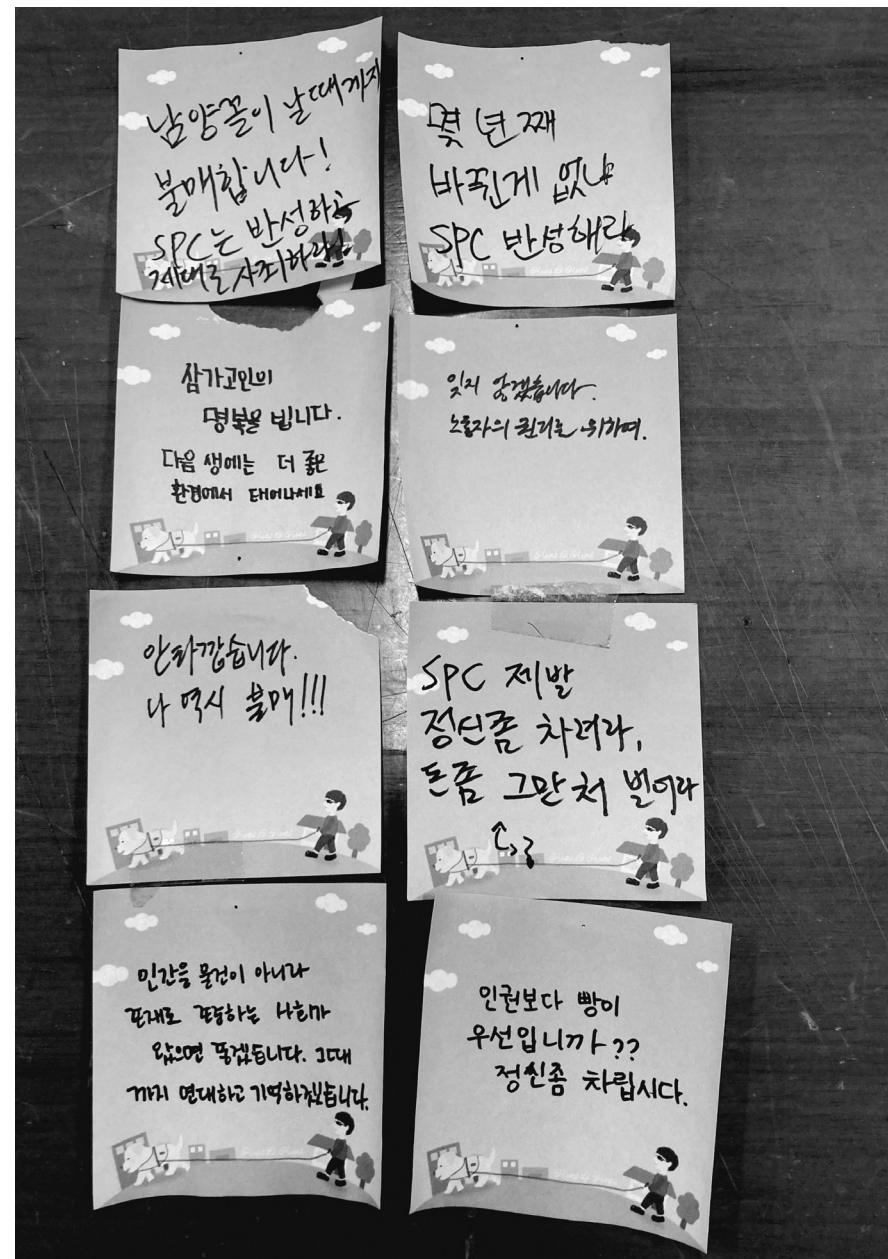
등교할 때마다 삼각지역을 지난다. 지하철 선전전이 혜화역에서 열릴 때까지 시위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누군가의 생존과 삶이 걸린 투쟁이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선전전에 무관심할 수 있었다. 시위 현장은 영상으로만 볼 때와 달랐다. 정권보다 긴 투쟁을 이어오는 절실함,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국가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직접 느끼고 나니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고 이제라도 연대해서 참 다행이었다. 장애인 활동가분께 오늘은 비장애인 연대 단체들이 많이 와서 공권력이 온건하게 대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비장애인 눈치만 보는 것에 화가 나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안 될 것도 없겠구나 싶었다. 시위를 해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생각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생각과 같다.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위를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다. 살기 좋은 세상을 누군가는 만들어주겠지, 누군가는 싸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위 참여를

미루지 말아야겠다.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 행동해야겠다.

한울

전장연 연대 자보를 작성하며 이렇게 오래된 기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담했다. 쓰면서도 찢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대칭으로 예쁘게 잘 찢어 나서 수선하는 맛이 있었다.

연대를 나간 날엔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아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덜하니 탑승객들의 부정적 반응이 적은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전장연 활동가와의 대화에서, 연대자 수가 많으면 노골적인 폭언을 듣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오늘은 많이들 연대 와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8년 전 서울 쿼어퍼레이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티셔츠를 구매했고, 4년 전 지자체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 보조금 지급 보류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당시 체험홈 코디네이터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급여가 적다면 체험홈 코디네이터를 그만두라.” 했다. ‘올바른’ 방법의 이익제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기에, 꾸역꾸역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사람들이 모였고 비장애인인 나는 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 한가운데 다만 무기력했다. 고작 그게 다였다. 이렇게 가끔만 연대하는 나도 답답한데... 22년을 싸워와야 했던 삶은 어떤 삶인가?



놀매가 놀매가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귀찮다.

돈 < 사람

하루뿐인 '선진국'

할 수 있는게
불매밖에 없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노동이
죽은 죄입니다

있어
없습니다.

2022년에도
노동을 착취해
돈 벌어야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에 소극적인
슬픔을 느낍니다.

반드시 전상이 규명되어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故인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도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SPC 말고도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잊지 않고 복매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PC 뿐이 아니라

연대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i.p

어쩔지 않은 불매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년에 일기날 수 있는
사건이 맞나고.
"절대 불매"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대합니다.
'피운은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해
SPC 불매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곳이라면 언제
자나 깨라는 것이겠지요. 우리에게 차라리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불매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PC 불매를 강력히 권할
습니다. 길을 전라후석하듯
불매가 어려울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힘이 다시 생기면 그 길을
티백강을 잇사마 걸주세요.

이 땅이 전쟁으로
노동자가 대정쟁
시대가 온 것 같진
않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끝까지 싸워겠습니다.
불매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돈이 가장
효과가 있다. 불매로
권내주지 않으면 정신을 못차
린다. 소비자의 무서운 힘을
보여준다.

이번에 본대를 보여주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절대 불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영은
이런 경영이 아님니다.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되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대들이 읽을 것은 외사슬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다.
Proletariat aller (länder)
vereinig! euch!

비싼 인민의 붉은 피로 만든
그 피는 작기가 되어
SPC를 위협하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 나의 죽음일수도
있었던 당신의 죽음이 서럽습
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매로라도 더 이상의 죽음
을 막고자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매에 동참하겠습니다

동료를 깨낸 기계에 다시 반죽해야
만들수 있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연대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故人之 冥福을 빕니다.

이번에 본대를 보러주신
안호환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정대불매”

정수 2인의 곱을 구하는
 2인 정수 2를 곱해서 4를
 구한다. 결과는 4이다.
 정수 2를 곱한다.

SPC 品牌					
					
和信食品	瑞士巧克力	甜甜圈	牛奶	牛角包/羊角包	蛋糕
					
牛奶	牛奶	和信食品/牛奶	牛奶/牛奶	牛奶/牛奶	牛奶/牛奶
					
和信食品	和信食品	城市便利	牛奶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蜂蜜点	和信食品	和信食品	和信食品

불매!

- 서강대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

1. 죽음은 정말 남의 죽음인가?

10월 15일, SPC 그룹공장에서 '12시간 맞교대' 야간작업공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SPC는 현장을

희천에 씌운채 곧장 기계가동을 시작했고, 동료시신을 수습하느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동료노동자들을 출근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산재가 아닌, 노동자의 인권을 노동권을 무시하고 이윤을 좇다 비인간적
 처우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 즉 타살입니다. 기계엔 안전을 위한
 덮개도 없었으며 2인1조 근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에도
 SPC는 노동자들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 형성보호권,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피와 죽음으로 만든 음식, 소비
 하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죽지 않는 일터, 상식적인 노동조건을 위해
 SPC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할때까지 SPC 불매에 동참해주세요. SPC는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비스, 던킨, 상립(또는뽕), 웨이츠스,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등을 계열사로 둔 거대기업입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가 보호받고, 목소리가 높살당하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안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15일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은 정말, 인간의 죽음입니까?
 우리는 노동자이자, 노동자가 될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불매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맞닿아

답: 있습니다.

‘서강대 인권소임, 노고지리

< @nogojiti_sogang >

김기주 (장학자)
박영준 (장학자)
김민아 (장학자)
김영민 (장학자)
국지현 (장학자)
남현준 (장학자)
전승환 (장학자)
김기태 (장학자)
박지현 (장학자)

#테디발아주세요
#일정시간이후 자제
수거예정입니다!

2022

전장연에 연대합시다 혜화역으로 갑시다!

전장연 이동권 투쟁은 2001년도 9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고 이후 20여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국가는 빈약한 예산을 투입해왔고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전장연의 시위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자, 사회악자의 마지막 삶의 절규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1조3044억원 증액에 대해 국가는 올해 0.8%인 106억원만을 증액(기본적 물가인상 반영)했다. 요구안은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근로지원인 예산의 장애인물택시 운영비 및 신규 도입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배정된 예산증액분은 0원이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다시 9월 2일, 경찰은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안을 수용하며 5년 내의 탈시설을 약속한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저지했다. 공권력은 휠체어 컨트롤대를 꺼버려거나 훼손하였으며, 휠체어에서 활동가를 끌어내리고, 주먹질했다. 무한 정박과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 간의 갈라치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위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필연적으로 늙는다. **앞선 이들의 투쟁으로 이룬 권리는 모두가 수혜받을 것이다.** 이동권 투쟁이 남의 일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그 9월에 차 바뀌지 않은 사회는 다시 형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 중 목에 감은 쇠사슬과 사다리는 은유가 아닌 현실이다.

1월 19일까지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이 진행된다.

우리 함께 혜화역으로 가서 전장연에 연대하자!

서강대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nogojiri-sogang)

19 영문 화주, 17 커뮤 한울, 20심리 예종, 20미언 경민

혜화역 투쟁에 연대할 학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일시: 혜화역등강남 오전 8시(날과 추위 등) 자발적 참여 환영합니다! 데지 앞아구세요!!

탈시설, 왜 필요한가요?

서강대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67.9%
비자발적 입소

40%
방 1개당
5인 거주

38.9%
외출불가

58%
입소시간 10년 이상

1,157개
장애인거주시설

71%
휴대폰
미소지자

모든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일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일이 당연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시설로 보내집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집단생활을 강요 받을 수밖에 없기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침해가 필연적인 시설안엔 누구도 가선 안 됩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던 서비스를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라가 해야 합니다. 장애가족의 선택지가 시설이어야만 하는 사회를 규탄합니다.

한국정부가 2008년에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19조)에도 탈시설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비용과 효용으로만 선포되지 않는 날까지 우리는 전장연과 연대하여 탈시설권리를 위해 같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데지 앞아구세요!!

희주 (영문 19)
한울 (커뮤 19)
예종 (심리 20)
경민 (미언 20)

서강대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nogojiri-sogang

반쪽짜리 응시에 관하여

글 김지연 (jiyeon418@naver.com)

수많은 예술의 기능 중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가장 대범한 직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서 비롯된 인간들의 싸움에서 도망친 예술가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발밑의 세계를 관조한다. 이 세상을 통달하기라도 한 듯 거침없이 써 내려간 관조의 결과물들 사이에서 몇몇 예술가는 영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한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뒷모습의 역사

내가 그간 좋아했던 영화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인물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잡아 두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2002)을 몇 번이고 돌려 봤다. 무대를 마치고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밤의 골목을 걷는 헤드윅의 뒷모습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이 헤드윅을 바라본 방식을 투명하게 비추어주는 듯이 거침없고 솔직했다. 해당 장면은 헤드윅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들게끔 하기에 충분한데, 이는 헤드윅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한 사람들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영화의 메시지와 상충하기도 한다. 그 경계에서 늘 같은 질문이 생긴다. 눈앞의 한 장면으로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건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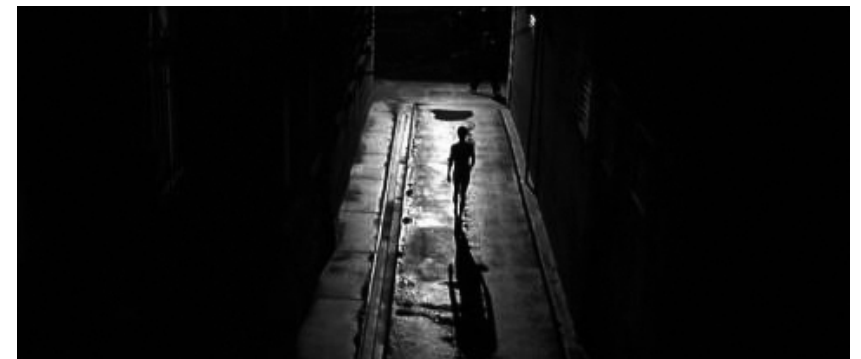


사진 1. 영화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2002)의 마지막 장면

단숨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김보라 감독의 첫 장편 <별새>를 본 건 2020년 여름이었다. 2020년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혐오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여실히 드러난 해였다. 모두의 말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던 와중에 영화 <별새>의 느리고 서늘한 시선은 그 돌아온 말들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1994년 10월의 어느 새벽, 세 인물은 우거진 수풀 사이에 서서 무너져 내린 성수대교를 바라본다.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 어떤 말도 없지 않고 그들은 그저 참사의 현장을 가만히 응시한다. 영화는 참사의 순간만을 다루지 않는다. 참사의 희생자가 된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그중 하나였지만 참사 당일 등교를 하지 않은 주인공 은희(박지후)의 언니 수희(박수연). 수희가 불성실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이유에서 빠질 수 없는 은희네 가족의 장남 대훈(손상연)까지. 수희가 무사히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혼자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대훈의 뒷모습에는, 이리저리 얹혀 단숨에 풀어낼 수 없는 실타래를 마주한 감독의 복잡한 고뇌가 담겨있다.

‘응시’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유의어로는

구시

물끄러미 응시하는 일

주시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핌

응망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이 있다.

눈을 한곳에 집중시켜 오랫동안 바라보는 일. <별새>의 주인공 은희는 그러한 응시 끝의 직면 과정을 거치는 인물이다. 크게 싸운 다음 날 아침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박장대소를 하는 부모와 그 밑에서 반짝이는, 채 치워지지 않은 유리 조각을. 아무리 크게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엄마의 뒷모습을. 늦은 밤의 재개발 현장을. 은희의 곁을 떠난 한문 선생님의 사진을. 수학여행 날 운동장에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을. 눈의 진득한 머무름은, 세상의 어떤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화를 보면 위의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사진 2. 영화 '별새'의 스틸컷. 은희는 언니, 언니의 남자친구와 셋이서 새벽 시간 한강에 나가 무너진 성수대교를 말없이 응시한다.

슬픔을 바라보는 눈의 모양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 오후는 늘 아빠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당시 우리 집에는 A4 이면지를 4등분으로 잘라 모아둔 검은색 수납함이 있었는데, 아빠는 거기서 종이를 한 움큼씩 꺼내 나에게 주고서는, 시골 마을이나 바다, 나의 왼손 같은 것들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그림을 그려도 아빠는 늘 아낌없는 칭찬을 실컷 들려줬기에 매주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 하루는 아빠가 나에게 눈을 그려보라고 했다. 어느 때와 같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지구화학 투명이 색연필 24색짜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내 옆에 쭈그리고 앉은 아빠는, 종이를 6장쯤 집어 각각의 종이에 화난 눈, 기쁜 눈, 짜증 나는 눈, 두려운 눈, 슬픈 눈 등을 그려보라고 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아빠와 나의 관계가 극히 화목해 보일 것이 우려되어 미리 일러두는데, 아빠는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보기 위해 내가 ‘혼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놀거리를 찾았을 뿐이다.) 나머지 눈들은 자신 있게 그렸는데, 슬픈 눈은 도무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나이 때 나에게 슬픔이란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는 일이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약소한 감정에 불과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슬픔은 훨씬 더 강렬하고 괴로운 감정일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빈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빠의 코골이 소리가 멈출 때쯤 나는 결국 눈 안에 하늘색 눈물만을 채워 넣고 아빠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빠는 잠긴 목소리로 내 그림을 대충 보고서는, (10살짜리 아이에게 굳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찢찢하게 남아있다. 슬픈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터넷에 ‘sad eyes’를 검색해 봐도 눈물이 고인 눈이나 한껏 찢진 눈, 붉게 충혈된 눈뿐이고 그건 나의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므로 만족할 수 없었다.

슬픈 눈의 생김새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었다. 옆 사람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 질 녘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정신없이 보도되는, 어찌할 바 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기사를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차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슬픔이 한가득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응시하는 방법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슬픔을 향한 조심스러운 응시는 자칫하면 무시가 되고 적극적인 응시는 동정의 형태로 변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최대한의 슬픔을 겪어보았다고 자신하고, 그 자신을 근거로 모든 슬픔을 알아내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의 뒷모습을, 또는 그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뿐이다.

반쪽짜리 진실에 관하여

〈별새〉를 만들 때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감독이 밝힌, 2000년 개봉한 영화 〈하나 그리고 둘〉에 나오는 주인공 양양은 아빠 NJ에게 묻는다.

우린 절반의 진실 밖에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빠가 보는 건 내가 못 보고

내가 보는 건 아빠가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빠가 보는 걸 나도 볼 수 있어요?

NJ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몸은 앞모습과 뒷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거울에 비친 앞모습뿐이다.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나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양은 아빠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양양: 우린 반쪽짜리 진실만 볼 수 있나요?

NJ: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구나.

양양: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니까.

반쪽짜리 진실만을 지닌 채 우리는 타인의 뒷모습을 향한 렌즈 너머로 나머지 반쪽과 비슷하게 생긴 진실을 목도한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것이라 굳게 믿는다. 한 번도 자신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자신 있게 사람의 뒷모습을 그려낼 수 있듯이, 렌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찾는다. 그건 응시의 결과이자 반쪽을 채울 수 있는 흐릿한 진실이다. 좋은 영화는 관객이 관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크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장치들을 품고 있다.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어린아이의 뒷모습처럼.



사진 3. 영화 <하나 그리고 둘> 스틸컷. 원제는 “Yi Yi” 즉 “하나하나”를 뜻한다.

마무리

글을 쓰는 내내 내가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답이 없을 것 같은 주제에 대한 모호한 글을 쓰겠다고 다짐한 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더 모호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 페이지 안에서 길을 헤매는 중이다. 글을 위해 영화들을 찾아보는 동안 나는 그 어떤 말도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느껴버렸고,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마다 아무 글도 쓸 수 없었다. 변명은 이만하고 그럼에도 글을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혐오를 품은 냉소와 반쪽짜리 응시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를 모두 깨우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만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반쪽짜리 진실만을 알게 될 거라는 전제와 함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와 타자를 연결하여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중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당도한 이곳의 끊임없는 죽음들이 결코 타인의 것만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나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막힐 때마다 힌트가 되어준 시를 소개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한다.

우리 바깥의 우리 (김소연, i에게, 아침달, 2018)

우리는 서로의 뒤쪽에 있으려 한다/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다만 등을 보고 있으려고/표정은 숨기며 곁에는 있고 싶어서/옆자리는 비어있고/뒤에 서서 동그랗고 까만 팔꿈치를 쳐다보면서/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등 뒤에서 험담이 들려올 때/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제대로 듣지 못하면서/“말하는 것 좀 봐” “말하지 못하는 것 좀 봐”/단 하나의 사건에는/모두의 죄들이 한꺼번에 발각되는 순간이 온다

사진출처

“[영화] 헤드윅 (Hedwig And The Angry Inch, 2000)”, 네이버 블로그 ‘빠담빠담, 6월의 우주선’, 2014년 6월 24일 수정, 2023년 2월 15일 접속, https://m.blog.naver.com/junho_0111/220040327605

“[영화 속 그곳] 성수대교는 과연 복원됐나”, 연합뉴스, 2019년 11월 12일 수정, 2023년 2월 15일 접속, https://m.yna.co.kr/view/AKR20191017162900805?site=popup_share_copy

“하나 그리고 둘”- 에드워드 양의 마지막 영화, 인생 영화라 회자되는 이유”, 미디어스, 2018년 6월 29일 수정, 2023년 2월 15일 접속,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57>

프란시스는 두 발로 달린다... 자동차는 없다!

글 차송현



달리기와 자동차

어딘가로 향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여정은 사실 삶의 은유이므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우아하게 도로를 질주한다. 그러나 값비싼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달리는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 옥신거리고 숨이 가빠질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없이도 기어코 내달리려 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돈은 없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말이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프란시스 하>(노아 바움백, 2012)에서 달리기와 자동차의 대비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프란시스는 러닝타임 내내 분주하게 달린다. 그녀의 모습은 친구 소피가 세단을 타는 장면, 그리고 부유하고 젊은 예술가 벤지와 레브가 바이크 애호가였다는 사실과 쉽게 대비된다.

이 영화에서 달리기와 자동차의 대비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 경제적 여유 : 현실

달리기 : 빈털터리 : 꿈

프란시스는 이제 자동차를 타야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로 넘어가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녀는 달리기를 고수한다. 무용단에서 해고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단번에 사무직 일자리를 거부했다. 프란시스는 스물일곱인데 철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다. 그러나 프란시스에겐 그녀가 바라는 분명한 삶의 형태가 있다.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고 싶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한다. 그렇지만 일은 프란시스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불거지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이 영화는 프란시스가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울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시스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거의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프란시스는 집을 잃는다. 같이 살던 친구 소피가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소피는 프란시스를 떠나서 더 나은 동네에 있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프란시스가 소피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동거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와 헤어진 직후였다. 절친한 친구이자 동거인을 잃은 프란시스는 이제 새집을 구해야 했고, 그녀가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영화가 전개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프란시스가 빈털터리라는 데 있다. 프란시스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상기해 보자면, (1) 그녀는 뉴욕에 사는 무용수, 즉 예술가인데 (2) 얼마 전에 실직했다. 프란시스 같은 예술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기, 또는 돈 많은 부모의 지원을 받기. 안타깝게도 프란시스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용단에서 대역을 하던 프란시스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프란시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세단과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프란시스는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가운데는 현실과 타협하고 꿈의 모양을 바꾼 사람도 있고, 방만한 예술가로 남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는 세단의 은유로 나타나며,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소피이다. 영화가 시작할 때 프란시스와 같이 살던 소피는 프란시스와 “싸움 놀이”를 비롯해 온갖 유치한 일을 함께했지만 먼저 어른이 되고 만다. 그녀는 좋은 동네의 집으로 이사를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번듯한 남자친구와 약혼을 한다. 소피는 출판사 거물이 될 꿈을 꾸는 랜덤하우스 직원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이민에 함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다. 그것이 소피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꿈을 포기했다고 그녀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먹을 것을 넣는 일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소피의 삶은 세단 자동차처럼 안정적이다.

한편 변변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다. 소피의 두 번째 집,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 들어 살게 된 집의 주인인 벤지와 레브이다. 그들은 각각 작가와 조각가(지망생)지만 프란시스처럼 가난하지는 않다. 벤지와 레브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비용 400불을 적다고 말할 정도로 돈을 아낌없이 쓰고, 매일 밤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며, 꿈을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 영화는 그들의 삶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진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 프란시스가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 벤지와 레브의 삶은 요란한 ‘고급 바이크’이라고 명명해 보면 어떨까. 그들은 화려한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으므로 숨찰 일이 없다.

‘프란시스 하’로서 달리기

프란시스는 벤지와 레브와의 동거 이후에도 여러 집을 돌아다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얹혀살거나 기숙사 조교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던 프란시스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안무 창작 활동을 하기를 택했다. 프란시스는 별로 대단한 인물처럼 비치지 않는다. 만약 이 영화가 영웅의 이야기였다면 주인공은 자신의 재능으로 부나 명예를 쟁취했을 것이고, 한때의 가난마저도 신화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도 명예도 없는 프란시스의 모습은 오히려 구질구질하고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가 영화의 마지막에 자신의 작은 방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관객은 감동을 느낀다. 그것은 영웅의 전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감동이다. 어째서 프란시스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가? 프란시스의 미덕은 그녀가 진실하다는 데 있다. 기숙사에 머물렀다가 이른 아침에 떠나는 소피를 붙잡기 위해서 프란시스는 숨 가쁘게 달린다. 다음 장면에서 아스팔트 위 그녀의 맨발이 클로즈업된다. 맨발은 스스로에게 솔직한 프란시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여느 어른처럼 현실과 타협하지 않거나 가짜 관계를 맺지 않는다. 프란시스는 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용수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안무가가 되었다.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프란시스가 우편함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이다. 프란시스 할리데이. 칸이 작아 뒷부분이 잘리자 그녀는 이름표를 살짝 접었고, 명패에는 ‘프란시스 하’라는 이름이 부착되었다. 프란시스는 꿈의 한 편을 접었지만, 이것은 포기나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에 맞추어 ‘프란시스 하’가 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간다. 프란시스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달리고 있을 것이다.

사내들이여,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글 김이레

당신은 사주팔자를 믿는가? 1년 전 한 남배우의 사주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 30대 때 여자만 조심하면 잘 될 팔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는 여자 문제로 인해 스타덤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물론 나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주를 잘 살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남배우를 살펴보자면 여자를 조심하라는 사주가 과연 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다. 여자 문제와 관련된 경고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여자에게 남자 조심하라는 사주가 들어맞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사주팔자를 보면 종종 재산으로 인하여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 중 누가 돈 위험한 줄을 모르겠는가. 따라서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을 신빙성 있는 것처럼 하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카라마조프가의 비극 또한 바로 저 두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카라마조프가의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마조프가의 부, 표도르를 살펴보자. 그는 살아생전 돈과 여자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 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세 아들 모두 방치하기도 했다.

그 밑에서 태어난 카라마조프가의 장남, 드미트리리는 그와 가장 닮아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부와 마찬가지로 돈과 여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인생을 산다. 약혼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이 불륜관계를 숨길 생각도 하지 않는다. 또 우연히 만지게 된 약혼자의 돈을 자신의 것처럼 흥청망청 사용하다 이를 갚기 위해 남에게 돈을 빌리고 또 그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는 빚쟁이의 삶을 전전하게 된다. 싸움질에 능하던 전 직업군인 드미트리리와는 다르게 카라마조프가의 둘째 이반은 학문적으로 두각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지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와 형이 동시에 한 여자를 두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사이, 그는 첫째 형의 약혼자와 눈이 맞기 때문이다.

마을 회관 안쪽거리로 제격인 카라마조프가의 부와 두 아들과는 다르게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올바르다. 올바름을 넘어 종교적인 의미의 ‘고결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작품을 읽는 내내 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콩가루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위의 세 인간상과는 달리 그는 주변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일이 당연했다. 이렇게 받은 사랑과 선의를 기꺼이 다른 이에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형들을 선뜻 도와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존경하는 장로님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아버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부를 위로했다.

내가 이 소설을 통해 받아들인 바는 도스토옙스키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카라마조프가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장을 다 덮고 난 뒤, 내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은 속된 표현으로 ‘지랄 났다’였다. 후반부에서 인물들이 보여준 참회의 모습이나 화해, 용서는 내 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소설 전반부에서 등장인물이 보여준 비도덕성과 배신, 욕망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 하나는 죽었고, 첫째는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째와 첫째의 약혼자는 눈 맞아서 미국으로 나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참회하고 ‘선량하게 살아갑시다’라는 결말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나는 그저 ‘그래서 개는 언제 출소한다고?’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드미트리의 출소일과 더불어 내 머릿속을 채운 다른 생각은 돈과 여자만 조심해도 인생이 꼬일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여자로 인해 뉴스에 이름 석 자 올린 남성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나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남성들의 필독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내들이여, 눈을 들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아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여자를 조심해야 함을 깨닫길 바란다. 사실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더 적합한 표현은 ‘하반신’ 일 것이다. 그들의 인생이 비극이 된 이유를 여자에게서 찾는 것은 다른 이를 탓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에 이름 석 자 올린 사람들은 본인들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자업자득을 맛봤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남성들이 자기 신체 중 일부분에 의해 지배당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욕욕을 쫓아 살아가던 카라마조프 집안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Man이여, 눈을 들어 카라마조프가를 바라보아라. 자본주의 내 우리는 언제든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생의 제1가치로 삼았던 표도르, 혹은 이보다 더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다 읽은 당신이여, 부자가 된 표도르의 인생이 부러운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돈만을 쫓아가는 그의 삶을 보며 부러움보다는 악취가 심한 시체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결국 그렇게 살던 표도르는 소설 속에서 시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장남 드미트리를 보며 남의 돈에 손대지 말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빌리지도 말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투자라는 명목하에 분수에 넘치는 돈을 빚진단다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3,000 루블을 갚지 못해서 발목 잡혀 전전긍긍하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게 된 카라마조프가의 장남을 기억해야 한다. 이 소설을 읽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은 빌리지도, 탐내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을 굳이 옥살이를 통해서 겪어봐야겠다는 말리지는 않겠다.

최고 시청률 43.3%를 기록한 KBS 드라마의 제목, ‘가족끼리 왜 이래’가 생각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표도르와 드미트리처럼 산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게 재물보다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욕욕을 건강하게 다스린다면 적어도 가족끼리 법정에서 생사를 확인하거나 믿었던 이에게 칼부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시사점은 위의 것들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식견이 부족하여 다시 읽어도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종교성이나 당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재물욕과 성욕 다스리기를 권장하며 이 글을 마친다.

교지 서강

2023년호 봄
84호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조선

글 다운

I. 머리말

요즘 웹소설 시장에서는 단연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유행이다. 인기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지의 10월 월간 랭킹을 보면, 1위부터 50위까지의 웹툰 및 웹소설 중 26개의 작품이, 특히 1위부터 10위까지의 작품 중 7개가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작품이다.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이 대부분 웹툰화되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는 짐작할 만하다. 이런 로맨스 판타지 소설은 대부분 중세 혹은 근대 서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중에는 진지하게 고증하는 작품도 있고, 가볍게 배경만 따라가는 작품도 있다. 또, 동아시아의 문명권을 배경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가짓수가 적다. 이 글에서는 중세 혹은 근대 서양을 ‘가볍게’ 배경으로 삼은 소설에서 얼핏 스치는 ‘조선’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에 대하여 다양하게 갈리는 평가와 별개로, 조선 사회의 유산이 아직도 한국 전반에 만연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인의 무의식에 자리한 조선이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라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가장 흔하고 중차대한 설정으로 대부분 ‘북부 대공’의 존재를 꼽는다. 첫째로, ‘북부 대공’의 존재와 조선을 연결 지을 것이다. 둘째로,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공고히 자리 잡은 신분제를 ‘충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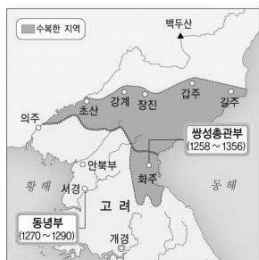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작품을 선택하여 다루기보다, 웹소설 시장의 독자들이라면 흔히 접하는 설정과 개념을 다룰 것이다. 따라서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읽는 독자라면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일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접한 적 없는 독자이더라도, 이 글을 통해 로맨스 판타지 소설과 조선에 모두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II. 북부 대공, 이성계.

이성계와 ‘북부 대공’의 연관성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북부 대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흩어진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외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도, ‘북부 대공’은 차갑고 고압적인 느낌이 중요하다. 한 국가의 북부라는 출고 고독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지역과 동화된 듯한 분위기와 그를 뒷받침할 무력-지력보다는 무력이 중요하다-, 재력, 권력 등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로맨스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엄친아’ 스타일의 주인공과는 정반대의 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나쁜 남자의 축에 속한다. 또한,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계 세력과 대립하는 동시에 이민족, 이종족, 타국 등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쟁의 까닭은 애국심에 있지 않고, 자기 영지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에 있다. 간혹 중앙 세력, 특히 황제나 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의 질투나 분노를 사서 척박한 북부로 보내지기도 한다.

그림. ¹



그럼, 이제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이성계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동북면에서 나고 자랐다. 동북면은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예종의 명에 의해 그 땅에 살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축조한 땅으로 알려졌다. 동북 9성을 축조하였으나, 여진족의 요청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돌려주었다. 이후 공민왕이 고려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한 1356년(공민왕 5)에 동북면은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다.

이 수복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이다. 이에 대하여 『태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환조는 명령을 듣고 즉시 <군졸과 말을> 함매(銜枚)하고 행군(行軍)하여 인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쌍성을 쳐부수니, ²

(『태조실록』 권1, 총서 25번째 기사.)

이자춘은 큰 공을 세운 후 1361년에 동북면 병마사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 이후 이자춘이 죽자 이성계는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아 동북면 일대를 관장하게 되었다. ³ 당시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자신만의 군사 세력을 키워나갔다. 1361년에는 압록강을 넘어온 홍건적을 격퇴하고 ⁴ 1377년 ⁵, 1380년 ⁶, 1385년 ⁷년에는 왜적을 격퇴하는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의 공통점은 이성계가 방비한 지역 대부분이 동북면을 비롯한 서북면, 압록·두만강 유역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역을 왜적이나 홍건적에게 빼앗긴다면, 이성계는 자신의 근거지를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보면, 이성계가 외부의 침입에 전력으로 대처한 까닭이 고려를 향한 충성이 아닌 자신의 근거지 방비하기 위함이다. 또, 이 지역의 행정 및 군사 체계는 고려의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다르다. 즉, 고려 왕실이 이성계의 세력이 위치한 동북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동시에 이 지역을 이성계가 사실상 관할하였다는 것이다. ⁸

이성계 개인의 무력이 출중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부 대공’에 대한 소설에는 보통 기사보다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조련하는 장면이 들어간다. 하물며 한평생 검만 휘두른 기사보다 그의 검술 솜씨가 더 뛰어나다는

¹ https://www.historing.kr/glossary/%EC%8C%8D%EC%84%B1%EC%B4%9D%EA%B4%80%EB%B6%80/81p_%EA%B3%A0%EB%A0%A4%EA%B0%80%EC%9B%90%EC%9C%BC%EB%A1%9C%EB%B6%80%ED%84%B0%EC%88%98%EB%B3%B5%ED%95%9C%EC%A7%80%EC%97%AD/

² 桓祖聞命，卽刻銜枚就行，與仁雨合兵，攻破雙城。

³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9월. 이성계를 동북면도원수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⁴ 『태조실록』 권1, 총서, 공민왕 10년 신축.

⁵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년 8월.

⁶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6년 9월.

⁷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9월.

⁸ 김명수, 『어말선조 이성계의 정치적 행보와 압록강·두만강 유역 여진족 지역사회의 동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22쪽

서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런 점이 이성계와 똑 닮았다. 비록 이성계의 주종목은 활이지만, 그런 사소한 요소를 제쳐 두면, 지방관 내지는 영주로서 요구되는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능력⁹보다 무예를 강조한 점이 닮았다. 『태조실록』 총서의 기록만 보아도, 이성계의 정치나 행정 능력보다 전공(戰功)에 치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태조실록』에 실린 이성계의 무위 관련 기사이다.

태조가 젊을 때, 정안옹주(定安翁主) 김 씨(金氏)가 담 모퉁이에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쏘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다섯 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¹⁰

(『태조실록』 1권, 총서 29번째 기사)

무릇 20번 쏘아 모두 이를 죽였으므로 도망하는 놈이 없었으니, 그 활 쏘는 것의 신묘(神妙)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¹¹

(『태조실록』 1권, 총서 30번째 기사)

범이 태조를 쫓아와서 말 궁둥이에 올라 움켜 채려고 하므로, 태조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이를 치니, 범은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태조가 말을 돌이켜서 이를 쏘아 죽였다.¹²

(『태조실록』 1권, 총서 31번째 기사)

태조가 환조를 따라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보고 빙판의 비탈길에 말을 달려서 쏘면, 번번이 맞히어 한 마리도 빠져 도망가지 못하였다. 야인(野人)이 놀라 탄식하기를,

⁹ 따라서, ‘북부 대공’이 남자 주인공인 소설에서 대부분 여자 주인공은 뛰어난 영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

¹⁰ 太祖少時, 定安翁主 金氏見牆頭五鳥, 請射之。太祖一發, 五鳥頭皆落

¹¹ 凡二十發皆斃之, 無得逃者。其射之神妙, 類如此。

¹² 太祖以右手揮格之, 虎仰倒不能起, 太祖回馬射殲之。

“사인(舍人)께서는 세상에서 당적할 사람이 없겠습니다.”¹³

(『태조실록』 1권, 총서 34번째 기사)

앞서 소개한 기록을 포함하여 『태조실록』 총서의 18개 기록이 이성계의 무예를 칭송하고 있다. 이성계 개인의 무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성계와 그의 집안은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 묘사하는 ‘북부 대공’과 유사하다. ‘대공’이라는 작위가 장르 내에서 공작과 황제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직으로 통칭하므로, 이성계가 그 정도의 관직을 역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내부의 개별 속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국가의 최북단, 가장 춥고 험준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또, 그 북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낸 점도 비슷하다. 여기까지 적으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왜 그런 특징을 하필 조선에서 찾았을까? 그런 공식을 유럽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갈 즈음 유럽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하던 가톨릭 세력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에 따라 약 200년간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 당시 유럽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11세기 초에 사라진 바이킹¹⁴이 아닌 이슬람 세력이었다. 북쪽에서 얇은 배를 타고 바다와 강을 누비며 도시를 약탈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힌 대신, 지중해를 타고 넘어오는 이교도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위에서 다른 세력이 남쪽을 침입해 그를 방비하는 서사는 바이킹의 침략을

¹³ 太祖從桓祖出獵, 見獸, 走馬水崖, 射輒中之, 無一脫去。野人驚歎曰: “舍人也, 天下無敵!”

¹⁴ 바이킹은 노르웨이계, 덴마크계, 스웨덴계로 나뉘는데, 유럽을 침략한 바이킹 세력은 덴마크계 바이킹이었다. 그들은 835년, 잉글랜드를 공격해 약 30년간 약탈하였는데, 886년 알프레드 왕이 간신히 남부를 회복하였고, 1069년에 노르망디 공국의 기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또 다른 세력은 845년 서프랑크(지금의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점령하였다. 당시 왕이었던 샤를 3세는 911년에 바이킹 세력에게 세느강 하류 지역을 할양하였는데, 그렇게 노르망디 공국이 탄생하였다. (심종성, 「[청파기행 No. 70] 바이킹 시대」, 『대한토목학회지』 70(1) (대한토목학회, 2022), 120~121쪽) 그러나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 바이킹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다.

끝으로 유럽 역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또 그 공격을 막아낸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는 정서는 한국 내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 조정 세력이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중심 세력에게 견제받는다는 점도 유사하다.

III. 충성스러운 기사(騎士)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 중 하나는 ‘충성’이다. 기사가 영주에게, 영주가 왕실에, 혹은 기사가 왕실에 충실하고 충직한 신하가 되기로 맹세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증명한다. 대개 남자 주인공보다는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또 다른 남성에게, 혹은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또 다른 여성에게 부여되는 설정이다. 그들은 대체로 작품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대상을 지키고 장렬하게 퇴장한다.

예를 들어, 북부 대공인 남자 주인공과 그의 충직한 기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기사의 성별은 따로 설정하지 않겠다. 이 기사는 남자 주인공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 혹은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죽는 순간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들은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보다 주군에게 충성을 바친 명예로운 기사로 작품에서 기억된다. 이런 방식의 사랑은 유럽의 봉건제보다 조선의 유교관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 작품은 기사들이 비록 사랑에서는 주인공의 경쟁자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충(忠)이라며 설명한다. 사전은 “임금이나 국가 따위에 충직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어쩐지 부족하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선 시대에 ‘충신’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그 개념을 짐작하고자 한다. 물론, 춘추전국시대 공자에 의해 시작된 유교인 만큼 ‘충(忠)’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길고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따라서 그 개념을 온전히 정의

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볍게만 훑어볼 것이다.

조선시대 충신으로 유명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정몽주나 계유정난 때 사육신 중 하나인 성삼문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되고 중요한 가치는 죽음이다. 마치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을 우리는 충신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개혁가 내지는 정치가로 기억되지만, ‘충신’이 아니었다.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새 나라를 거부하고 죽은 정몽주와 기억되는 방식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가진다.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 곳곳에서 그들이 추구한 가치를 뚜렷하게 읽어낼 수 있다. 다음은 단심가의 한역본 전문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¹⁵

죽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몽주는 이 시를 읊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계획하던 이방원(훗날 태종)의 손에 죽고 만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다. 그럼에도 그를 충신으로 높이고 사대부들이 그의 절개를 칭송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포용력을 과시할 필요도 있었지만, 정몽주를 위시함은 그들이 가졌던 “충(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이었다.

성삼문의 일화도 유명하다. 성삼문은 1438년, 2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집현전 학사에 발탁되었다. 특히 동료인 박팽년, 신숙주 등과 함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하였는데, 그를 향한 세종의 각별한 총애를 확인할 수 있다. 성삼문은 이후 문종, 단종을 거치며 성리학에서 일컫는 충(忠)을 착실하게 실현하였

¹⁵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與之

는데,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오래 지나지 않아 숙부인 수양대군(훗날 세조)에게 양위하였다. 옥새를 세조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성삼문인데, 성삼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자 세조가 그를 노려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성삼문은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면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 고문을 받을 때에 세조를 ‘나리’라고 부르며 세조의 녹은 하나도 받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었다며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그에게 임금은 세종-문종-단종으로 이어지는 세 왕뿐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성삼문은 오래도록 역적이었다. 자신의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 등을 욕보일 왕은 없었기 때문에, 성삼문은 로부터 한참이 지난 17세기 송시열에 의해서 신도비가 세워지며 복권되기 시작하였다.¹⁶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음이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여 큰 공을 세운 인물도 많지만, 우리가 주로 강렬하게 기억하는 대상은 죽은 사람이다. 앞서 살펴본 정몽주와 성삼문처럼 말이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충성스러운 인물의 결말이 대부분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조선에서 찾은 이유는 비슷한 개념을 유럽중근세사에서 찾기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사에서는 더욱 찾기 어렵다.

유럽이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대륙은 로마 이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동유럽에는 비잔틴 제국이 있었지만, 서유럽에서의 국가는 더 더욱 여러 영지가 뭉쳐 만든 하나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다. 서로마 멸망 직후 들어선 민족의 민족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였는데, 동아시아와 달리 그들은 유산을 자신의 모든 자식-당연히 남자에 국한한다-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주어야 했다.

예를 들어보자면, 프랑크 왕국은 한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 걸치는 커다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성기를 이룩한 샤를마뉴 대제 사후 세 아들이 이 나라를 쪼개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 1개의 국가가 순식간에 3개가 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세 아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국가를 쪼개어 주고, 또 쪼개어 주었다. 하나의 국가가 성장하기란 불가능한 전통이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 우리가 아는 국가들이 탄생하는데, 이들은 모두 봉건 국가였다. 왕과 영주, 영주와 기사는 이른바 쌍무적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거래할 뿐이지, 충심으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었다. 왕은 영주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영주로부터 일정한 세금과 전쟁 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는다. 영주는 기사에게 또 영지를 나누어 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세금과 군사력을 약속받는 식이다. 물론, 서양에도 충성 맹세나 서약식 등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에 가깝을 뿐, 조선의 사대부가 가졌던 성리학적 충성과는 의미가 달랐다.

중세 이후 수립된 절대왕정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영국의 절대왕정으로는 보통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를 꼽는데,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제임스 1세가 즉위하자 왕과 귀족 사이에서 이미 분열이 발생하였고, 이는 명예혁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다. 루이 14세를 거쳐 루이 16세까지 이룩한 절대왕정의 권력은 프랑스혁명 이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 역시 그 권세를 오래 누리지 못했다. 독일은 애초에 통일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서유럽의 전반적인 상황은 500년간 중앙집권적 국가를 유지한 조선과 사뭇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드러나는 충성, 그리고 그 충성에 기반을 둔 주인공들의 힘은 서양사가 아닌 조선에서 찾아봄이 마땅하다.

¹⁶ 자세한 복권과 추송 과정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김문준, 「한국사상(韓國思想)철학(哲學) : 성삼문의 복권과 추송」, 『한국사상과 문화』 8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183~210쪽.

IV. 맺음말

지금까지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볼 수 있는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서양, 특히 유럽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성계와 '북부 대공'의 연관성, 기사의 '충성'을 다루었지만, 그 밖에도 재미난 요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왕이나 황제는 늘 열심히 일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영주들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유럽사를 보면 군주는 크게 공부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영주들은 말 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 죽어라 공부하고 일하는 그들의 면모는 어디서 왔을까. 예상대로, 역시 조선이다. 왕의 일과를 보면 하루에 대소신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만 3번이다. 스스로 경전을 읽고 자신을 수양해야 함은 당연하다. 사대부라고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다. 공부는 자기 증명이자 출세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부했던 시기가 조선이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서 조선 찾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요원한 일이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문화와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적 요소의 융합을 부드럽게 수용한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처음 읽어보는 독자는 낯선 세계에 떨어진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다. 작가는 독자에게 우리가 사는 세계와 확연히 다른 로맨스 판타지 소설만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므로 작품에 그러한 요소가 녹아들 수밖에 없다. 혹은 작가 무의식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작가와 독자 모두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조선스러운' 요소가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나중에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볼 때에 작은 재미를 더해주기를 바란다. 이 글이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서 조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님을 다시금 명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요소를 찾는다면 그것도 독자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2010년대 초반 교지인의 고민 : ‘시사’와 ‘담론’ 사이에서

글 김일부러(필명)

교지 ‘서강’ 출신의 필부(匹夫). 마감노동자로 살고 있다.

서강대 정문을 지나 본관 방향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면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나타납니다. 현재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자리에 있던 C관입니다. ‘Student Council(학생회)’의 C를 딴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베르크만스 우정관처럼 학생자치기구가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교지서강편집위원회는 이 건물 219호에 있었습니다. 뭐라 묘사하기 어려운 모한 녹색의 철문을 열면 늘 그 자리에 있던 교지라는 ‘곳’과 거기 얹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지를 제작하면서 했던 고민, 거기서 만난 인연 덕에 지금도 제가 ‘글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C관도 사라졌는데...

일개 필부로 사는 졸업생의 구구절절 회고담을 귀한 지면에 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필자의 기억 속 C관과 교지실 풍경을 상기한 이유를 해명해야겠지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물처럼 이른바 대학 사회의 모습도 확확 바뀐다는 점을 새삼 짚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지 기고를 요청받았을 때 떠오른 걱정은 “내 글이 2023년 지금의 교지와 독자들에게 어떤 현재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 풍경이 달라진 것 이상으로 대학 사회가 존재하는 양상과 구성원의 고민도 크게 변했을 터입니다. 오늘날 대학생의 현실에 어두운 문외한으로서 어설픈 조언보단 직접 경험한 대학 사회, 학내 언론의 고민을 담백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2012~2013년 교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약 10년 전 학생이자 대학 사회의 관찰자로서 교지라는 매체에 대해 품은 고민을 정리해 독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중에 지금의 학우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날카롭지 못한 주제의식 탓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저 2010년대 초반 서강의 단상 정도로 읽혔으면 합니다.

제가 ‘수습편집위원’으로서 처음 들어갔을 당시 교지엔 크게 ‘대학부’와 ‘사회부’ 두 취재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 독자는 “당신의 라떼 타령은 더 이상

읽기 싫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당한 항의입니다만 글쓴이의 빌드업에 좀만 더 속아주시길. 당시 교지 조직 구성과 신입 구성원을 맞이하는 과정엔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성원을 ‘교육’ ‘훈련’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되면 수습 자격을 면했고 △주된 취재 대상·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를 뒀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교지에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체계는 제도권 언론을 본뜬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수습제도, 취재부서 제도는 저를 포함한 당시 교지 구성원의 논의 끝에 폐지됐습니다. 각각 ‘불필요한 위계질서의 잔재’ ‘취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도 vs 비평?

여기서 말하려는 건 교지 안의 조직, 제도의 개폐 자체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교지는 취재·보도 기구로서 정체성이 강하게 있었다는 점을 짚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과도기의 교지엔 크게 두 가지 사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학내·외 사회의 시사 이슈 보도에 방점을 두자는 흐름과 담론 생산 및 소개를 정체성으로 삼자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를 각각 ‘시사지(時事誌)’ ‘담론지(談論誌)’로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사지는 국어사전의 말뜻 그대로 ‘당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글을 모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내는 간행물’입니다. 시사 잡지라 해도 좋겠습니다. 담론지는 당장 사전엔 없습니다만, ‘특정 이론·사조를 소개하거나 이를 현실에 적용해 분석하는 간행물’ 정도로 이해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전자는 팩트 보도, 후자는 의견 전달 및 비평 위주라는 취지입니다.

굳이 시사지, 담론지라는 단어를 빌리진 않았지만 교지 활동 내내 저는 그 비슷한 듯 다른, 이질적인 듯 닮은 두 가지 길에서 고민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교지 선후배, 동기들도 저마다 매체관이 달랐습니다. 일단 당시 저는 “대학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언론이라면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사명감(혹은 뜻 모를 ‘근자감’)에 걸맞은 기사를 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고 자평해봅니다.

논의를 다소 거창하게 확대해보면 이런 고민은 한국 사회 언론계에서도 현재 진행형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매체가 드라이한 팩트 보도와 거대한 담론 제시란 덕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에서 모범 답안이란 보기 1, 2번을 취합한 ‘제3의 길’이기에 대체로 그 둘을 적당히 섞는 혼합 노선이 자리 잡은 듯하지만요.

교지라는 매체의 역사를 봐도 시대에 따라 그 기조가 달랐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교지실 책장에 꽂힌 옛 교지를 곧잘 읽곤 했습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있는 학우는 로올라 도서관에 소장된 옛 교지를 읽어보시길. 재밌습니다) 이때 경험에 비춰 수십 년 교지란 매체의 흐름을 ‘감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창간 후 1970년대까진 학술적 성격의 소논문, 시·소설 등 문학작품과 비평이 상당히 비중 있게 실린 듯합니다. 교지가 예나 지금이나 ‘편집국’이 아닌 ‘편집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예동인지(同人誌)나 학술지와 같은 정체성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학생운동이 격화하면서 대학 언론도 ‘투쟁’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분석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학내·외 사회 고발을 위주로 하는 시사지로서 교지의 성격이 강해진 것 아닐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느 매체가 그렇듯 교지의 성격은 대학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취재의 힘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뭐냐”고 말입니다. 식상할 수 있지만 저 나름의 해답을 정리하자면 “시사지든 담론지든 중요한 건 유익한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취재” 정도입니다. 굳이 교지의 틀이나 성격을 따부러지게 규정하기보단 유연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체 성격이 무엇이든 탄탄한 취재가 밑바탕에 있어야 독자에게 유용하고 재밌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엄밀한 중립이란 없지만, 성실한 취재가 있어야 읽는 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언론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현업에서 베테랑으로서 경험을 쌓은 건 아니지만, 저는 취재에서 재미와 감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는 기자뿐 아니라 소설가, 만화가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이의 덕목 아닐까요.

시바 료타로(司馬 遼太郎, 1923~1996)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습니다. 신문기자로 일하다 소설가로 전업해 일본 대하소설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료마가 간다’ ‘울빼미의 성’ 등 작품이 유명합니다. 침략 전쟁으로 치달은 일본 쇼와 시대에 대해선 날을 세웠으면서도 그 이전 메이지 시대는 미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 그의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취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는 시바의 필치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대하소설도 엄연히 픽션이고, 시바는 자기만의 주관적 인물상을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방대한 자료에 기댔기에 시바의 소설은 생생하고 흥미롭습니다. 그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집필할 때면 트럭 한 대 분량의 자료를 미리 모아 탐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장 답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뿐 아니라 소설가로서도 취재는 시바가 재밌는 작품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겠지요.

저의 대학생 시절 “대학 사회가 위기다” “학내 언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지금 교지를 제작하는 분들은 그때보다 더 목록치 않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지 83호에 실린 ‘포스트-객관주의 : 근대 언론의 객관주의와 탈근대 미디어 환경 사이의 간극’ 제하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남의 글을 평가할 처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교지인(人)들이 언론과 매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구나 싶어 반가웠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최선

졸업 후 지금까지 교지를 모두 속독하지 못했기에 예단하긴 어려우나, 최근 교지는 담론지로서 성격이 강해진 듯합니다. 이런 변화는 시대상을 잘 반영하면서도 교지라는 매체의 강점을 잘 살린 것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서강을 사는 이들이 내린 선택이 최선이자 최적입니다. 적어도 지금, 바로 여기에선 말입니다. 필자 같은 퇴기(2010년대 초반까진 교지에서 활동하다 물러난 이를 ‘은퇴한 기수’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가 쓴 이 글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자 낫두리일 따름입니다. 2023년의 서강 구성원, 특히 교지서강편집위원회의 건승을 빕니다.

교지‘서강’이 지켜보고 있다

글 박성동 (신문방송, 11)¹

¹ 다섯 학기 교지에서 일했다. 3년 가까이 지역방송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사표를 냈다.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인 흉내를 내는 것 같았다. 1년 넘게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다.

한 코미디언의 서강대 방문이 불허됐다. 청춘의 삶을 위로하겠다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가 취소됐다. 전국 40개 대학교를 순회하는 행사였다. 서강대를 제외한 39개 학교에서만 열렸다. 코미디언은 김제동. 행사명은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 불허 이유는 ‘김제동 콘서트는 정치적 활동’이고 ‘이런 활동을 허용하면 학교에 정치가 난립할 수 있다’였다. 2012년의 일이다.

이유야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곳은 평화재단이었다. 안철수의 멘토인 법륜스님이 이사장이다.² 정치인 안철수의 등장과 대통령 선거 출마 암시가 그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강대 출신이자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협적이었다. 12월이면 대통령 선거였다. 11월로 예정된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를 학교 본부는 정치활동으로 해석했다. 학교 밖에서는 비아냥과 조롱이 쏟아졌다.

정치, 배달, 술 출입 금지

학교는 ‘규정’까지 동원했다. 학칙 제88조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³ 규정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 학교는 “민감한 시기이니 이번에만 양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몇 발 더 나가 “원래 이렇게 해왔다, 이게 맞다”고 말하는 셈이었다.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했다. 토크콘서트가 정치행사라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데, 대학에서 정치는 출입 금지라니.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7년 68개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인권 침해라고 발표했다.⁴ 학내외 장소의 문제를 떠나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양심과 표현,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² 대선 뒤 법륜 스님은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로 단일화했어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법륜스님 “이기는 선거, 문재인 단일화로 졌다”> / 한겨레 / 2013.01.13

³ 서강대 학칙 제23장 학생활동, 제88조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⁴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07.03.06

또 이런 기본권 제한을 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데다, “정치활동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의 조치에 호응했다는 점이다. “아직 정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편중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강연을 민감한 시기에 허락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⁵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이라는 인권위 입장과 배치됐다.

마침 비슷한 시기 몇 가지 사건이 겹쳤다. 학교 본부가 이른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캠퍼스 안에서 배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⁶ 학교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서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통제했다. 배달 기사들은 남문을 통해 철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몰래 들어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술과 담배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대학교 안에서 음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안 돼, 배달 음식 안 돼, 음주 안 돼’는 마치 ‘공부만 해’라고 하는 듯했다. 중등학생 다루는 듯한 대우에 총학생회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운동을 벌였다. 축제 기간도 아닌데 학교에서 공연을 열었다. 보란 듯 캔맥주를 무료로 풀었다. 요구 사항을 네 가지 걸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칙 88조 폐기가 1번이었다.

5 교지‘서강’ 64호(2012년) 17p. <88조항 세대?>

6 당시는 ‘배달의민족’이 없었다.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배달 기사를 고용했다. 배달용 식기도 일회용이 아니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남은 음식과 빈 그릇을 문 앞에 내어놓으면 배달 기사가 1시간쯤 뒤 다시 나타나 회수해 가는 식이었다. 음식을 쓰레기나 일회용 식기 처리 관련 문제도 없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뜻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붙었다. 가스가 가득 찬 방에서 성냥을 켜 듯했다. 총학생회는 ‘중립을 말하는 학교야말로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거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제동의 토크콘서트가 ‘안철수 선거운동’이라는 믿기 어려운 전제는 모두 동의하는 듯 놀랍게도 그 진위가 논쟁거리는 아니었다.⁷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권리와 의무, 각각의 주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기관과 그 업무 수행자인 교육자가 ‘민중중흥의 역사적 사명’ 같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피교육자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의무, 규제일 뿐이다.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할 권리의 주체인 사람, 학생에게 지워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업이든 행사든 정치인 초청과 강연, 토론은 그 이전에도 항상 있었다. 정치적 중립의 주어는 학교이고, 학교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일 수는 없다.

학교가 모든 행사의 학내 개최를 무한정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캠퍼스는 사유지이고, 관리주체는 학교 본부다. 학교법인의 재산, 기물을 외부 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간 사용은 당연히 허락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지 학생에게 정치적이란 이유로 금지한다면 합리성 문제를 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7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학교에서 이뤄진 토크콘서트를 듣고 정말 ‘안철수 선거운동’인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 기사를 썼을 것 같다.

교지에서 활동할 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권리와 의무 주체 구분, 기본권 침해 같은 법리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쓰지는 않았다. 그보다 이런 경향을 ‘탈정치’로 이해했다. ‘레드콤플렉스’처럼 학생들이 정치라는 단어를 겁내거나 혐오하기 때문에 학교의 결정에 동조한다고 생각했다. ‘총학생회는 너무 정치적’이라거나 ‘정치 참 좋아하네’ 같은 비판, 대선이 다가오면서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등 정치 과잉에 싫증을 내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기 때문이다.

정치혐오, 탈정치의 함정

탈정치는 해악이 크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였을 뿐이라며 탈정치 시키고, 이태원은 압사 사고였을 뿐이라며 탈정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뻘을 짐작할 수 있다. “답론이 실종되고 공중이 해체될 때, 즉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큰 정치’를 잃을 때 (세력만 키우는) 작은 정치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박대할수록 똥물이 됩니다. 공적인 가치를 사적인 이익으로 돌리는 데에 일조합니다. 이것이 탈정치의 함정입니다”라고 썼다.⁸

탈정치 현상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 교지‘서강’이 2012년 서강대생 183명을 상대로 설문했다. “대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투표나 선거를 제외한,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혹은 집회, 시위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⁹ 설문조사는 질문과 답변 예시 문안에 따라 같은 취지의 조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결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당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조사된 4명 가운데 1명은 학생의 정치 관여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⁸ 교지‘서강’ 64호(2012년) 29p. 〈학생회, 연대체, 그리고 정치〉

⁹ 교지‘서강’ 64호(2012년) 59p. 〈운동하는 보수〉

〈남영동 1985〉와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은 “어느 영화전공 대학 강의에서 〈남영동 1985〉에 대해 한 학생이 ‘영화가 이렇게 정치적이어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학생이 그 학생의 논리에 동조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⁰

이득과 발전?

총학생회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운동을 벌였을 때 반대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하라는 학내 정치는 안 하고’를 표어로 대자보를 붙이고 나섰다. 학교 밖에서 시위 하러 다니지 말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주도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를 찾고 이해당사자 사이 의견 차이를 조율해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에 혐오나 두려움, 반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반대편에 선 학생들이 요구한 이른바 ‘학내 정치’랄 것이 발전이나 개발일 뿐이었다. 당시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서강사랑방’에 올라온 비판 글을 들여다보면 개통을 앞둔 ‘서강역’의 이름을 ‘서강대역’으로 바꾸는 데 총학생회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나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는 ‘성균관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데 이런 활동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총학생회를 선출한 이유는 개개인이 하지 못하는 서강의 이득과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는 것” 같은 문장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학생회가 어용노조 같은 관제단체라도 돼야 한다는 것일까. 당시 학생회관(베르크만스 우정원)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총학생회가 학교와 협상에 나서 5개 층으로 계획된 MOT 대학원 공간

¹⁰ 〈정지영 감독 “젊은층 탈정치로 한국 미래 걱정”〉 / 경향신문 / 2013.01.02

비중을 3개 층으로 줄이고 학생 공간 비중을 늘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의실이 부족하네 학교 발전을 위해 사랑할 일이나?’는 반응이었다.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다.

대학언론, 교지‘서강’의 가치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칙은 2014년 개정됐다.¹¹ 총학생회가 폐지를 요구한 지 2년이 지나서다. 왜 뒤늦게 고쳤는지 모르겠다. 교지‘서강’의 글 때문이라면 자의식 과잉이다. 언론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 웬만한 탐사보도에도 요지부동인 경우도 많다. 물증을 찾아 수사하듯 숨겨진 사실과 잘못을 저지른 인물, 기관을 고발하는 탐사보도가 아닌 일반적 보도는 직접적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은 공중을 형성한다. 그 공중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몰입도와 행동성은 미약할 테다. 그러함에도 보도의 상대방이 되는 기관으로서는 공중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보며, 기록물이 남고, 언제든 인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다.

더욱이 대학도 작은 사회라는 점, 그래서 등록금이나 교육노동자, 교육제도나 학생 주거권 같은 고유한 문제를 품고 있다는 점, 때로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대학이라는 프리즘을 거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공동의 목표가 뚜렷하고 단색인 다른 기관, 조직과는 달리 여러 담론이 중첩돼 드러난다는 점 등을 떠올리면 대학에서 언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의미 있는 대학 언론상 수상작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¹²

교지가 대학에 잔존한 운동권 문화의 2차 생성물이라거나 단지 개인적 관심사와 자기표현을 위한 문예집은 아니다. 대학 언론과 교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었다. 이렇게 자문하면 어떨까. 교지는 사라져도 되는가? 우리 사회에 언론은 이미 많다. 다른 학내언론도 있다. 역할은 다를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내외부 필진을 크게 늘려서 의견 저널리즘의 십자로를 만들거나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실의 검증과 발굴, 조합을 중심으로 분량 있는 기획취재물을 만들 수도 있다. 공적 관심사를 좇아 독자에게 더 가닿을 주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지가 없다면 손해를 보는 건 학생이어야 한다.

¹¹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¹² 전국 주요 대학교의 정치활동 금지 학칙과 주요 학생징계 사례를 조사했다면 좋은 기획취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제도 대상이다.

무용한 교지의 유용함에 대하여

글 송서현(철학 13)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교지 ‘서강’ 제69호 편집장을 맡았던 철학과 13학번 송서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교지 ‘서강’에 지원서를 쓴 지 꼭 십 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공강 시간에 틈틈이 자필로 교지 지원서를 써서 지금은 사라진 옛 학생회관의 교지실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러 갔던 2013년 가을의 저는 스무 살의 인문대생이었고, 지금 퇴근 후에 틈틈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서른 살의 노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고 요청이 고향으로부터 문득 날아온 편지처럼 다정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그 동안의 삶에 대한 반추를 통한 평가와 결산의 순간이 온 것 같기도 해서 무슨 글을 쓰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지에 가졌던 애정을 아는 주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꺼내 놓으니, 누군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교지 할래?”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저의 마음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1. 원체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여

교지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회의를 해야 하고, 학기 내내 글감을 고민하고 취재와 조사도 해서 글 한 편을 완성하고, 그 글을 서로 돌려보면서 끝없이 수정하고, 마지막에는 교지실에서 철야까지 해가며 토씨 하나까지 살펴 책 한 권을 엮어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시간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언제까지고 읽고 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을 뿐, 정확히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별로 큰일이 나지 않는 시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딱히 실용적으로 유용한 구석은 없다고 알려져 있던 세상 모든 것들에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끌리던 때였고, 그래서 나중에 교지 활동이 구직활동이든 무엇이든

어디엔가 ‘쓸모’가 되어주리라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학보사나 방송국은 잘 알아도 교지의 존재는 잘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딱히 누군가가 빛나는 모습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뭔가를 쓰고 싶었고, 글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호흡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 딱히 쓸모를 기대한 것은 아닌데

뭔가를 쓰고 싶었던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조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형태로든 부조리와 비극과 다툼은 늘 세상 어디엔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고 교지를 했을 때에는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젠더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어느 구석에선가 서로를 혐오하고, 싸우고, 죽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감정 때문에 쉽게 고통받는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조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썼던 글은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쓴 글이든, 제가 혼자서 써놓은 글이든 종종 제 능력과 의지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장해서 민망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글을 써 놓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노가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분노 그 자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무슨 말이든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때에 개인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가장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화두들을 갖고 공들여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고, 문을 열면 반가운 사람들이 저마다 뭔가를 하고 있던 교지실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같이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친구로 남았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시절이 귀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쓸모의

문법이 지배하는 현생에서 일종의 걸림돌(Stolperstein)이 되어주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1.
독일의 도보 곳곳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3. 살아남고 있습니다.

교지에서 보냈던 어떤 시간들을 지날 때에는, 지금 지나는 이 순간을 앞으로 잊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야 작업을 끝내고 교지실을 나와 산책하다가 새벽 기운이 남은 이른 아침에 청년광장에 잠깐 누웠을 때가 그랬습니다. 교지실에서의 때때로 평화롭고 때때로 치열했던 시간을 비롯해 추억도 많지만, 저에게 대학 시절은 포근한 낭만보다는 뱃속을 짝 조이는 불안과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먼저 떠오르는 시절입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의 후회를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많은 가능성이 모두 눈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어 당황했고 방황했습니다. 많은 분야에 얹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무엇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것을 크게 후회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곳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었고, 당연히 전공을 살려 취업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지를 하면서 ‘주휴수당’이니 ‘노동조합’이니 ‘불법 파견’이니 하는 용어가 시나브로 귀에 익었을 뿐 진지

하계 이쪽 길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여차저차 노무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학기가 끝날 무렵 신림동 고시촌으로 이사를 갔고, 졸업식에서도 간신히 사진만 찍고 바로 신림동의 학원으로 달려가며 학교와 황급히 이별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지냈던 수험기간을 지나왔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어쨌든 바라던 대로 읽고 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공은 살리지 못했지만, 종종 문장을 뜯어 보며 밤을 새워 글을 쓰고 고칠 때면 교지를 하면서 몸에 새긴 습관만은 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 누군가와 다투고 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저를 찾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갈된다고 느끼는 날도 있고, 제가 쓴 서면을 읽고 눈물이 날 뻔했다는 의뢰인의 말씀을 들으며 싸우고 편들고 지키는 이 일을 사랑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날도 있습니다.

4. 나가며

저는 이제 예전보다 모든 것의 쓸모를 더 고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몰래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지냅니다. 교지 '서강'이 캠퍼스가 텅 비었다던 몇 년을 지나면서도 아직 살아남아 주어서 다행이고, 그럴 수 있도록 교지에 남아 애써주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50년이 넘는 '서강'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교지인들이 앞으로 어디에선가 계속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서강청년문학상 「시」

김명진(철학 18)

멧비둘기

멧비둘기에게 세상은 진자운동이야
그들은 고개를 앞뒤로 저으며 세상을 목격해
그러곤 서서히 고갯 뒤로 돌려 나를 쳐다보더라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뒤의 무언가를 본 듯싶었지
나는 멧비둘기 너머의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말야

이건 말하자면 시의 첫 소절이자 소설의 도입부 같은 것
내가 왜 세상을 미워했고 그 천진난만을 사랑했나 싶은
으깨진 연필 자국이 새끼손가락에 번진 얼룩 같은 이야기

명문대를 가겠다고 공부에 몰두하는 당신의 열아홉
기분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만지는 당신의 예순여덟
버스 정류장에서 보사노바를 듣는 당신의 스물다섯

상상은 새침이 튀어나와 귓가에 울리는 얼룩이었지
적막을 깨는 울음이 우리에게 사이렌이었던 날
세상은 흔들려 한 법칙이 다른 법칙에게 와락 안겨버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해지는 날엔 무슨 말을 할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엔 미안을 적을 수 없고
흐릿한 시인이 흐릿한 시를 써 서두에 헌정하기로 할 때

지구는 더이상 앰블런스에 들어가지 않고
청년이 세차게 우산을 접으며 물방울을 피워내는 순간
튀어 올랐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향하는 저 투명함을 봐

우리는 표정이 없었기에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당신에게로 향하는
그해 여름은 멧비둘기에게 여전히 진자운동이었던 거야

우주인

너는 우주복을 입고 전시회를 걷지

우주복은 남떠러지 앞 작은 세상
헬멧을 벗으면 바로 죽어버릴 거면서
너는 아주 도도히 유명을 하지

헬멧 뒤 민낯 대신 겹쳐 비친 내 모습
웃겨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표정아
당장이라도 낙하할 시야에 날 담고

있잖아 사실 그 누구도 널 보지 않았어
그저 우주복을 보고 있었던 거지
최선을 다한 투사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

소나기가 내려 모두가 어둠으로 달려갈 때
너는 아주 당당히 빛속을 유명하고
한숨을 놓고 돌아왔다며 빈 집서 TV를 켜다

우주에 갔을 때 어땠어,
거긴 모든 게 가벼워 낙하 없는 세상이었어
지구는 어땠고?

이곳은 이상해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져

사람을 안고도 하루 종일 날 수 있었어
내가 말끝을 떨구고
고지서와 영수증을 놓치며
행운의 상징으로 아껴둔 만 원을 만지작거릴 때

달을 향해 깃발을 꽂겠다며
뛰어내린 그 선택이

그 선택이
행복을 찾으러 떠난 결정이었던 거지?

가난은 그렇게도 만들어진다

하나의 심장을 돌이 느끼는 일
연인의 박동을 들으며 내가 잠에 들고
갓난 아기인 내 손을 잡고 엄마가 잠에 드는 일

엄마는 럭셔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앞집시에 담긴 뼈를 깨끗이 씻어 버린다

뼈가 아플 땐 말야
뼈와 설거지통이 같은 소리를 낸단다

규칙적인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다

사라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법이라 했나

달력엔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다
예전 달을 뜯어 버리고
새로운 달의 향을 맡으면

가난은 그렇게도 만들어진다

*

어느 시장 초입을 서성이며
나는 이렇게 증얼대고 있다

편한 신발 구두 우동
짜장 패션잡화 기능성 의류
럭셔리 해외 명품

다 떨어져가는 간판에 걸린 렉서리
저게 렉서리면 내 삶도 백화점에 걸리겠네
나는 가판대에 놓여 손때 묻은 신문의 표지 같아

*

밖이 19도인데 에어컨을 24도로 틀고 있는 사람
서둘러 뛰어가 벼룩시장 전화번호를 적는 사람
연인에게 줄 편지를 시집 표지에 적고 있는 사람

그들 모두가 집으로 가는 길의 끝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자꾸만 늘어난 티셔츠처럼 밤하늘을 본다

거기엔 아무 진리도, 사랑도, 하다못해 호홉기도 없는데
계시 같은 구원을 기다리듯 빛나는
도시의 전광판을 자꾸만 유심히 본다

이제
거리에는
거짓된 자유와 고독만이 내려앉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나

밑천을 다한 어른처럼 울고 싶어지는 마음
아, 당신은 거기 남아 있지 말아라

아홉 살 어느 봄을 떠올리며
엄마도 그랬겠지, 라며 되짚는 마음이 있다

청년문학상 시 심사평

박슬기(문학평론가)

27명이 정성스럽게 쓴 응모작을 앞에 놓고 망연한 마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고르고 장단점이 선명해서 당선작을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멧비둘기」를 당선작으로 선정합니다. 첫 구절이 인상적인 이 시는 독특한 시선과 참신한 표현으로 익숙한 세상을 새롭고 낯설게 부조합니다. 다소 상투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같이 응모한 두 편 역시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들노트」도 최종까지 고민했던 후보입니다. 이 시는 택시 기사 수다가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승객이 울고 있어서 괜히 떠들어보는 추억과 경험에 얽혀있는 위로는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에게 건네는 하나의 세상이 아닐까요. 같이 응모한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감성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을 말끔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작품에 대해 짧게 평을 남기려고 합니다.

「수심」(외 3편)은 각 시편의 마지막 연이 인상적입니다. 우울함을 가볍게 튕겨내는 이 위트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언어들이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성기」(외 3편)은 나와 너 사이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고, 「비대면」(외 2편)은 일상화된 순간을 유머러스하게 변형하는 재치가 돋보입니다. 「겨울의 열기」(외 4편)는 의미 없이 길어지는 구절이 많으니 압축의 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반대로 「아버지」(외 2편)는 간결함의 추구가 풍부함을 놓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반짝이는 표현들이 없지 않지만 상투성을 극복해야 하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시작」(외 3편)은 고유한 어법을 발견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폭죽 터뜨리기 좋은 날」(외 4편)은 물방울을 폭죽에 비유하는 등의 참신함이 있고, 「오뉴월」(외 2편)은

계절의 느낌을 자기화하는 점, 「세 사람」(외 2편)은 이미지가 선명하다는 점, 「형벌」(외 2편)은 야생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점이 좋지만 모두 상투적 표현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소년아」(외 4편)은 자전적 형상을 일관되게 창조하는 점은 좋으나, 소년에게 감정적으로 밀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장마」(외 2편)과 「재활일지」(외 4편) 역시 외로움과 슬픔을 선명하게 이미지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감상과 연민을 덜어내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시적 정련은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파도」(외 2편)은 대화적 구성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구성이 그려내는 풍경이 모호합니다. 모호함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시포스」(외 8편)은 서술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설명적 경향이 강합니다. 서술과 시는 멀지 않지만 설명과 시는 법니다. 「Da capo」(외 2편)는 고어투가 이색적이지만 다소 작위적인 측면은 덜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풍기」(외 2편)나 「부도체」(외 2편)는 격언을 나열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좋은 말도 모아두었을 때 좋은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Blue moon」(외 2편) 역시 우화와 장엄한 어조가 시의 개성을 형성하고 있지만, 과잉된 언어들이 과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된 것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1-」(외 2편)은 일상의 모순적 운동을 포착하는 힘이 있지만, 운동의 표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외 3편)과 「가시」(외 5편)의 경우 소품적 성격을 지닌 여러 편보다는 공들인 한 편을 써보는 것이 좋겠고, 「비누방울」(외 3편)은 동화적 풍경을 그려내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의 관찰에서 새로운 발견에 이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기차역」(외 2편)은 일상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언어로 전이되는 점은 좋으나 소박하고 평범한 발화로 제시된 점이,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는데」(외 2편)는 경쟁적인 세상에서 느끼는 방향을 시화하고 있으나, 다소 예상가능한 언어로 되어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청년문학상 시 수상소감

‘포기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불우함이 때때로 아름답게 보여야만 살 수 있을 듯싶었습니다. 그즈음 작문을 시작했고, 어느 지면엔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제 글이 담긴 지면을 숨의 권역으로 갖고 삽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제가 저 자신으로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제게 시는 숨의 흔적이었고, 사회는 상처-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환자라고 믿었습니다. 한 환자가 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지탱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뿐인데, 제 숨이 타자들의 말이 됐고, 그들의 감정이 제 언어를 새로이 낳았습니다. 제 언어의 한계를 그토록 아득히 뛰어넘은 마음들이 곧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코 저는 혼자 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모든 분의 목소리 덕분입니다. 꾸준히 적어 온 제 글을 사랑해 준 소중한 독자님들, 부족한 제 글을 항상 믿어 주고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준 학우님들, 그리고 제 시가 좋다고 필사해 주던 사람까지. 저는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글을 적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친애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서강청년문학상 「소설」

김지연(종교 22)

손백박수

박수는 파괴라고요.

그렇게만 말했습니까?

손백이 얼얼하지 않으면 그건 박수가 아니지요.

그런 태도로는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변호사는 탁상달력을 응시하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연초와 인스턴트 블랙 커피 향이 섞여 거뭇한 냄새가 나는 입으로 그는,

내일 중에 전화 드리죠. 받으셔야 해요.

끝까지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만 달짝거리는 바람에 나도 겉옷을 느긋하게 챙겨 나왔다. 애초에 이길 생각도 없는 재판이었다. 아니, 애초에 김민섭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찾아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영이었다. 선임료가 적당한 변호사를 구했다고 주영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난 사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그니까 너는, 암전히 학교나 다니지 왜-“

얼굴이 시뻘게진 주영이 우리 집 현관문을 사정없이 두드린 날, 문을 열고 들어와 너 미쳤냐며 애꿎은 벽에 발길질을 한 날 난 무슨 말을 했더라. 아, 동갑인 주제에 또 고모 노릇을 하려고 나서서 짜증을 냈던가. 그날도 난 어김없이 침대 한구석에 앉아 빛을 쬔고 있었다. 지방 소도시의 값싼 단칸방에 빛이 드는 시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벌금이나 재판, 변호사 따위의 문제는 오후 5시의 쥐구멍만 한 창문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반쯤 열어 둔 레이스 커튼 사이로 진한 노을빛이 흰 이불 위로 스며들거나 바닥에 널브러진 맥주캔에 경쾌하게 부딪혔고 나는 이따금 그 위에 손을 올려보며 소박한 일광욕을 즐기곤 했다. 한참 흥분에 차 있던 와중에 침대 옆에 떨어진 충전기를 밟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주영이 그날따라 징그럽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여자는 누구야?”

오른발을 문지르며 침대에 걸터앉은 주영에게 나는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김민섭에게 돈을 준 주영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나 또한 이해받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그건 그저 유해한 율조림일 뿐이었다. 별이 방 안을 훑은 후 창틀을 가리킬 때쯤, 나는 린의 얼굴을 찬찬히 떠올렸다.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을 결심한 이유엔 열등감 밖에는 없었다. 8년 동안 나를 꾸준히 쫓아다녔던 그 열등감은 대학졸업장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겨우 졸업장이 신경 쓰였다면 집 근처의 적당한 학교에 등록했을 테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매일같이 안전모를 쓰고 철판에 구멍을 뚫으며 나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삶을 지독하게 부러워했다. 쓸모없는 대학에 다니며 지루한 수업을 듣고, 결국엔 손에 쥐어진 졸업장을 바라보며 허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장면을 매일 점심시간 입에 칫살을 물고 거울을 노려보며 그렸다. 공장 2층 화장실 거울에 학사모를 쓴 나의 모습이 꽤 선명하게 묻었던 11월의 어느 날 나는 일을 그만두고 모교에 가서 수능을 치렀다.

모아둔 돈으로 시간을 샀고, 그러자 돈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낯은 동네의 낯은 공간을 살 수밖에 없었다. 나름 읍내에 위치한 대학과 달리 내가 계약한 평화빌라는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는 허름한 골목의 한가운데 위치했는데, 골목을 벗어나면 막막할 정도로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빌라 3층이 내 집이었고 1층엔 주인네 가족이 살았다. 2층엔 부부가 둘이서 산다는 말을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집주인에게 들었는데, 그 부부를 만난 건 개강을 하고 한참이 지난 후였다.

대학 생활은 공장 거울 속의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5개의 수업을 들었고 그중 3개가 전공 수업이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최대한 교수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웹서핑을 하거나 잠을 잤다. 나는 매번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1시간 내내 속으로 교수의 옷차림을 비웃거나 말투를 흉내 내며, 드디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끼곤 했다.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술자리를

만들고 가끔은 나를 초대하기도 했지만, 20대 초반의 말끔한 학생들 사이에선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임이 분명했고, 그런 유의 감정들은 이미 질리도록 겪어본 탓에 딱히 내 흥미를 끌지 않았으므로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취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내려 두고 담배를 피우며 동네를 익히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린을 처음 만난 날은 아마 어린이날쯤이었을 것이다. TV에서는 어린이날 특집 방송이 끊이지 않고 방영됐지만, 그에 무색하게 노인이나 외국인만 사는 그 골목엔 언제나 적막뿐이었다. 빌라 1층 출입구 앞에는 다 해진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엔 세 명의 할머니가 해가 지기 전까지 앉아있곤 했다. 그들은 당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꼼꼼히 뜯어보며 멋대로 추측한, 혹은 깊은 연륜으로 알아낸 정보들을 가감 없이 내뱉었다.

모처럼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었다. 할머니들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오후 2시의 라디오에서는 어린이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고 나는 그의 서툰 문장들을 낯간지러워하며 출입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 별을 찍고 있었다. 소파의 맨 끝에 앉아있던, 보라색 양털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작게 속삭였다.

“베트남 새댁이네. 이게 얼마 만이야.”

할머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머리 위에 그림자가 드리우며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겼다. 양손에 각각 고등어와 사과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바로 린이었다.

린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쯤 녹아내린 눈사람 같았다. 그것도 얇게 쌓인 눈 위에서 굴린 탓에 군데군데 흙과 먼지가 묻어있는.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린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묻쳐 있었던 탓에 린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고, 수십 년간 농사일만 해온 사람처럼 그녀의 두툼한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다. 그렇다. 나는 린을 경계했다. 나는 (물론 조끼를 입은 할머니의 속삭임을 엿들어 대충

짐작했지만) 그녀가 한국인이 아님을 직감했고, 나보다 족히 20살은 많아 보이는 그녀에게서 웬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몸이 굳어 그대로 앉아있는 나를 뵈히 쳐다보던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갔고, 그날 저녁 우리 집 문을 두드려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2층으로 내려간 나를 린은 능숙한 한국어로 맞이했는데, 낯과는 다르게 화장을 말끔히 지우고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린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와 크기는 같았지만, 분위기만큼은 정말이지 판판이었다. 거실에는 좌식형 원목 탁자가 있었고 그 밑에는 크림색의 깨끗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방안에는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린 또는 그녀의 남편은 바닥에서 잠을 자는지 침대 옆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다가 어디선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데, 그 덕에 린의 집이 더욱 포근해지는 듯했다. 린은 저녁 메뉴로 고등어조림을 만들었다. 앞접시에 큼직한 생선 조각과 무조림을 덜어주며, 남편은 2교대 근무를 해서 새벽에나 집에 돌아오니 앞으로도 종종 함께 저녁을 먹자고 린은 제안했다. 나는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또 한 번 감탄하며 집에 쌓여있는 티백을 언젠가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린은 마치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처음에 나는 그 이유가 내가 린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파 할머니들에게도 매일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그건 그저 린이 이곳에서의 삶을 사는 방식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린과 나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친해질 수 있었다.

전화 왜 안 받으시나요. 팝 티 린이 입장을 바꿨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숨기고 있는 거, 빨리 말하세요.

주영이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는 그에게 수임료를 환불 받고 싶다는 말과 함께 주영의 계좌번호를 첨부한 후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나서 기차표를 예매했다. 짧았지만 대학에 다닌 기간 동안 꽤 여러 번 본가를 오고 갔으므로 예매 어플 첫 페이지엔 늘 평화빌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차역 이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린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어느새 검게 식은 공기로 덮인 방 안은 고요로 가득했다.

린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기차엔 승객이 거의 없었지만, 내 뒷자리에 앉은 네 명의 남성들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던 바람에 그 어떤 사념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좌석을 돌려 마주 보고 앉아있었는데,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따금 손뼉까지 치가며 크게 웃어댔다. 그리고 보니 린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가장 싫어했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린은 박수와 웃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1학기가 끝나갈 때쯤 엉망진창인 학점을 받아 다음 학기 장학금을 못 받게 생긴 나에게 린은 본인이 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면 지역방송국이 하나 있거든. 매일 밤 10시에 그곳에 가서 박수만 치다가 오면 돼. 그것만 해서 등록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꽤 쓸쓸해. 시간도 때울 겸 말이야.”

린이 설명한 그 일은 다름 아닌 방청객 아르바이트였다. 최저시급에 교통비까지 들었지만 오고 가며 시내 구경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밤 10시부터는 4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쪽잠을 자다가 아침 7시부터 8시간 동안 집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상에 들어섰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며 린은 나를 걱정했지만 매일 탈진할 때까지 땀을 흘리며 철판에 구멍을 뚫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운 일이었으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린을 안심시켰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저녁 린과 나는 린의 집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맛살로 김밥을 만들어 먹은 후 시내로 향했다. 버스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올 때는 걸어야 한다고 창가 자리에 앉은 린이 말했다. 한참 동안 논두렁을 달리던 버스는 20분쯤 지나자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건물 1층엔 전자담배 상점이나 고깃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로는

노래방과 술집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다국적 클럽’, ‘동남아 미녀 30명 상시 대기 중’ 따위가 써진 번쩍이는 전광판을 보며 나는 웬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린의 눈치를 봤다.

방청객 일은 무척이나 간단했다. 촬영 전후로 대기시간이 꽤 길었으므로 그동안 린과 나는 건물 밖으로 나가 알로에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촬영이 시작되면 방송 출연자들 맞은편에 줄지어진 회색의 플라스틱 팔걸이의자에 앉아 감독의 큐사인에 따라 소리 내서 웃거나 박수를 쳤다. 촬영은 새벽 2시쯤 끝났다. 나보다 어려 보이는 스태프 한 명이 수고했다고 말하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자 린은 나의 팔을 잡고 출입문으로 바쁘게 걸어갔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가는 도중 뒤에서 우리와 같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입을 모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왁자지껄하고 화기에애한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는 린이 그토록 서두른 이유를 어렵פות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간 린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방송국 건물에서 꽤 멀어져서야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니까.”

다음 촬영은 일주일 뒤에나 있었다. 사실 그사이에도 린은 다른 방송의 방청객으로 일을 갔지만, 나는 갑자기 뒤바뀐 수면시간에 생각보다 적응하지 못해 린과 함께 갈 수 없었다. 린과 두 번째로 방송국에 간 날도 늦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해 우리는 저녁을 건너뛰고 바로 버스를 타야 했다. 그날도 린은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방송국을 빠져나왔고 나는 그런 린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또한 모두가 억지로 웃고 있는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녀를 쫓아갔다. 린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운 후 나를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우리는 갓 입고된 계란 김밥을 하나씩 사 들고 집으로 향했다. 1시간은 죽히 걸어야 하는 거리였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지만 김밥을 한 알씩 빼먹으며 린의 옆에서 걸은 그 길은 외롭지 않았다.

“근데 있지, 이렇게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 김밥은 처음이야.”

린이 장난스러운 말투로 김밥 꼬다리를 씹으며 말했다. 가로등의 흐린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몰래 훑쳐보았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파운데이션은 여전히 두껍게 덮여 있었고 반쯤 뽑은 눈썹 위로 그린 아이브로우는 얇고 날카로웠다. 그 즈음부터 나는 린을 향한 나의 마음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설명할 틈도 없이 나는 린을 너무 자주 만났고, 가끔 린의 말을 속으로 따라 해볼 때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린이 가장 좋아하는 담배의 재고를 수시로 채우는 나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린을 오래도록 보고 싶었지만 나는 3년 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몸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철판에 구멍을 뚫을 것이라 확신했다. 무엇보다도 린의 안중에는 내가 없는 듯했다. 그 뒤로도 린은 매일 나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느꼈다. 린은 나를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의 마음을 베풀었고 언제나 그것에 만족했지만, 만족했기에 그건 결국 각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린에게 더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촬영장에 가는 날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더 오래 걸었지만 대부분의 날엔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진 채 집에 도착했다. 린과 나는 거의 모든 날을 함께 했기에 서로에게 알려줄 현재가 없었고, 알려줄 과거 또한, 필사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기에 없었다.

유난히 촬영이 늦게 끝난 날이었다. 우리는 잔뜩 지친 채 길을 걷고 있었다. 몸이 긴장한 상태로 박수를 시도해도 없이 쳐서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당분간은 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시내를 벗어나 거름 냄새가 미세하게 풍겨올 때쯤 등이 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간밤에 쌓인 그 동네의 슬픔과 외로움을 모두 머금은 듯 힘 없는 햇살이 씨락처럼 조곤조곤 부드러운 흙길 위로 떨어졌고, 나는 린의 풀린 운동화 끈을 보다가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린과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적막을 깨보고자 나는 내일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말을 꺼냈다. 여러 메뉴를 늘어놓다가 어묵탕이 나왔을 때 린은 대답했다.

“그건 좀 더 추워지면 먹자.”

적어도 추워질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다.

기차역에서 나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산 생과일주스를 먹으며 벤치에 앉아 김민섭 변호사가 첫날 나에게 들려준 그 사건의 경위를 곱씹어보았다. 린이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한 건 2학기가 끝나고 내가 본가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본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아버지의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학교와 꽤 먼 곳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필요할 서류와 옷 몇 개만 챙겨 돌아갈 예정이었다. 린의 남편은 퇴근 시간인 새벽 4시가 훌쩍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린은 그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직실 한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에도, 다음다음날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린이 공장에 전화를 하자 그가 3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돌아왔다. 린은 전화를 끊고 이를 내내 온 동네를 뒤지며 그를 찾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결국 그가 사라졌음을 경찰에게 알렸다.

린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남편이 사라졌어요. 위층 사는 여자가 수상해요.

린은 내가 이상한 음모를 꾸민 게 분명하다고 조사 과정에서 말했다. 위층에 사는 여자가, 어쩐지 매일 자기 부부 집에 방문했는데, 그동안 집의 구조와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을 파악한 것 같다면, 남편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는 작정일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50대의 건장한 남성이 납치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경찰들은 처음에는 린의 말을 그다지 귀담아들지 않았지만, 린이 서랍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100만원 또한 사라졌다고 말하자 나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서에서 전화가 온 날 나는 아버지와 마주앉아 아무 말 없이 맨 밥을 먹고 있었고, 전화가 걸려온 곳의 이름을 듣자마자 집 밖으로 나왔다.

나는 린과 보낸 크고 작은 일상의 단편들을 상세히 서술해야 했고, 2학기 기말시험을 단 한 과목도 보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들은 나를 본격적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나와 린의 남편 간의 관계를 끈질기게 물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 말은 김민섭 변호사에게도, 주영에게도, 나 혼자서도 해 본 적이 없으므로.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없었다.

실은 매일 새벽 린의 집에 찾아갔었다. 린이 먼저 초대하지 않았으니 찾아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저녁을 먹고, 방송국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 항상 린과 함께 했지만, 평화빌라에 도착해 린은 2층으로, 나는 3층으로 갈라지고 나면 내 마음이 표족한 무언가로 잔뜩 해집어진 기분이 들었다. 찢고 누우면 해집어진 마음 안에 군데군데 숨어있던 빈 공간이 선명하게 요동쳤다. 린은 그녀의 최선을 다했고, 그 이상을 바라는 건 나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시도했지만, 바로 아래층에서 넘쳐흐르고 있을 온기가 아른거려 결국 잠옷을 입은 채로 내려가 문을 두드리는 식이었다.

린은 늘 같은 옷을 입고 나를 맞이했다. 짙은색의 목이 늘어난 스웨터엔 갓 구운 호두파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오븐이 없었는데도, 집 안의 전등은 항상 다 꺼져 있었고 린의 남편은 거실에서, 원목 탁자가 있던 자리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해야 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의 새벽은 늘 허기졌기 때문에 린은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떡을 해동시키거나 동네 빵집에서 산 밤식빵에 포도잼과 땅콩버터를 듬뿍 발랐고, 그동안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허브차를 골랐다. 어스름한 달빛을 조명 삼아 찬란하게 펼쳐진 우리의 사소한 티타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껌껌한 탓에 뜨거운 차에 혀를 데이기 일쑤였지만.

부엌에 식탁이 있었지만 린은 굳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싶어 했다. 우리는 린의 남편 발 끄트머리쯤에 앉았다. 그리고 그냥 보았다. 매일 새벽 린의 집에서 빵을 뜯으며, 차를 식히며 린의 남편을 그냥 보았다. 이불을 젖히고 두 발을 조신하게

꼬고 있는, 육중한 발레리나 같은 그의 몸을 가만히 앉아서 보았다. 그의 지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애처로운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낯설었다. 린이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사실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쩌면 서로를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불현듯 생경하게 다가왔다. 나는 문득 린이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말이야,”

재탕한 캐모마일 티를 한 모금 마신 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그때 린의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나는 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린은 이렇게 답했다.

“박수를 칠 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손뼉을 부딪칠 때.”

나는 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되묻지 않았다. 대신 나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기억해.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아파야만 누군가가 만족한다면 그건...너무 끔찍한 관계니까.”

린의 말끝을 흐릴 때쯤 그녀의 남편이 거칠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저런 사람 따윈 린의 인생에서 없어져도 나쁠 것 없지. 나는 그의 큼직한 발을 훑어보다가 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린은 위로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나의 손길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역 근처 여관에 방을 잡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려던 참에 주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이 생각보다 커졌는데? 그 동네에서 린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실종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대. 넌 어쩌다가 이런 흥흥한 일에 휘말린 거야. 아무튼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거기 방 빨리 빼. 대학도 한 번 다녀왔으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니?”

전화를 끊고 나는 버스정류장으로 발을 돌렸다. 린을 내일 아침 찾아갈 예정이었지만, 당장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린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기필코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었다. 린은 나에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먼저 드러내지 않았지만, 언젠가 무너져내려 모든 게 드러날 순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린과의 마지막 방청객 아르바이트 날을 떠올렸다. 여름 끝물이었지만 열대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히는 밤이었다. 나는 안쪽 무릎에 청바지가 쓸리는 느낌이 불쾌해 어정쩡한 자세로 걸었고 린은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손부채질을 하며 따라왔다. 그러나 우리는 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그건 촬영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면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질리도록 쉴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촬영장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낮았고, 조명 때문에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한순간에 땀이 마른 덕에 린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밝고 화사했다.

그날 방송의 테마는 상황극이었을 것이다. 남자 패널 세 명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나와 각각 시골 총각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젊은 여성, 그리고 총각의 어머니를 연기했다. 나는 그들이 뻔하고 불쾌한 고부갈등을 연기할 것임을 짐작했고 그때부터 린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지만 린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으로 촬영을 준비하는 이들을 응시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할머니 분장을 한 배우가 나와 총각 역할의 배우에게 과장된 행동을 취하며 속삭였다. 가장 썩 집에서 골라왔다. 이번엔 절대 안도망갈 게야. 그러자 총각 역시, 팔을 과장되게 휘두르며 예쁘지가 않잖아요!

라고 소리쳤고, 젊은 여성을 연기한 배우가 달려와 총각의 등을 감아 안았다. 방청객들은 감독의 큐사인에 따라 깔깔거리며 웃었고,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을 때, 린 또한 박수를 쳐가며 웃고 있었다. 아무 리액션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감독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손이 터질 듯 박수를 쳤지만, 나는 도저히 웃음까지는 지을 수 없었다. 그건 나 홀로 고고하게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도, 끔찍하게 구린 그 상황극에 저항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린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귓속을 파고드는 린의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게 들렸지만, 그것마저 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린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촬영이 끝나고 린은 처음으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박수 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렀다. 왁자지껄한 세트장 안에서 린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을 왜 너한테 하는지 알아?”

나는 더 이상 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저 그 건물을 나가고 싶었다. 평화빌라 3층 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 않고 싶었다. 린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네가 나보다 불쌍해서 좋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린을 피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자정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가끔 퇴근 후 빌라 1층에서 린의 남편을 마주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는 나를 몰랐으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4달 동안 린과 매일을 함께한 덕에 나는 린의 일과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린과 겹치지 않는 동선을 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린의 번호까지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어서야 나는 나의 연락처에 린의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버스는 골목의 시작점에 정차했다. 저녁때는 이미 지났지만 어느 집에서 시작된

매콤한 양념 냄새가 골목길 사이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린을 우리 집에 초대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린은 늘 나를 위해 요리를 하고, 본인 몸에 맞지 않는다면 새 옷을 선물해주고,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의 말들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6월의 어느 날 새벽 말린 무화과와 녹차를 먹으며 린은 말했다.

“나는 너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건 네가 아니라 날 위한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그날 린은 왜 경찰서에 갔을까. 왜 나의 이름을 말했을까. 그건 자신의 박수에 화답하지 않은 나의 무심함에 대한 복수였을까. 내가 린을 두고두고 잊지 않기를 바랐던 걸까. 능숙하게 평화빌라로 향하며 나는 린은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만약 린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다면 시체를 치우는 일을 돕고 싶었고, 누명을 쓰고 있다면 오해가 풀리도록 돕고 싶었다.

지난 네 달간 나는 꿈속에서 린을 자주 마주쳤다. 그녀는 시뻘건 립스틱을 칠한 입술로 나에게 무어라 말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박수를 쳤다. 손바닥이 부르터 린의 입술과 똑 같은 색의 피가 그녀의 발밑에 고이도록, 린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평화빌딩 1층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꿈에서 들었던 그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갔다. 2층에 가까워질수록 박수 소리를 점점 커졌다. 그 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청량해서 나의 살이 찢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호흡 가다듬었다. 푹푹-. 정확히 노크를 두 번 하고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자 문 가까이 귀를 대보았다. 린이 차를 데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누군가의 커다란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망치듯이 3층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턱을 괴고 엎드려 두 팔을 벌렸다.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청년문학상 소설 심사평

심진경(문학평론가)

이번 서강 청년문학상 소설 부문 응모작은 총 열두 편으로 각기 다른 내용과 장르적 성격을 갖는 개성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소설들 모두 초심자로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기존 소설 장르를 모방하거나 반복하는 데만 집중되고 있어 아쉽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본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당대성의 예술로, 그런 맥락에서 소설가는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은 세계의 변화를 자신만의 문학적 현실 안에 담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성 문학의 작법과 문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 작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보다는 과거 작가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더 골몰한 다는 인상을 준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이자 그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다. 소설에 영원불멸의 형식 같은 것은 없다. 새로운 문학적 세대로서 기성 문학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을 가지고 소박하더라도 자기만의 문학 자산을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손뼉 박수〉를 이번 청년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소설은 지금 20대 청년이 겪는 정서적, 경제적 불안감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 여성 캐릭터의 만남과 결별의 과정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부러워하다가 공장노동자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된 ‘나’가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인 ‘린’을 만나며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과 그녀에 대한 모호한 감정을 다룬 소설이다. 번두리 소도시의 침울한 무드, 소외감과 동시에 들끓는 적개심을 가진 우울한 여자들, 그들 사이에 피어오르는 낯선 연대 의식과 사랑의 감정, 그리고 파국. 소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떠올리

게 하면서도 이를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주인공이 처한 혼란스러운 정서적, 현실적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 ‘손뼉 박수’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고(손뼉 치기나 박수 치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내가 아파야만 누군가 만족하는 관계’의 부조리함)이 다소 상투적이며, 소설의 메인 사건(남편 실종사건)이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런데도, 우울한 내면과 조음하는 황련한 풍경이 이방인인 두 여성 사이의 낯설고 어색하지만 친근하기도 한 관계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소설이 다른 응모작 중에서 유독 눈에 났 이유다. 당선을 축하한다. 다음은 다른 응모작들에 대한 간단한 심사평이다. 수상작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문학적 고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정진하기를 바란다.

〈왜 바다는 유리병에 담기지 않는가〉는 세이렌의 노래, 인어공주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이야기를 포개 우화적으로 꾸려낸 소설이다. 여기에 여주인공 ‘모래’라는 이름이 연상시키는 덧없음과 모호함의 이미지가 더해서 전반적으로 몽롱하고 나른한 느낌이 지배적이다. 이방인과 토착민, 바다와 육지, 노래와 언어 등의 이분법적 대립쌍을 중심으로 서사적 갈등과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 직조된 이야기지만 다소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 전개와 결말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다〉는 비유적 표현의 실제화, 기분 혹은 감각의 현실화에 기반한 발상 자체는 독특하지만, 이 상상력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채 나비니까 꽃을 먹어 치료했다는 식의 상투적 결말로 귀결되고 만다.

〈만개〉 또한 자신의 동선을 따라 어떤 하루를 기록한 일기에 가까운 소품이다. 현실의 한 부분을 그대로 떼어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그대로 소설적으로 재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일종의 문학적 작위(作爲)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설은 그러한 문학의 기본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04〉〈소설 제목 없음〉은 소설 쓰기에 관한 소설, 메타소설 혹은 소설가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가 직조한 ‘문학적 현실’과 ‘경험적 현실’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불러일으키는 착시와 왜곡에 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소설쓰기가 이미 베케트나 정영문, 이인성(한국의 베케트라 불리는) 등의 작가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소설작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며 소설 쓰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신이 당면한 현실과 맥락 속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형식을 고안해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承(이를 승)〉은 단숨에 한 호흡으로 읽을 만큼 가독성 있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불멸의 예술가 ‘인옥’과 시한부 인생의 초심자 ‘석명’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단지 이를 예술관의 차이 문제에만 한정짓지 않고 일종의 세대 간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의 가능성도 지닌 소설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문열의 〈금시조〉를 비롯해 1980년대 한국문학에서 자주 보였던 예술가 소설의 포맷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재가 과연 얼마만큼의 현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즉 요즘 소설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소설 같은 인상을 준다.

〈토사구팽〉은 우리에게 익숙한 ‘토끼전’을 거북이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소설로 거북이가 시스템의 일부로 도구화되기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소박한 연못-용궁을 발견하는 과정을 재밌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반전이나 새로움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유다〉는 변두리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지만 ‘가해와 피해’라는 폭력의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아이들 사이의 서열 문제, 권력의 논리, 영웅과 반영웅 등의 토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지서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의 배신을 예측했는지 불분명한데다가 지나치게 영웅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어 소설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설은 믿음에 대한 한 편의 우화를 읽는 듯하다.

〈끝나지 않는,〉은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겪을 법한 문제를 학교 괴담에 기반해 일종의 추리소설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나’의 편지는 마치 ‘너’와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장르적 문법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나’와 ‘너’의 첫 만남에 대한 서술이 길고 장황한 데 반해 인상적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

〈변기통〉은 살인사건의 진범이 겉보기에 가장 말쑥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트릭에 의지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일종의 추리물 혹은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장르적 장기를 보여주기에는 이야기의 사이즈가 다소 작고 ‘홍대남’, ‘문신남’, ‘정장남’에 대한 캐릭터 분석이 부족하다.

〈1937: 한 여름밤의 거짓말〉은 일제 강점기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관동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조선독립군으로 전향한 뒤 중국에는 고려인 니콜라이 드리트로비치 김으로 살다 죽은, 김학봉의 일대기를 편지와 일기를 중심으로 정리한 소설이다. 문제는 역사적 격동과 한 인간의 변전(變轉)을 엮으며 전개되는 이러한 일대기 형식이 장편소설에나 어울릴 법한 소재와 이야기 스케일로 단편소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12〉(마지막 소설은 제목이 없음)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순환에 관해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내용 자체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인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년문학상 소설 수상소감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며 구름이 없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캐한 연기와 하얀 입김을 구름으로 착각하며 무탈하게 살겠지요. ‘손뼉박수’는 그런 흐릿하고 애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부한 말에 태클을 걸고 싶어서 쓰게 된 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도 그 진부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글쓰기는 겁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늘 생각합니다. 저는 낭만이 없으면 도무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탓에 현실을 외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찾아다니며 세상을 낙관하기도 합니다. 아프고 차가운 세상을 볼 자신이 없어 등을 돌리지만 결국에는 슬픈 글만 써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둥글고 느슨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부채감은 미뤄두고 계속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낭만에서 동그런 마음이 빠지면 나만이 남을 테니 계속 낙관하며 연결되려고 합니다.

소설에도 일시 정지 버튼이 있다면 가을밤의 새벽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장면에 두 사람이 영원히 머무르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에 지면을 내어주신 교지서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 서강청년문학상 「수필」

김희주(영문 19)

허물어지며 넓어지는 나의 세계

어려서부터 엄마와 나는 둘이서 살았다. 공휴일의 엄마는 늘 갓 데친 시금치 같은 푸르뎡뎡한 표정을 지으며 보냈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엄마에게 오늘이 휴일임을 말해도 엄마는 기뻐한 적이 좀처럼 없다. 엄마의 손을 마주 잡고 같이 재래시장을 느릿느릿하게 걸을 때도, 동네에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서 걸을 때도 엄마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이 놀자는, 엄마는 참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했었다. 머리 자르는 돈을 아끼려 직접 머리를 자르던 때. 아빠보다도 아빠의 부재가 싫어 아무에게도 그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을 때. 나의 유년은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처음으로 엄마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주 작은 트리를 사 왔다. 기억한다.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밝아졌던 어머니의 표정도, 이제는 삶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해주는 빨강, 파랑, 초록 전구의 희끄무레한 깜빡임들도. 그 이후로도 많은 것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삶은 얼마간 괜찮았다. 서울에 오기 전까진 말이다.

번뜩이는 서울의 밤을 쫓고 나아가는 육중한 기차. 육중한 마찰음. 자본의 향기와 맛. 나는 냇을 잃었다. 외로웠다.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자꾸만 생겨났다. 이를테면 이런 일. 대외활동을 하던 중 서울역 광장에서 남은 재고의 행사 빵을 처리하던 중이었다. 한 노인은 나에게 다짜고짜 다가와 빵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직된 표정, 날 선 목소리, 허름한 옷차림. 또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평화로운 겨울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온 껌팔이 여성을 보면서 느꼈던 당혹스러움. 그는 시력이 좋지 않은 듯 테이블 사이로 느리게 움직였다. 한눈에 봐도 치아 상태가 조악했다. 그때 들려오는 카페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 ‘저기요,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손님에게 민폐잖아요.’ 그는 왜 그렇게 쉽게, 날 선 단어들을 골라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일까. 나는 다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달콤한 외국의 빵, 환하고 시원한 느낌의 주황 조명, 세련된 분위기. 그는 이 공간에 왜 그리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까. 돈을 지불했어도 달라질 것은 크게 없어 보였다. 쫓겨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공간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했다.

새내기 때에는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했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올 무렵에 나는 꼭 작아지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내가 한 수업은 선한가? 왜? 무급으로 하는 일이라서 선한 것인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서 과연 ‘선한 일’인가? 선함에는 일말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러나 세상은, 사회는, 껌팔이 여성 노인, 빵 한 조각에 분노하던 홈리스의 대화를 끝까지 들으려 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역에 거주하는 그들의 삶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타자에 게만 친절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 가난을 수식하는 모든 형용사는 부정적이었다. 나태한. 더러운. 흉한. 조악한. 초라한. 우악스러운. 눈치 없는. 불쌍한. 껌끄러운. 천한. 이기적인.

그러하여 깨닫게 된 것이라면 나는 가난하지도, 불운하지도 않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부유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멀리 있는 부와 빈곤을 관찰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소시민일 뿐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 나는 아주 우연히 ‘홈리스 야학’이라는 이상한 곳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세상의 진단에 의하면 홈리스 야학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었다. ‘정상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이 착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과목 중에는 ‘권리’가 있었다. 용산의 작은 골목을 비좁고 올라가다 보면, 한 대 치면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한 파란 대문이 보인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양이와 작은 텃밭, 그리고 갓 무너질 것 같은 테이블과 간이 의자에 모여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담소를 나누곤 했다. 평균 학생 나이가 쉰 살은 넘는 사람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과목 중에는 ‘권리’가 있었고 시민으로서 수급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공부했다.

수업은 지독히 평범했다. 2시간 내도록 ‘가, 가, 거, 거’를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은 연이어 실수했다. 이곳에 쉽사리 ‘특별하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꺼려졌다. 왜냐하면 내가 곁에서 본 홈리스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다. 수급비를 받으면서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병원에 갔다. 하루의 일과를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 같았다. 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상정을 쉽게 한 나 자신의 오만함에 등골이 자주 서늘해졌다. 홈리스 야학에 들어서면 붙어있는 큼지막한 현수막에 붙어있는 구호처럼,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들은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평범함. 그 평범함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그들은 과제를 성실히 해왔다. 어떤 때에는 해 오지 않았다. 그들은 고양이를 좋아해서 애써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수업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몸이 아팠다. 그들은 목소리가 켜졌다. 모두가 할 말이 많아 때로는 수업 중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파들거리는 손길을 가진 학생 B를 위해 교재에 붙일 스티커를 같이 떼어주기도 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지하다는 말로 수식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해 그 동정과 시혜에 맞섰다. 자신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자신은 그렇게 불리지 않겠노라고 세상에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수업의 과정은 곧 저항의 과정이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동안 우리도 악을 쓰며 선포했다. 당신에게도 그런 말을 할 자격 같은 건 없다고. 나의 가난은 나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선포의 언어에 가까웠다. 그렇게 매주 수업을 이어가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도시가 으폐하고, 밀어내고, 쫓아낸 사람들. 호텔 가는 다리를 짓는다고 홈리스 텐트촌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 공권력이 노숙용 텐트와 물품을 버렸다는 사실, 58만 원이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이 국가의 예산안의 숫자 몇 개로 납작하게 축소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납득되지 않았다.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불복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이 공동체와 지독하고도 단단한 사랑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이런 애정은 저항을 낳았다. 그 이후로 나는 집회에 나가는 나, 공공임대를 요구하는 나, 철거민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나를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편이었다. ‘그들’이 ‘우리’라는 수사로 교체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내 세상은 조용히 조각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주 아득하고 희끄무레한 형상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더없이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수평선 너머로 첫 노를 저었던 어떤 누군가가, 지구가 납작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환희가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해보곤 한다. 마음속 그려놓았던 많은 선 사이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언제나 열린다. 내 마음속의 빼곡한 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질 때야말로 나는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납작하지 않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조우하게 된 순간 내 세상은 둥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생각한다. 내가 그들을 향해 걸었던 무수한 길들은 사실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여태껏 나는 그들만을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얼굴 위로 데친 시금치 같은 엄마의 표정, 크리스마스 전구를 바라보던 나의 어릴 적 표정이 떠오르는 것. 그들의 싸움이 나의 싸움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진자운동을 계속하지만 이제는 외로워하지 않는다. 허물어지며 넓어지는 나의 세계, 그 시좌 안에 나와 네가 있다.

청년문학상 수필 심사평

박솔기(문학평론가)

수필은 문학의 장르 지도에서 상당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한다는 점, 특정한 형식 규범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수필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도 형식도 모두 자유로워서 쓰는 사람이 내키는 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수필이라면, 수필의 문학적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쓰는 사람의 사색의 깊이, 내용의 충실성과 진실성, 개성적인 문체 등 글의 전반에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필은 가장 까다로운 문학 장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필 부분 응모작을 살피면서 저는 이 기준들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하는 장르인 만큼 수필은 쓰는 자의 자기 경험과 그에서 비롯한 사유의 과정 및 결과를 내용으로 합니다. 저는 평범한 경험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사유의 힘을 높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물어지며 넓어지는 나의 세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합니다. 보통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평범함을 발견하는 사유를 통해서, 이 글은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고 타자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장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이어가는 문장의 힘 역시 이 글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쥐 잡이 놀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필을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면 중수필에 속할 이 글은 우화와 극의 구조를 동시에 사용하며 자신의 사색을 펼쳐 나가는 상당히 화려한 글입니다. 간간이 섞여 있는 유머는 글 전체의 절망적 톤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다소 작위적인 부분들과 상투적인 표현들이 경험의 구체성을 휘발시키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단점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추상화는 글을 언어유희와 지적 유희의 차원에 머무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 응모작에 대해 짧게 언급해봅니다. 「안녕하세요를 금같이 하라」, 「비효율적으로 말하기」는 일상적 발화의 힘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좋으나, 교훈적 어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대학생의 경험을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어 매우 잘 읽히고, 「달님과 나」, 「7.18+4.16」는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을 잘 교차시켜 전달하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네 작품 모두 경험의 서술을 넘어서는 사유의 측면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냄새」, 「탈피」, 「은화와 사랑과 공알탄」, 「차가운 도시에 파도가 치면」의 경우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사색을 섬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만, 다소 추상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문학상 수필 수상소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만 같아요. 무엇을 나만 알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람들이 이런 의제에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 글을 누군가 한 번쯤 읽고 도시 빈민을 시혜와 동정이 아닌 존중으로 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주거권은 인권이고, 그렇기에 홈리스와 철거민이 안전해야 내가, 우리가, 모든 시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장사하던 동네에서 한순간 가게를 철거당한 사람들, 성실히 육체노동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용역에게 폭격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밀어내 지은 깔끔한 땅과 도로, 우리의 평화. 이 평화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이 글은 혼자서 태어난 글이 아닙니다. 야학에서 조우한 많은 주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타자화 없는 글, 다정함이 느껴지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손이 설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글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작과 기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문학상 비평 심사평

심진경(문학평론가)

이번 서강문학상 평론 부문 응모작은 총 다섯 편으로 각각의 작품들 모두 평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뚜렷한 단점들을 갖고 있어서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못했다. 우선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 대해 다룬 〈말라붙은 입〉을 보면, 일단 이 글은 모든 문장이 겹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일 뿐, 다른 문장들과 논리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제각각 흩어져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글은 다른 응모작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루는 대상 텍스트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인용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독자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다룬 〈사내들이여,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는 일단 옐로우 페이퍼의 헤드라인을 연상시키는 다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제목부터 부적절해 보인다. 다소 무겁고 오래된 소설을 지금의 독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가볍고 현대적인 것으로 다뤄보려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몰락의 원인을 돈과 여자로 보는 방식 자체가 전혀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 논리 또한 상투적이고 천편일률적이어서 분석이 재밌다기보다는 뻔하다는 인상을 준다.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인간의 도구화와 폭력의 재생산〉은 평론 부문 응모작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들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글쓰기가 이 작품에 대해 어떤 판단과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 또한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 얘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산만하게 펼쳐지다 보니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조차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평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평가다. 특히 기존연구가 충분히 많은, 잘 알려진 작품에 대해 비평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글쓴이 자신만의 평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 이러한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에 대한 자기만의 평가 기준을 좀 더 점검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문학 작품을 다룬 두 편의 평론 모두 이런저런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다룬 평론,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1950년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양상 탐구〉는 일단 제목부터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경직된 인상을 주고 있어 비평문으로서 아쉽다. 게다가 본문 구성 또한 ‘서론-본론-결론’이라는 전형적인 삼단 구성에 이 형식적 표제를 그대로 쓰고 있어 전공 학술에세이나 보고서에 가까운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용 또한 〈중국인 거리〉에 대한 비평의 차원에서건, 1950년대 기지촌 여성에 대한 분석의 차원에서건 전혀 새롭지 않다. 이와 달리 〈사랑은 내 안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작인 김금희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중심으로 사랑의 속성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놓고 있다. 특히 실용(實用)의 세계와 무용(無用)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필용과 양희의 사랑의 시작과 끝을 통해 다루는 방식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부의 분석 내용이 후반부의 사랑과 결여라는 토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져 서로 무관한 두 가지 주제가 나열된 느낌이다. 게다가 ‘사랑은 자기 안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주장 자체가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평론에 왕도는 없지만 기본은 있다. 그것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텍스트적, 컨텍스트적 이해가 충분해야 하며, 어떤 작품에 대한 분석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조차도 비평의 논리에 설득되어 그 작품을 찾아서 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응모자의 계속된 정진을 바란다.

84호

편집위원 후기

김난희

안녕하세요. 이 책이 출간될 때는 2023년 1학기가 시작될 때일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빠르게 지나 벌써 2023년이고 84호가 출간될 것이라는 점이 정말 신기하네요.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랍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자면 저는 교지서강 부원 중 한 명이지만 이번 84호에는 제 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리 주제를 정한 후 평소에 부지런하게 쓰지 않고 계속 주제를 바꾸면서 미뤄오다가 개인 사정까지 겹쳐서 결국 마감 시간 내에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일을 미루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맨날 얻고 써먹지는 못하는 교훈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글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 후기는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낸 글이 없는데 후기를 쓰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개인 사정 때문에 저는 이 동아리를 떠나게 될 예정이어서 마지막인데 후기라도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떠나는 사람이 적은 글이므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동아리에 있으면서 느낀 교지서강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동아리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동아리방이 있으면 시간표 중간에 뜬 애매한 시간을 동아리방에서 보낼 수 있고 소파가 있어서 피곤할 때 가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가 있어서 여러 음식을 보관해 놓을 수 있어서 한 번에 못 먹는 대용량 아이스크림도 사놓을 수 있고 여러 냉동식품도 사놓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각자 알아서 양심껏 채워 놓는 식인데 저는 인제 와서 돌이켜 보니 먹는 것은 열심히 하고 딱히 양심껏 채우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다른 좋은 점은 일정이 빡빡하지 않고 글감을 정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교지는 1학기에 1번씩 출간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까지의 마감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지런하기만 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이 마지막에 미뤄서 몰아 쓰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주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적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실을 때 인터뷰 비용 같은 게 필요하다면 동아리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주 하는 회의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통해 서로가 쓴 글을 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제 생각의 편협했던 부분을 느끼고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 지 딱히 제 생각이 아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나 글쓰기 외에도 같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학교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호에 제 이름은 없고 저는 교지를 떠나겠지만 앞으로도 교지는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김이레

안녕하세요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외 앓 되’의 저자 김이레입니다. 우선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 내 글을 읽어줬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셨던 모든 분들이 올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글감이 여러 번 바뀌다가 마감을 치기 몇 주 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이 이번 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84호를 준비하면서 블로그와 교지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미대 졸업전시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블로그에 쓰면 될 글을 왜 교지에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글을 교지에 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교지에 무슨 글을 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블로그와 교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민은 다음 호를 준비하면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원래 학교 필독서 공모전을 위해 썼던 글입니다. 당시에 나름 열심히 쓰기도 했고, 공모전 참가 인원이 몇 안 될 것 같아 내심 수상을 기대했습니다.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수상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제 글을 읽어본 분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제 글이 처음으로 담긴 83호를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읽었다며 말해주신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레야,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돌이켜보면 제 글에는 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노에 깊이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화가 난다고 때를 쓰며 엉엉 우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글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단 화를 내고 뱉는다. 누가, 어떻게, 무엇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욕만 합니다. 아빠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분노로 가득찬 글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읽히는 글은 되지 않을 거라던 그 말이. 물론 이번 글도 나름 마감 구색을 맞추겠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호의 글은 더 잘 쓰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떴쟁이 어린아이 분노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심도 있는 글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지인들에게 이번 84호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을 떠올렸습니다. “성적이 좋았다가 나뻐다가 그런 거지 뭐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 때도 있지” 이 가사처럼 제가 쓴 글은 앞으로도 좋았다가 나뻐다가 그럴 것입니다. 뭐 제가 쓴 모든 글이 좋았다면 아마 서강대에서 이라고 있지는 않겠죠. 무라카미 하루키처럼은 아니더라도 인세로 국밥 정도는 사 먹으면서 다음 글을 집필하고 있을 겁니다.

국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강릉 시장에 국밥을 기깔나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부산식당’이라고 왜 강원도에서 경상도를 찾나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을 잠재워줄 만큼 소머리국밥이 끝내줍니다. 낫선 강릉 땅에서 어디서 밥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 유난히 아저씨들이 몰려있는 식당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 틈에 슬그머니 줄을 서봤고 그날 제 점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들 때는 역시 아저씨들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85호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필한 나만의 식객을 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왜 이 글을 블로그가 아닌 교지에 실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성향상 다시 분노가 가득 담긴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둘 다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글은 징징대는 어린아이에서 조금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강대 허영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하나 그리고 둘〉을 처음 보던 해에 생일선물로 필름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사용법에 서툴러서 작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그전까진 필름도 없이 수십 번이고 셔터를 눌러보곤 했습니다. 무엇을 찍었는지는 낡은 28mm 단렌즈만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1년간 교지실을 드나들며, 편집부원들의 글을 읽으며, 회의 시간마다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지서강은 필름 없는 필름 카메라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유용하고 완전무결한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허공에 대고 셔터를 누릅니다. 꼭 그래야만 해서, 또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84호를 읽은 당신은 당장 눈앞에 필름을 현상해 가져오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들여 긴 글을 모조리 읽었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필름은 없지만, 여유가 된다면 함께 텅 빈 카메라가 되어보자고 부탁해도 될까요? 훗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오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고 말해도 될까요?

스무 살이 되자마자 교지에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갈래 중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여전히 너무나도 어렵지만 바로 옆에서 함께 툴툴대면서도 애정을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곳을 쉽게 떠나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지는 내가 나여도 되는 공간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여도 되는 학교를,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간섭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글 따위는 아무 쓸모없을지도 몰라,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요.

제가 가진 ‘올림푸스 PEN EE3’라는 기기는 하프카메라라, 필름 한 장에 두 장의 사진이 세로로 실려 나옵니다. 반쪽과 반쪽이 서로 어울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몇 달간 카메라가 담아 놓았을 기억이니 둥글게 둥글게 이어보겠습니다.

김한울

교지에 오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지가 이어질까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단 한 명의 학생이 너무나 괴롭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이 너무나 괴로울 것이라면 교지라는 단체가 없어져도 됩니다. 캠퍼스 내 대자보가 붙고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반박 자보를 붙이던 시기는 사라졌고, 지금은 본인으로 수렴하는 억울함에 가득 찬 누군가에 의해 찢기는 시기이니까요. 불편한 것이 왜 불편한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면 그만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교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바뀌는 20대 인서울 대학생의 이미지들, 취업사관학교라는 가면이자 나체인 현실을 숨긴 채로 지식의 장이라며 전체할 수밖에 없는 국내 대학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고자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자로 서의 나들.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는 그 교차점에 끊임없이 도망치면서도 친구를 찾는 무능력하고 외로운 우리가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어 가기에 세대 구분조차 불분명한 세대 속에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고 또 후배들이 있으며 모두 등글게 등글게 모여 있습니다.

일하다 만났던 선배들이 제 복학 소식을 듣고 “학생운동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했답니다. 안 합니다. 운동이랄 것도 없고, 다만 사라질 뻔한 교지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수업만 듣기에 급급했는데, 점차 ‘아, 정말 학교가 작은 사회구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 학생은 왜 저렇게 학생회를 열심히 하지? 어떤 동력에서 비롯된 걸까?”

“이 학생은 반응이 이렇게나 없는 단체카톡방에서 왜 계속 함께 시위에 나갈 사람을 애타게 찾지?”

생존이라는 좁고도 깊은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던 때, 비로소 제 시야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우나 한 번도 말 걸어 본 적 없었던 친구들에게로 서서히 당겨졌습니다. 이래서 학교는

작은 사회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타자들이 섞이는 곳인 바로 그곳으로서요. 그렇다면 서로가 타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학우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자구(字句)에만 천착하는, 고졸 혹은 대졸자인 부모를 둔 5~10분위 혹은 이번 학기에는 소득분위가 어떻게 산정될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 출생 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안타까워졌습니다. 이 말을 오랜 시간 동안 제각기 다른 표현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수백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가난은 너무나 괴로우나 동시에 막상 닥치면 그보다 더 괴롭기에 오히려 생에 대한 상상력을 더더욱 넓혀 주니까요.

몇 번이고 자퇴를 고민했으나 저 역시 비겁자이기에 자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졸업할 공간이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 챙길 수 있는 이익이나 챙겨 나가자 하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동체를 만들 의욕이 넘치는 제각기 외로운 학생들을 마주치며, 교지실을 마지막 비밀 언덕 같은 공간으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나쁘고 누가 옳은지의 구분선은 너무나 유동적이고 흐릿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출발선이겠습니다. 누군가에 책임 소지를 100% 전가하는 건 너무나 비겁한 짓이니까요. 모두가 모자라기에, 서로의 모자란 지점을 짚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학교들에서 교지가 하나들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탄압을 받은 건 아니고, 긴 호흡으로 글을 써내는 단위에 사람이 하나들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멸종했습니다. 어차피 졸업하면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을텐데, 교지의 지면이 누군가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인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게하는 시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강 안의 교지가 멸종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멸종하지 않게 조심합니다.

금주 약속을 백 번쯤 반복하고, 매일같이 숙취에 몸져 누워 교지실에서 자고 있을 때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하며 깨워 수업에 보내준 교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운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교지서강을 하면서 필명을 쓰는 건 처음입니다. 교지 활동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필명이라 하기도 부끄러운지라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실 것 같지만, 모른 척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ㅎㅎ

드디어 교지서강 8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세상입니다. 나의 분노에, 타인의 분노에, 범람하는 수많은 감정 사이에서, 감정이 날카로워 상처 입고, 아프기 싫어 상처 입히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색과 여유를 게으름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여론에 그대로 휩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안간힘으로 급류를 거스르는 나날을 살고 게실 수도 있지요. 다름이 틀림이 되고, 비판과 비난의 경계가 흐릿해진 지금, 어쩌면 우리가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유가 아닐까요.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당신을 서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지의 지면으로 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색의 시간이 교지를 읽는 잠깐의 틈이라도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글을 쓸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 무색하게도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조선”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재밌게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더욱 재밌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있네?’ 하는 마음으로 너그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원고보다 후기가 더 쓰기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부족한 글에 부족한 후기지만,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신 교지서강 부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고생해 주신 편집장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교지서강이라는 동아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서강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여경민

교지 84호 제목은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공동체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말해준 제목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교지의 제목은 ‘공동체란 어떤 것이고 좋은 공동체란 어떠한가 할까?’이지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본능이니까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껴야겠죠.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번 학기에 교지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작년 여름 복학을 준비하면서 3학년이 되었으니 슬슬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울과 저만 있던 적막한 교지실에서 교지가 저에게 대학생활의 전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준 한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울의 세계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한울은 저에게 귀찮게만 느껴졌던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저와 다른 방향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더군요. 대학에 들어온 후 처음 만나본 선배였습니다.

한울을 만나고 학교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었고, 그것이 제가 교지를 떠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교지가 공동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간과 사람을 안겨주는 곳이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지가 어떻게 학생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마땅히 답을 찾지 못하고 이번 호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교지를 제작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교지 편집위원 친구들, 서리태의 예송, 노고지리의 희주와 경희. 이들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학교가 외롭지 않고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저도 학교와 교지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스럽지만, 아직은 걱정을 미뤄두고 재미난 것들을 찾아서 해볼까 합니다. 교지는 늘 열려 있으니 같이 해보고 싶은 재미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타 동아리, 기관, 독자 여러분도 환영입니다.

차송현

저는 모든 블로그 포스트를 서로이웃 공개로 올립니다. 누군가 내 글을 검색해서 읽는 게 부끄러워서요. 주제를 몇 번 변경하는 바람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글을 교지에 실게 된 것이 죄송스럽고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근거려요. 꼭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글을 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송

내가 언론사를 두 개나 할 줄이야..

헤럴드에서의 임기 2년, 그 끝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퇴임! 이제는 언론사라면 지긋지긋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언론사에 들어왔네요.

밖에 있을 때 교지에 대한 인상은 새내기 시절 봤던 빨간색 ‘완전변태’ 표지와 꼴페미라는 말, “재네는 언론사가 아니고 지들 쓰고 싶은 거 쓰는 문집 동아리야.”라는 말, 행정 처리도 느리고 다섯 개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위상이 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학기 서리태 운영진에 들어오며 경민을 만났고 교지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저 수필 문집일 거라 생각했던 교지는 막상 읽어보니 꽤 괜찮았습니다. 형식을 갖춰가며 학술적으로 쓴 글도 있었고,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인상 깊은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표현으로 잘 분석한 글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지에 비정규 멤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지가 너무 체계가 없다고도 생각했지만 어느새 저도 이 느슨함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각쟁이거든요. 하하.. 헤럴드에서 매 회의마다 기획서 제출하고 2주 만에 초고 마감 일정을 지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과 달리 교지에서는 회의 시간 시답잖은 이야기로 떠들어도 되고, 때로는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아직 학생인데 얼마나 대단한 글을 써내겠냐며 일단 즐겁게 재밌게 하자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지가,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나서 글을 써도 되는 교지가, 좋긴 좋더라구요.

교지에 들어오는 메리트는 역시 교지실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교지라는 공간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살아서 밥을 못 해 먹는 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냉동고도 있었으니까요. 공간도 넓겠다, 밥통도 들여볼까? “어차피 교지 애들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눈치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핫반 먹기 싫었는데

잘됐습니다. 현미쌀을 정수기 물에 씻어가지고 와서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반찬과 채소, 과일도 냉장고에 채워둡니다. 어느새 ‘생물’이 많아졌습니다. 기숙사 말고 자유롭게 오가고 밥 먹을 공간이 생겨서 좋습니다.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러 가능성을 펼쳐봅니다. 이제 오븐과 인덕션까지 들어왔으니 앞으로가 아주 기대됩니다.

한울과 경민이 하는 고민들을 곁에서 같이 해보고, 나를 지지해 주는 공동체들에서 행복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란 생각들이 저의 글에 담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4호의 ‘둥글게 둥글게’라는 제목은 꼬옥 마음에 듭니다. 비정규 멤버로 뒤늦게 들어왔는데도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받아들여준 경민과 한울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어쩌면 조금 심심하고 외로울 수 있었던 휴학 학기를 교지 덕에 잘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교지 친구들과도 교지실을 오가며 어느새 친해져 있는 게 기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힘껏 교지 친구들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도 교지실에서 복작복작 재미나게 보내봅시다!

YOUR ACCESS TO SUCCESS

KB인베스트먼트는 운용자산 규모(AUM)를 비롯하여
투자규모 및 투자회수(EXIT) 부문에 이르기까지 최상위 투자회사로서,
국내 벤처캐피탈 및 Private Equity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혁신적 기업'을 만드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KB 인베스트먼트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좋은 중고차 고르기
진짜 단순해!

KB가 **진단**하면 진짜 좋은 차니까!

KB차차차
KB진단중고차

KB의 82가지 세부검사와 진단보증  진단내용 공개  책임지고 보상  동영상 확인

 KB 캐피탈